





장위동·석관동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5

장위동 · 석관동

장위동 · 석관동

기　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 연구원)
　　조성윤(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류영희(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박사수료)
　　최호진(지음건축도시연구소 소장)
교열 · 교정 |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김지훈(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협동과정 민속학 박사)
　　김진흠(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수료)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권이지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9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성북구청 '2019 장위동 · 석관동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북 발간사업 콘텐츠 개발 및 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별도의 저작권 또는 소장처 표기가 없는 사진과 그림은 대부분 발행처 또는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그림 중에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는대로 정식으로 게재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5

장위동·석관동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발간사 / 6

1장 | 고개 너머 동쪽 들판
장위동 / 10
석관동 / 23

2장 | 석관동 의릉 이야기
경종 이야기 / 36
의릉의 조성 그리고 수난 / 47
능행_의릉으로 가는 길 / 57
성북의 능 · 원 · 묘 / 68

3장 | 8년간의 쉼표, 번암 채제공의 명덕동 별업 / 77

4장 | 장위동 남녕위재사
남녕위재사 / 90
부마도위 윤의선과 덕온공주 / 94
장위산인 윤용구 / 100
사후당 윤백영의 손녀 유선을 만나다 / 107

5장 | 석관동과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의 탄생 / 136

차 례

석관동과 남산 / 139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 / 141

7·4남북공동성명의 아이러니 / 142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그리고 내곡동 시대 / 146

6장 | 장위동·석관동 마을과 민속

장위동·석관동 마을과 민속의 특징 / 152

자연마을과 세거 성씨들 / 155

공동체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중계와 개별 친목계 / 162

마을공동체 의례, 석관동 도당제 / 168

공동체 관행과 놀이 / 174

세시풍속과 놀이 / 176

생업과 시장 / 179

7장 | 장위동·석관동의 건축이야기

장위동 / 196

석관동 / 231

8장 |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형성 / 263

발간사

성북문화원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섯 번째 책인『장위동 · 석관동』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위동과 석관동은 그 오랜 역사와 많은 이야기에도 역사 ·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책은 성북문화원에서 이 지역을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장위동과 석관동은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조선왕조의 경종과 선의왕후의 능인 의릉은 천장산 밑에 다소곳이 내려 앉아 석관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능이 생기고 나서 주변으로 마을이 생겼을 것입니다. 장위동도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 시대 명재상인 번암 채제공은 장위동에 별업을 짓고 더 좋은 정치를 생각하며 다시 중앙 정계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의 묘와 그의 남편인 남녕위 윤의선이 살던 곳은 현재 '부마駙馬가옥' 혹은 '김진흥 가옥'으로 불리며 장위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현대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장위동은 택지개발을 통해 한때 부촌으로 거듭난 공간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택지개발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고, 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주도로 재건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만들어진 곳도 바로 장위동, 석관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사정권 시절 서슬 퍼런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본청은 석관동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7 ·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잡혀 와서 고통을 받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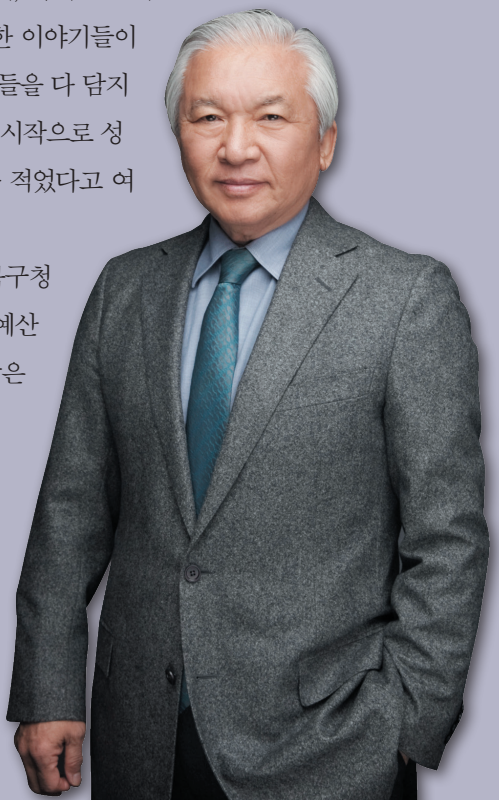
장위동과 석관동은 도당제와 친목계 등 마을공동체의 흔적이 잘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마을 계'라고 할 수 있는 이중계里中契가 최근까지 남아 있었으며, 마을 토박이들의 모임인 향우회 역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당제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관동 도당제는 천장산신(할머니)이 의릉이 만들어지며 마을로 내려와 동신이 되었고, 중랑구 봉화산신(할아버지)과도 관련이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민속입니다.

장위동과 석관동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위전통시장과 석관동 시장들의 유래와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 아직 농촌이던 조선 후기에서 현대까지의 삶 등등 아직도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남은 이야기들을 다 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원은 이 책을 시작으로 성북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조사가 적었다고 여겨지는 곳의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성북구청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지역 연구와 조사는 물론 직접 책의 집필까지 맡은 성북문화원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9년 12월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1장 | 고개 너머 동쪽 들판



고개 너머 동쪽 들판

성북구는 북한산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개의 산줄기가 나란히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지형이 특징적이다. 성북동 뒤쪽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는 정릉과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를 지나 개운산에서 솟아오르고, 그 동쪽의 산줄기는 번동의 오패산에서 솟아올라 남쪽의 천장산까지 연결된다. 장위동과 석관동은 오패산과 천장산의 동쪽에 자리하며 우이천, 중랑천을 경계로 노원구와 중랑구를 접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는 능을 배알하러 가던 길에 월곡동에서 장위동 및 석관동으로 넘어가던 고개인 우장현[1]에 이르러 잠시 쉬면서 동쪽 일대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 융복을 갖추고 교(轎)를 타고 이극문을 거쳐 홍화문을 나갔다. 동관왕묘 앞의 체마소(遞馬所)에 이르러 교에서 내려 말을 탔다. (중략) 우장현(雨藏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소차(小次)에 들어갔다. 내가 이르기를, "국도(國都)의 지세가 세 면은 다 험하여 관문이 될 만한 곳이 있으나 동쪽은 산천이 광활하고 들판이 넓게 트여 한눈에 삼사십리가 들어와 막히는 곳이 없다. 지금 둘러보니 과연 허술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 승지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여기서부터 동으로는 큰 산이 많으니 전

적으로 허술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2]

정조가 신하들에게 한 말의 요점은 도성 수비의 허술함을 염려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말에서 우장현에서 본 일대의 당시 풍경을 그려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도성을 멀찍이서 둘러싼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과 같이 수려한 산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중랑천과 그 지천들이 핏줄처럼 흐르는 널찍한 평야지대. 이러한 자연환경 때문에 조선시대 장위동과 석관동 일대의 땅들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천장산과 오패산 자락에는 왕실의 능묘가 자주 들어섰고 양반 관료들은 자신들의 별업을 조성하였으며, 농민들은 토지를 일구어 논밭을 경영했다.

근대에 접어들어 장위동과 석관동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었다. 1911년 경원선 철도가 중랑천을 따라 남북으로 놓였고, 1939년 경춘선 철도가 장위동과 석관동을 가로지르며 동서로 놓였다. 철도의 건설 이후 장위동, 석관동을 지나는 인구와 물자의 이동량이 많아지고 서울의 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장위동과 석관동의 인구와 주택도 많아졌다. 1970년대 이후 경원선 철도가 도심과 연결되는 전철 노선으로 쓰이며 신이문역, 석계역이 잇달아 생기고, 자동차 도로와 다리가 놓였다. 이와 함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장위동, 석관동에 남아 있었다는 논밭과 농가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두 동은 완연한 서울 시내 주택가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한동안 1·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많았지만 1980년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들이 대거 들어섰고 2000년대부터 구역별로 재개발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며 고층 아파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다.

가파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장위동, 석관동은 예전의 모습들을 곳

곳에 간직하고 있다. 석관동에는 의릉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주고, 의릉 옆 석관동 도당은 농업의 풍요를 바랐던 옛 돌곶이 마을 농민들의 염원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다. 장위동의 진흥선원은 옛 남녕위재사로 쓰이던 집으로, 이곳에는 윤의선과 덕온공주 부부, 윤용구 대감과 그의 딸 윤백영 여사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온다. 1960~70년대의 모습들도 어느 곳보다 많이 남아 있다. 장위동의 동방주택과 국민주택 단지, 석관동의 1·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유산들은 장위동과 석관동이 간직한 시간의 층위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한 이 지역 사람들의 살림살이의 모습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장위동

오패산

맑은날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 서울의 동쪽 지대를 굽어보면 미아동 신일고등학교 뒷편에서부터 시작해 남쪽으로 길게 점점이 이어지는 녹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언뜻 숲이나 공원처럼 보이지만, 아래쪽 도봉로에서 올려다보면 경사면에 복잡한 도로와 많은 주택을 품고 있는 제법 고도가 높은 산지이다. 이 산을 오패산梧牌山이라 부른다. 산세가 넓은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곳에 따라 별칭을 갖고 있다. 남북으로 뻗은 산세의 중간쯤 북서울꿈의숲을 감싸고 있는 산지는 벽오산碧梧山, 월곡동 동덕여대 캠퍼스를 굽어보는 봉우리는 월곡산月谷山이라 한다. 벽오산과 월곡산 일대는



천장산에서 바라본 오패산과 장위동, 월곡동 일대

오동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월곡산의 오동근린공원은 장위동과 월곡동의 경계가 되는 지점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3]

고개

남북으로 뻗은 오패산에는 동서를 잇는 고갯길이 발달했다. 미아사거리에서 번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오현梧峴이라 한다. 옛날 오동나무의 일종인 머귀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아사거리에서 장위1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동방고개라고 한다. 1960년대 장위동에 동방주택이 들어서면서 산을 깎아 만든 고갯길이기 때문이다. '다릿굴고개'는 월곡동(다릿굴)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장위고개'라고도 하며 옛날에는 '우장현雨藏峴'이라 하였다. '마른대미고개'는 오패산 지맥과 천장산 지맥을 가



천장산에서 바라본 마른대미고개 일대

르는 화랑로를 따라 상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를 넘으면 평지가 시작되므로 고개가 바로 끝났다는 뜻으로 '바로대미고개'라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발음관계상 '마른대미고개'라 불렀다고 전한다.[4]

장위동은 이들 오패산 고개의 동쪽에 자리한 동으로, 서북쪽으로 오패산의 산세를 등지고 남동쪽으로는 우이천과 중랑천 유역의 너른 평지를 마주하고 있는 서고동저의 지형적 특징을 가진다.

우이천

북한산 우이봉 아래에서 발원하여 석계역 부근에서 중랑천에 합류하는 우이천牛耳川은 성북구 장위동과 노원구 월계동을 가르는 자연적 경계를 이룬다. 우이천과 중랑천이 합류하는 지점 일대에 자리한 장위동은



장위동에서 바라본 북한산

충적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서 일찍이 크고 작은 농촌 마을들이 형성되었다. 현재는 그 이름만이 전하는 명덕동, 웃대, 간대, 아랫대, 활량리가 바로 그 마을들이다.

동명의 유래

장위동 동명의 유래를 두고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려온다. 고려시대 명신이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는 마을 뒷산



석계역 부근 우이천과 중랑천 합류 지점

이름이 장위산獐位山이어서 이를 따라 장위동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전해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뒷시기의 일이지만 장위동에는 조선 말 이조판서를 지냈던 윤용구尹用求(1853~1939)가 살기도 했다. 윤용구는 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幹·장위산인獐位山人 등의 아호를 사용했는데 이 중 장위산인은 바로 장위동, 혹은 장위산을 염두해 둔 것이었다.[5]

한성부 동부 장위리계

지명의 유래는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장위동長位洞 혹은 장위리長位里라는 지명은 조선후기의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조 연간에 작성한 지도인 사산금표도四山禁標圖를 보면 장위리는 성저십리까지를 아우르는 도성의 동쪽 경계지역 중 한 곳이었다. 사산금표는 조선 왕실에서 도성 가까운 곳에 백성들이 장지葬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했던 구역이다. 사산금표도에 나온 설명은

아래와 같은데 도성의 동쪽 경계는 대개 우이천과 중랑천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 경성 10리 안에 동쪽은 대보동(大菩洞) · 수유현(水踰峴) · 우이천(牛耳川) · 상하벌리(上下伐里) · 장위(長位) · 송계교(松溪橋)에서 중량포(中梁浦)에 이르기까지 하천으로 한계를 삼으며, 남쪽은 중량포 전관교(箭串橋) · 신촌(新村) · 두모포(豆毛浦)에서 용산(龍山)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강으로 한계를 삼으며, 북쪽은 대보동 · 보현봉(普賢峯) · 저서현(猪嚧峴) · 아미현(峨嵋峴) · 연서구관기(延曙舊館基) · 대조리(大棗里)에서 석관현(石串峴) 서남쪽 물이 합류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산 등으로 한계를 삼으며, 서쪽은 석관현 · 시위동(時威洞) · 사천도관(沙川渡串) · 성산(城山) · 망원정(望遠亭)에서 마포(麻浦)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강으로 한계를 삼아서 그 안에 입장(入葬)하는 자는 원릉(園陵)의 수목을 도벌(盜伐)한 형률과 같이 논죄하며, 강제로 시일을 정하여 파 옮기고 능침의 화소(火巢)나 외안 금표(外案禁標) 안에 투장(偸葬)한 자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6]

이밖에 조선후기 조정에서 활동했던 관료들이 장위리에서 머물렀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다. 숙종 연간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 장위리에 머물고 있는 정승 이이명李頤命(1658~1722)과 김창집金昌集(1648~1722)을 수차례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7] 정조 연간에 정승을 지낸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 또한 장위동 일대에 별업別業을 짓고 머물렀다. 조선왕조의 관찬사료와 그들의 문집들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미루

어본다면 조선후기 장위리에는 이들 말고도 다수의 중앙관료들이 별업을 짓고 머물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관청이나 중앙 관료 외에도 조선후기 장위리에 사는 백성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기록도 있어 주목된다. 아래에 인용한 1725년(영조 1) 9월『승정원일기』를 보면 장위리 백성들이 담당했던 국역國役은 인근 의릉懿陵과 관련된 역으로 중량포, 청량리 사람들과 함께 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방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예조에서 보내온 공문을 받아 보니, 능 밑에 사는 중량포(中浪浦), 장위리(長位里), 청량리(淸凉里) 민호(民戶)의 역을 견감해 주는 일이었는데, 수릉관(守陵官)의 장계로 인하여, 능내(陵內)에서 철거된 경우 중량포의 민호에 대해서는 제반 방역(坊役)을 특별히 견감(蠲減)해 주고, 장위리와 청량리의 민호에 대해서는 3년에 한하여 방역을 견감해 줌으로써 조정에서 넉넉히 구휼해 주는 성대한 뜻을 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빙(藏氷)에 있어서는 중대한 국역(國役)에 관계되므로 으레 강가나 산 밑에 사는 백성이라면 사대부 및 평상시 방역에 응하지 않는 부류를 막론하고 뽑아서 부역을 시킵니다. 그러나 중대한 국역에 비해 민호가 적기 때문에 늘 구차하고 소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세 마을의 백성에게만 장빙의 국역을 면제해 줄 수 없으니, 일체 부역에 나가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8]

영조와 정조 연간 한성부의 인구가 증가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장위리는 한성부에 속한 행정구역의 한 곳으로 편성되었다. 1751년(영조 27)에 작성한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의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을 보면 장위동 지역은 동부東部 장위리계長位里契라는 이름으로 어영청 전영前營 소속의 성외에 포함되었다. 어영청은 훈련도감, 금위영과 함께 도성을 지키던 군영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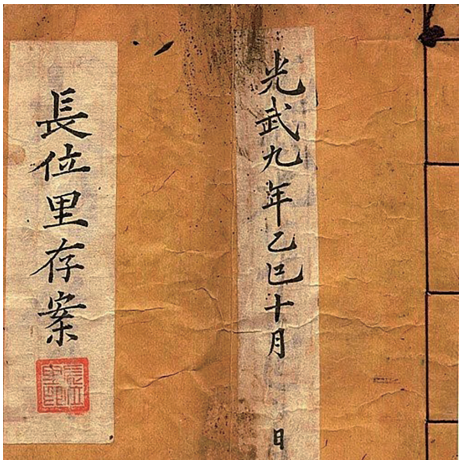
1788년(정조 12) 도성 내외의 방과 계의 명칭을 새롭게 정했는데 이때 장위리계는 역일계, 역이계, 사계, 마장리계, 답십리계, 전농리계, 청량리계, 제기리계, 중랑포계 등과 함께 동부 인창방仁昌坊에 소속되었다.

이후 제작된 여러 고지도에서는 장위리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명덕동, 활량리 같은 장위리에 속한 작은 마을과 우장현, 석관현 같은 고개의 이름도 더러 눈에 띈다. 1867년(고종 4)에 간행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는 5부 47방 340계로 편제되었는데, 이때 장위리계는 동부 인창방이 아닌 동부 숭신방崇信坊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고종대의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당시 장위리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1885년(고종 22) 장위리계에서는 양인良人 이소회李所回라는 사람이 초가 8칸 중 3칸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고, 한도창韓道昌이라는 사람이 초가 10칸 중 5칸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으며, 8년 후인 1893년(고종 30)에는 양인 박인서朴仁瑞가 비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장위리 존안

『장위리 존안長位里 存案』이란 문서는 조선시대 말 장위리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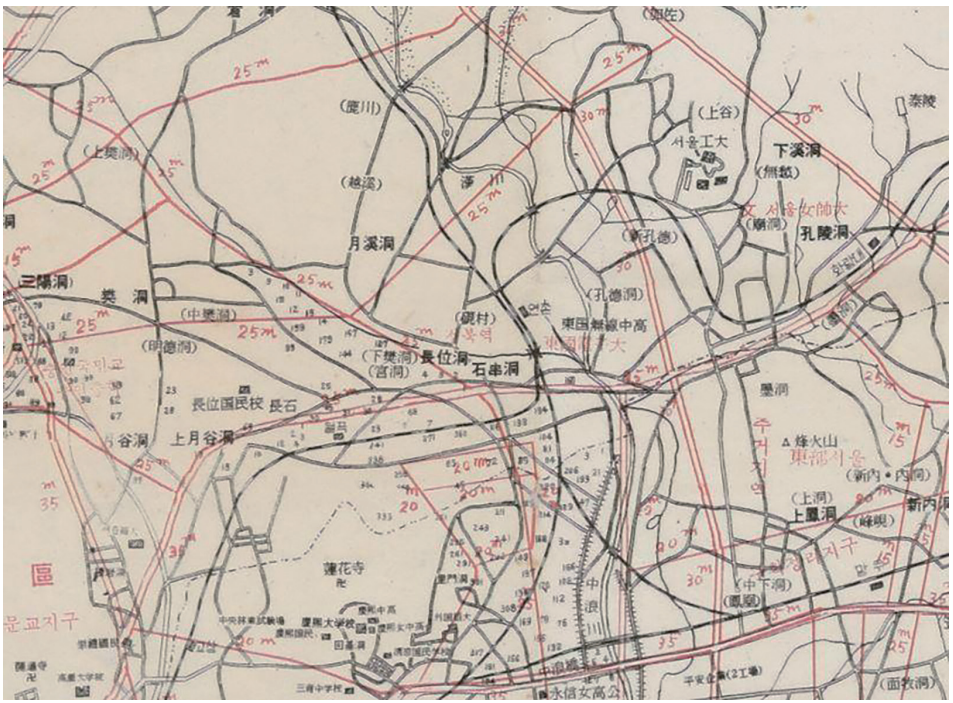
장위리 존안 (사진출처 : 성북구청)

살아가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서이다. 1994년 5월, 서울시는 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토박이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과 기록들을 수집하였는데 이때 수집, 공개된 문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서는 성북구 장위3동에서 5대째 살고 있던 최무영崔茂榮 씨(당시 63세)가 보관해 오던 것으로 조선시대인 1905년 한성부 장위리의 마을대표 선정 규칙을 담은 일종의 마을자치규범서이다. 모두 10조로 되어 있는 문서는 '마을의 대표는 마을사람들이 투표를 실시, 다수표를 얻은 덕망 있는 사람으로 뽑는다.', '대표는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관할하고 그 밑에는 대표를 보좌하는 직책을 둔다.' 는 등의 규칙을 싣고 있다. 이밖에 환경보호 등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각종 규범도 실려 있다. 마을에 오물을 버리지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해야 하며 길이나 다리가 부서진 곳은 보수하여 내방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또한 살인이나 도둑질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주민회의를 열어 마을에서 축출하고 불효나 간음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경고를 주며 효행 등 덕행을 쌓은 자는 표창하는 등 미풍양속 규범도 제시하고 있다.[9]

이 문서는 조선시대 장위리의 마을 전통과 공동생활의 규범과 규모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자료이다. 향후 원본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고양군 숭인면 장위리

장위동은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방이 강행된 후인 1911년에 한성부를 개칭한 경성부 인창면에 편입되었으며, 다시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전국의 부군면을 자의로 통폐합할 때 장위동은 성 외外 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에 편입되었다. 일제강점기 장위리는 비록 경성의 바깥쪽에 있는 농촌 지역이었지만 1930년대 말 변화의 바람을 맞기도 했다. 그것은 1939년에 개통된 경춘철도와 관련이 있다. 경춘철도는 지금의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었던 성동역과 강원도의 춘천역을 잇는 철도



『새서울 도로지번개량지구 약도』(1968) 부분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월곡역과 연촌역을 잇는 경춘선 철도가 표시되어 있다.

였다. 성동과 춘천 사이에는 고상전-월곡-연촌-묵동-태릉-갈매-퇴계원-사릉-금곡리-평내-마석-대성-청평-상천-중색-가평-서천-백양리-강촌-의암-신남-성산 등 22개 역이 있었다. 이 가운데 월곡역과 연촌역을 잇는 철도는 지금의 화랑로와 광운대역 일대를 통과했으므로 항간에서는 철도와 연접한 장위리가 새로운 주택지가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따라서 1939년 경춘철도의 개통은 1950년대 이후 장위동 일대가 주택지로 개발되는 전조였다고 할 수 있다.[10]

성북구 장위동

장위리는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구역이 확장되고 성북구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서울로 편입되었다. 1950년 3월 15일 장위리에서 장위동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1955년 4월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동 설치조례」에 따라 법정동이 설치되었는데, 이때 석관동과 합쳐 장석동이 설치되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따라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통일했다. 이로써 장위동과 석관동이 분리되고, 장위동에는 행정동 장위1동과 장위2동이 설치되었다. 이후 1977년 9월 1일 다시 3동까지 나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언뜻 보기엔 장위1동이 장위2동보다 더 오래된 동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분동될 당시 주민들은 장위1동을 신장위동, 장위2동과 3동을 구장위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장위동의 서쪽 고지대에 위치한 장위1동 지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산비탈 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지만 1960년대 동방생명에서 땅을 매입하여 신흥주택지로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장위2동과 3동은 편평한 저지대로 조선시대부터 마을들이 자리한 곳이었다.[11]

자연 촌락

원래 장위동 지역은 웃말, 아래말, 명덕굴, 간대마을, 활량리 등 5개의 자연 촌락이 합쳐진 것으로, 웃말은 이 지역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윗마을이란 뜻이다. 아랫말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간대마을(간대말)은 이 지역 가운데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활량리는 한량리의 와전된 음으로 조선시대 때 이 마을에 술집이 많아 한량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마을 이름이 1960년대에 발행된 지도에도 나온다.

석관동

천장산

북한산 시단봉(동장대)에서 뻗어나온 산줄기는 수유리고개를 넘어 오패산과 천장산, 배봉산을 이루고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에서 끝을 맺으며 서울의 동쪽 외곽을 야트막한 높이로 에워싸고 있다. 이 산줄기의 동쪽으로 우이천과 중랑천, 서쪽으로 수유천 · 월곡천 · 정릉천이 흐른다.

산줄기의 중간에 해당하는 천장산天藏山은 표고 140m로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회기동, 청량리동에 걸쳐 있으며, 동쪽으로는 의릉을 감싼다. 산이름을 풀이하면 '하늘이 숨겨 놓은 산'이라는 뜻으로 불교사찰의 입지유형 가운데 가장 빼어난 명당터를 이르는 말에서 왔다. 회기동 연화사에 있는 1993년 자음慈音이 지은 「천장산연화사삼성각상량문」에 따르면 "진여불보眞如佛寶의 청정법신淸淨法身이 시방삼세十方三世에 두루 하지만



월곡동에서 바라본 천장산

드러나 보이지 않으므로 절의 뒷산을 천장산이라 부른다."고 했다.[12]

조선시대 천장산은 명당의 이름값을 톡톡히 치렀다. 조선 왕족의 묘지가 천장산 일대에 다수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에는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묘인 회릉懷陵(훗날 회묘懷墓로 격하됨)이 조성되었다. 이는 오늘날 동대문구 회기동의 유래가 되며, 앞서 상량문이 전하는 동대문구 연화사蓮花寺는 예전 회릉의 원찰로 지정되었던 사찰이다. 조선 후기에는 더 많은 능묘가 천장산 일대에 조성되었다. 조선 20대 왕인 경종景宗과 그의 왕비 선의왕후宣懿王后가 잠들어 있는 의릉懿陵을 비롯하여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훗날 익종翼宗으로 추증됨)의 능인 수릉綏陵이 천장산 동쪽 산줄기에 자리했다. 1897년에는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洪陵이 지금의 홍릉수목원 자리에 조성되었으며, 이후 그 남쪽에 영휘원永徽園과 숭인원崇仁園이 들어섰다.

중랑천

중랑천中浪川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 불국산에서 발원하여 의정부시를 지나 남류하고 하류부인 성동구 송정동에서 서류하여 사근동에 이르러 유력의 최대 지류인 청계천과 합류, 한강 본류의 성수대교 직하류 우안측으로 한강 본류에 유입하는 하천이다. 중랑천은 지나는 구간마다 여러 별칭을 지니고 있다. 도봉동 부근에서는 서원천書院川, 상계동 부근에서는 '한강의 새끼 강'이라는 뜻으로 '샛강'이라고 불렀다. 한강의 위쪽에 흐르는 냇물이라는 뜻으로 '한천漢川, 한내'라고도 불렀는데 현재 석관동의 동쪽 중랑천과 접한 도로가 한천로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선시대 중랑천에는 송계교松溪橋라 불리는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는 조선시대 왕들이 능 행차 시 건너던 다리로, 현재 석계역과 태릉입구역 사이에 있는 월릉교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송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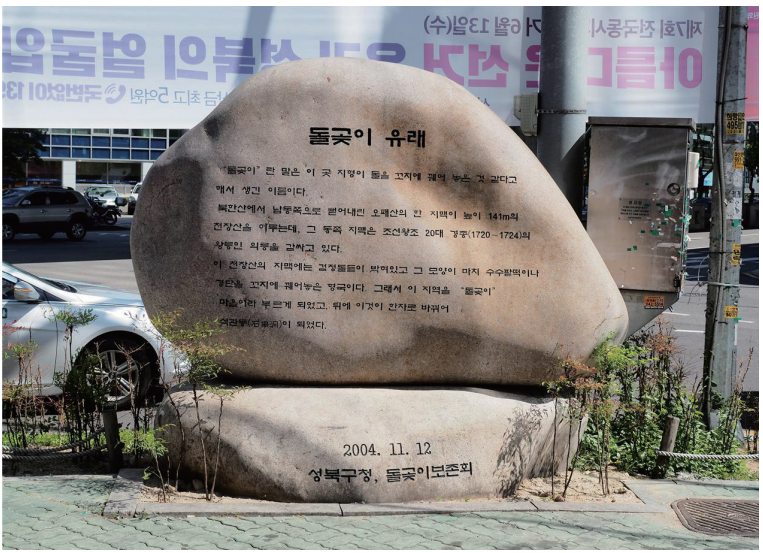


중랑천 (출처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근처의 마을을 송계松溪라고 불렀는데, 대학자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1658~1721)의 별업이 바로 송계에 있었다.

석관동의 유래

석관동이란 지명에 관해서는 천장산의 지맥이 검정 돌을 꼬치에 꿰어놓은 것 같기 때문에 '돌곶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돌곶이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서 '석관石串'이라는 동명이 되었다는 것이다.[13] 한편 푸석골이라는 마을 이름도 전하는데, 천장산의 소나무가 워낙 크고 사철 푸르러 그 산을 의지해 마을이 형성되어 이러한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14]



석관동 유래비

동부 석관리

조선시대 한성부의 성저십리 지역에 속한 석관동 지역은 도성에서 동구릉과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왕이 능행차로 오갈 때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다. 『조선왕조실록』 현종 2년조(1661)에 석관동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이유이다. 기록을 보면 "왕이 건원릉·현릉·목릉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석관에 이르러 금군禁軍의 활 솜씨를 시험하였다."고 나와 있다. 1736년(영조 12)에도 영조가 '석관현石串峴'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고, 1747년(영조 23)에도 지금의 동구릉과 의릉을 배알하고 돌아오다가 석관현에서 열병하였다.[15]

조선 왕실은 석관동 지역을 비롯한 도성의 동쪽 천장산 주변을 '율원栗園(밤나무 동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율원은 조선시대 궁궐의 정원과 화초 등을 관리하고 각 도에서 진상한 과일을 관리하던 관서인 장원서 소속의 밤 생산지이다. 안암동, 제기, 청량, 고암(종암)의 마을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16]

> 경성(京城)의 10리(十里) 주위는 본부(本府)에서 관할하는 금산(禁山)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감역관(監役官)을 설치하고 금송(禁松)을 순검(巡檢)케 하였으니 그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닌데, 근래에 장원서(掌苑署) 및 내국(內局)에서 새로 율원(栗園)을 정하여 안암동(安巖洞)·제기(祭基)·청량(淸涼)·고암(鼓巖)·석관(石串) 등의 마을을 모두 소속시켰습니다.[17]

이후 경종 사후에 석관동 지역에 의릉懿陵이 자리 잡았는데, 의릉이 이곳에 안치된 후 돌곶이에 '능'자를 붙여 '돌곶이능말(마을)'이라 불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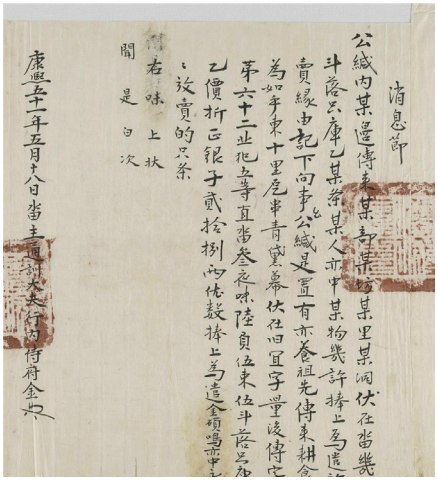
한다.

조선 후기 석관현 일대에는 장위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대 고위 관료들이 전장田莊과 별업을 만들어 놓고 일시적으로 거주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 가문의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1658~1721)이 거주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지중추부사를 지낸 어석윤魚錫胤(1701~1768), 좌의정을 지낸 김약로金若魯(1694~1753) 등이 거처하기도 하였다. 1757년(영조 33) 좌포도청이 대리청정을 하던 세자(즉 사도세자)에게 제출한 보고문에서 '석관리 승방石串里僧房'이라고 하여 석관리의 명칭이 확인된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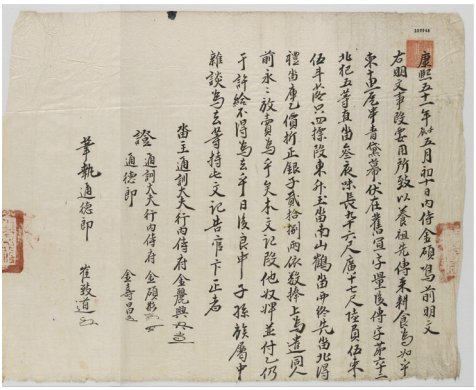
조선시대 고문서들 가운데는 석관동 일대의 전답을 매매하고 이를 증명, 신고하는 문서가 상당수 남아 있다. 대표적인 고문서로는 숙종 연간에 활동했던 내시 김여흥金麗興이 남긴 토지문서가 있다. 이에 따르면 1712년(숙종 38) 내시 김여흥은 내시 김석명金碩鳴에게 양주楊州 돌곶乭串 청대막靑黛幕의 논 6부 5속 5마지기를 정은자正銀子 28냥을 받고 팔았다. 그리고 내시 김여흥은 이 사실을 글로 진술하여 한성부 관아에 보냈다.[19] 이밖에도 석관동 일대의 농토와 관련한 토지매매문서가 다수 남아 있어 이들 문서의 생산 시기, 토지 소유자, 매매의 성격에 관해 면밀히 조사한다면 조선 후기 석관동 지역의 사회경제사와 농토를 일구고 살아가던 농민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양군 석관리

1910년 일제의 강제 합병 이후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면서, 1911년 이 지역은 경성부 인창면 석관리로 편제되었으며, 인창방 석관리라는



1712년 답주 내시 김여흥 함답 (출처 : 고려대학교 해외 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



1712년 내시 김석명 토지매매명문 (출처 : 고려대학교 해외 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

명칭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1914년 3월 13일 경기도령이 발표되면서 도내 각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였다. 이때 경성부와 경기도의 행정 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고양군에 경성부의 6면을 소속시켰다. 고양군에 소속된 지역은 용강면, 연희면, 은평면, 숭인면, 둑도면, 한지면 등인데, 이 중 석관리는 숭인면에 속하였다. 숭인면은 종래의 숭신면과 인창면을 합친 명칭이다.

성북구 석관동

1946년 9월 18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었다(군정법령 제106호). 이어 10월 1일 이제껏 사용되어 온 일본식 명칭을 우리 고유명으로 개칭할 때, 석관리는 고유명 그대로 하였다.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고, 성북구가 신설됨에 따라 고양군에서 성북구에 편입되고, 같은 해 성북구 내 숭인출장소에 소속되어 이곳에서 석관리의 행정을 담당했

다. 1950년대 지도에는 '석곳동'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1950년 3월 15일 석관리는 석관동으로 개칭되었다(서울시조례 제10호). 1955년 4월에는 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서 법정동을 설치하며 장위동과 합쳐 장석동長石洞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제정'으로 장석동에서 분리되어 석관동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75년 10월 1일 행정동 재편성이 있을 때 석관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가 2007년 12월 30일부터 다시 석관동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백외준)

미주

1 우장현은 지금은 그 자취를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장위동, 석관동 지역과 월곡동 지역을 구분하는 고갯길이었다. 기우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기구를 보관하던 건물을 여기 두었기 때문이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2 『일성록』 1785년(정조 9) 2월 10일(경인).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

3 나각순,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7, 298쪽.

4 나각순, 위의 책, 1997, 298쪽.

5 성북문화원 편,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216쪽.

6 『사산금표도(四山禁標圖)』 (규장각 소장 古軸 4709-88). (서울역사편찬원 편, 『서울 洞의 역사 : 성북구』 4, 서울역사편찬원, 2018, 215쪽에서 재인용)

7 서울역사편찬원 편, 위의 책, 2018, 216쪽.

8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601책, 영조 1년 9월 24일(무오). (서울역사편찬원 편, 위의 책, 2018, 216~217쪽에서 재인용)

9 「마을자치규범 담은 조선시대 문서발견-長位里存案」, 『중앙일보』 1994. 5. 7.

10 류성룡, 『장위동 부마의 한옥』,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0, 25쪽.

11 류성룡, 위의 책, 2010, 25쪽.

12 나각순, 위의 책, 1997, 290쪽.

13 한국에는 '곶' 또는 '곶이'로 끝나는 지명이 많은데 이러한 지명이 붙은 곳은 대개 육지가 바다 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지형을 가졌다. 황해도의 장산곶, 경북 포항의 호미곶이 대표적이며 서울 성동구에는 '살곶이'가 유명하다. 그런데 왜 살곶이나 돌곶이는 바다를 면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지명이 붙었을까? 중랑천을 바다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돌곶이는 천장산의 지맥이, 살곶이는 배봉산에서 사근동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중랑천을 향해 뾰족하게 내밀고 있는 지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옛날 중랑천은 나룻배가 오갈 만큼 넓은 하상을 가졌던 만큼 옛 사람들은 중랑천을 바다처럼 넓은 수면으로 인식하고 그 유역의 마을에다 기꺼이 '~곶이'이라는 지명을 붙이지 않았을까. 현재 돌곶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하여 중랑천과 관계된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한 번 검토, 조사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14 서울역사편찬원 편, 위의 책, 2018, 2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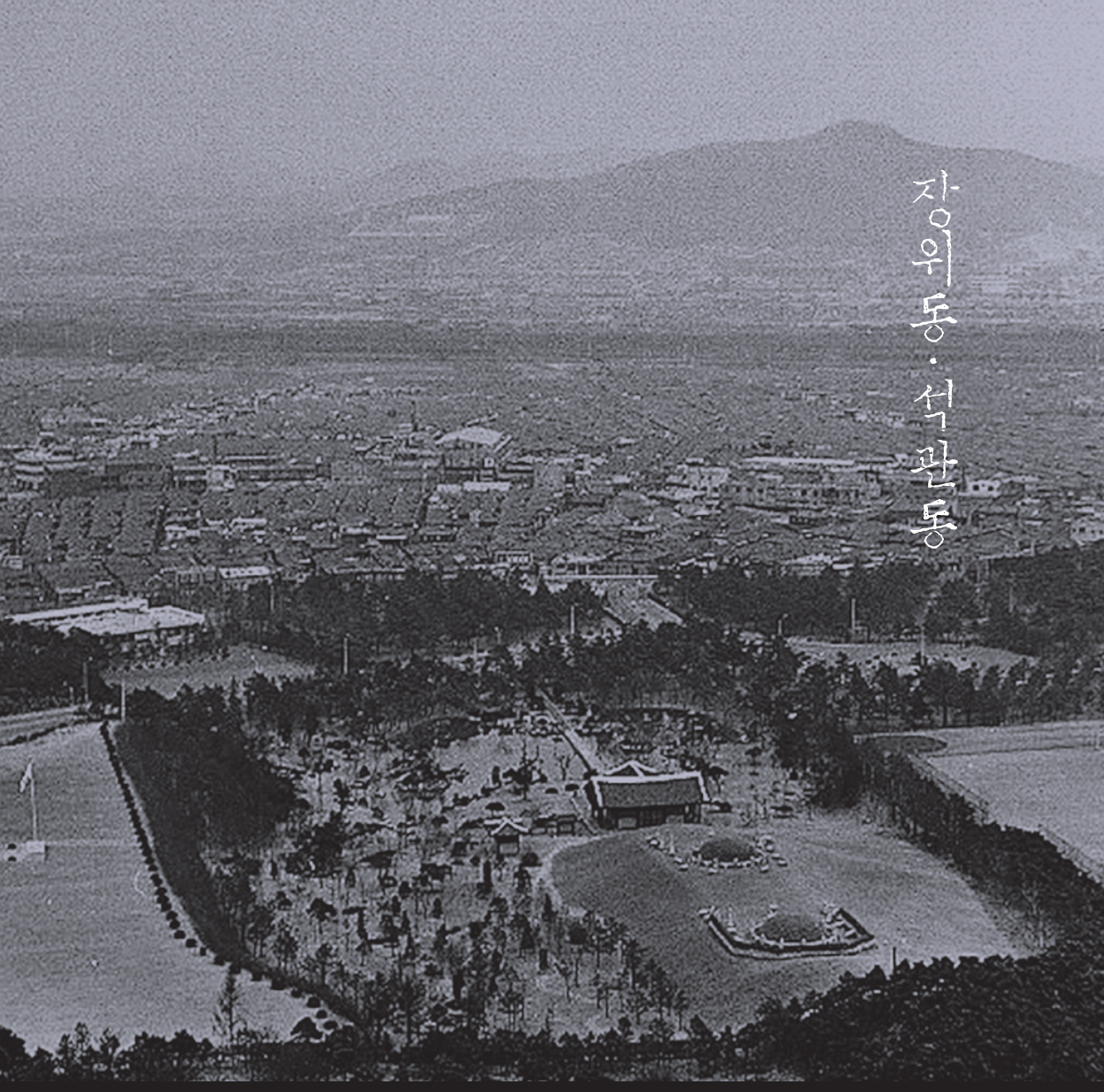
15 석관현은 지금의 월곡동으로 넘어가는 지점, 즉 지금의 월곡중학교 앞 마른대미 고개 표석이 있는 곳 부근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옛 지형이 사라진 만큼 옛 문헌과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정확한 지점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16 서울역사편찬원 편, 위의 책, 2018, 267쪽.

17 『경종실록(景宗實錄)』 권6, 경종 2년 3월 26일(신해).

18 서울역사편찬원 편, 앞의 책, 2018, 268~269쪽.

19 「1712년 답주(畓主) 내시(內侍) 김여흥(金麗興) 함답(緘答)」(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명경일,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문서 해제).



2장 | 석관동 의릉 이야기

석관동 의릉 이야기

2009년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 제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이유에 대하여는 조선왕릉은 유교적·풍수적 전통을



의릉 전경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 양식으로 세계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한 역사적 전통이 이어지고, 조선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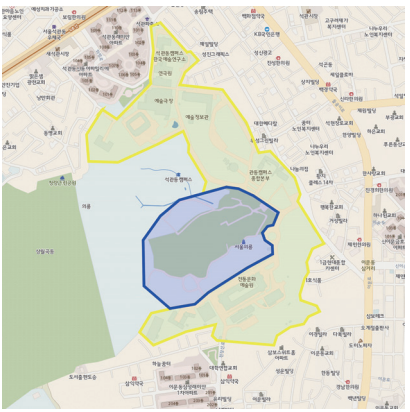
특히 유네스코는 조선왕릉에 대하여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보통 남쪽에 물이 있고 뒤로는 언덕에 의해 보호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이며, 멀리 산들로 둘러싸인 이상적인 자리를 선택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1] 왕릉의 위치를 결정한 조선의 유교·풍수 전통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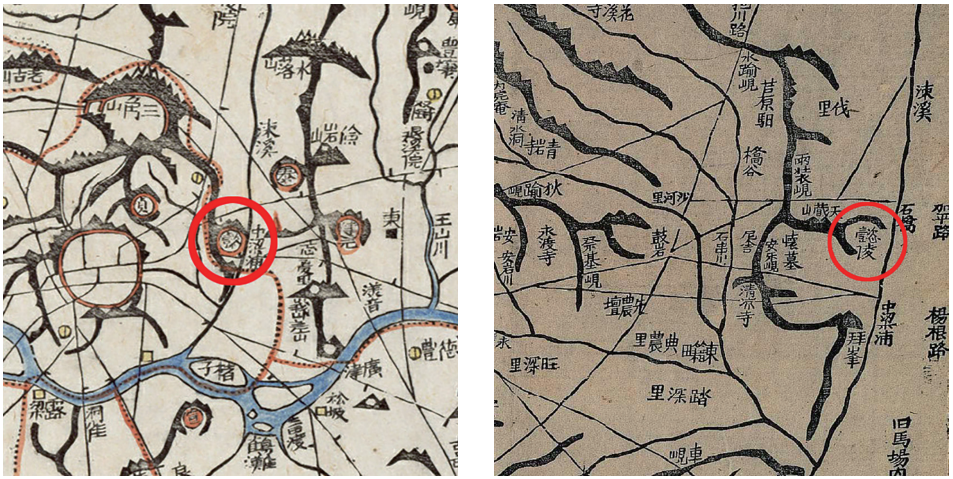
이 설명만 보면 조선왕릉은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만 같다. 실상은 다르다. 시대가 바뀌고 도시의 개발이 거듭되면서 왕릉은 우리의 삶과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 왕릉과 점점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조선의 제20대 임금 경종景宗(1688~1724)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宣懿王后(1705~1730)의 능인 의릉懿陵(사적 제204호)도 마찬가지이다.

의릉은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해 있다. 그리 높지 않은 아담한 천장산 자락에 자리잡았다. 독



『선원보감(璿源寶鑑)』에 수록된 의릉 능역도


현재 의릉(파란색 테두리)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노란색 테두리)에 둘러싸인 형태이다. (지도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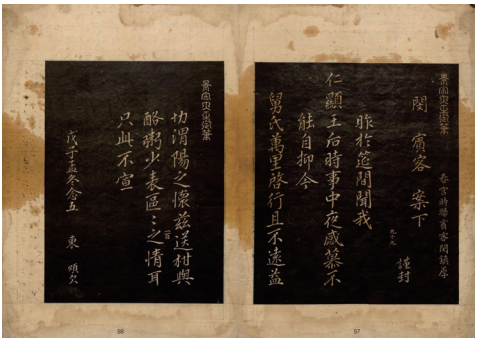
옛 지도에 그려진 의릉. (빨간색 원) 좌측의 지도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보물 제850-3호), 우측의 지도는 『대동여지도 도성도(都城圖, 1861)』(보물 제850-2호)이다. (소장 : (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우)서울역사박물관)

특한 것은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 둘러싸인 형태라는 점이다. 대학 캠퍼스 속 조선왕릉. 이처럼 이질적인 두 공간이 함께 있게 된 데에는 복잡한 현대사 속 이야기가 얽혀있다. 의릉은 이곳의 주인공인 경종의 삶만큼이나 다사다난했다.

경종 이야기

조선의 제20대 임금 경종은 역대 왕들 가운데 존재감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 왕들 중 가장 재위기간이 긴 두 명의 임금이 앞뒤로 자리잡고 있으며[2], 반대로 경종은 뒤에서 세는 것이 빠를 정도로 재위기간이 짧았다. 재위기간이 짧은 만큼 임금으로서의 업적도 거의 없다. 임

금으로 지낸 4년마저도 세자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각종 질환에 시달려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성어필(列聖御筆, 1725)』에 수록된 경종 어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종의 주변 인물들 또한 경종의 존재감을 흐릿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많은 업적을 남긴 선대 왕 숙종이나 후대 왕 영조뿐만 아니라, 세자에 책봉되고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숱한 당쟁과 이를 둘러싼 많은 신하들 그리고 어머니 희빈 장씨까지. 이렇게 좋든 나쁘든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는 인물들 가운데 경종이 눈에 띄기란 어려운 일이다.

경종이 임금으로 지낸 4년도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강력한 왕권과 뜻을 함께하는 각료가 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으나, 경종은 즉위 이전이나 이후에나 당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 경종이 무엇인가 하려는 뜻을 품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신하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고질병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건강 상태도 아니었다.

경종은 조선 왕가의 왕세자들 가운데 세자로서 지낸 기간이 가장 길었다. 1688년(숙종 12) 숙종과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경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자로 책봉되었고, 1689년(숙종 13) 정식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이후 1720년(숙종 46) 숙종이 사망하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30여 년을 세자로 지내야 했다. 그렇게 긴 세자 생활을 마치고 33세의

나이에 즉위하였으나 4년 뒤,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항간에는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복동생 연잉군延礽君(후일 제21대 왕 영조)의 손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이 때문에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소문을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실록 등의 사료를 살펴보면 경종의 죽음은 영조에 의한 독살설과 같은 소위 '음모론'처럼 건강하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종비 인현왕후의 오빠이자 영조대 좌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던 민진원은 경종의 세자 시절 병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 세자는 점차 병이 빌미가 되어 때때로 벽을 향하고 앉아서 조그마한 소리로 중얼거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였다. 혹은 한밤중에 계단과 뜰 사이를 방황하거나 앉아 있었고, 먹고 자는 행동이 매우 이상함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정신도 안정되지 못하였고 지각도 불분명하였다.[3]

실록에도 경종의 질병에 관한 기사는 다수 발견된다. 다음은 경종이 즉위한 다음 해인 1721년(경종 1)의 기사다.

> 이때 임금이 항상 병을 앓고 있어서 강연(講筵)을 오랫동안 열지 않았고 신료(臣僚)를 대하는 일이 드물었다. 간혹 신료를 만나더라도 지나치게 말이 없어서 왕의 대답을 듣는 일이 매우 드물고 사안을 결정할 때에도 정사(政事)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없었으므로,

조정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일이 느슨하였다.[4]

이처럼 실록에 따르면 경종은 항상 병을 앓고 있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고, 이를 경종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제인 연잉군(후일 영조)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 등극(登極)하고 나서부터는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요즘은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 또한 어려워서 정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다. 이제 세제(世弟)는 젊고 영명(英明)하므로, 만약 청정(聽政)하게 하면 나라 일을 의탁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편히 하여 요양할 수가 있을 것이니, 대소(大小)의 국사(國事)를 모두 세제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라."[5]

"병근(病根)이 내장(內臟)을 손상시키고 심화(心火)가 점점 불어나 화열(火熱)이 오르내리는 즈음에 정신이 아득하고 어두워 깨닫고 살피지 못하여 권태(倦怠)가 이와 같으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세제(世弟)로 하여금 근심을 나누게 하는 것 외에 다시 다른 도리가 없다."[6]

이러한 명은 당시 신료들의 만류로 인하여 회수되었으나, 경종 스스로도 정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병환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의 질병에 관한 기록은 이후에도 실록을 통해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1722년(경종 2) 3월 17일에는 도승지都承旨 김시환金始煥의 공사公事를 읽은 후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고 심기가 폭발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7], 1723년(경종 3) 3월부터는 의원으로 하여금 이틀에 한 번씩 입진하도록 하였다.[8] 같은해 7월 8일에는 우의정右議政과 약방제조藥房提調에게 담화痰火 증세에 대한 진언을 받기도 하였다.[9] 심지어 다음 기록과 같은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 이날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대하여 몸을 조금 돌려 오줌을 누므로 여러 신하들이 잠시 물러가려 하자 임금이 물러가지 말라고 명하였다.[10]



『경종실록(景宗實錄)』(좌)과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우)의 표지사진.
1732년(영조 8)에 실록이 완성되었으나, 소론 세력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여 노론에 대해 나쁘게 기록되어 있어 이후 노론 세력이 정권을 잡자 1781년(정조 5) 수정실록을 새로이 편찬하였다. 이에 노론에게 불리한 기사는 대부분 삭제 · 수정되었고 소론에게 불리한 기사가 추가 기록되었다. (사진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신하들과 함께 국정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소변을 참지 못한 웃지 못할 사건까지 일어난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11]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은 경종이 세자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질환 중 하나였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되어 이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12] 그러나 신하들을 대하는 자리에서조차 소변을 참지 못한 것을 보면 끝내 완치되지는 않은 듯하다. 이처럼 크고 작은 질환에 거듭 시달리던 경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1724년(경종 4) 8월 2일의 일이다.

임금의 병환이 계속 여러 날 동안 낫지 않아 수라(水刺) 올리는 것마저 싫어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또 한열(寒熱)의 징후가 있어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약(藥)을 의논하여 시진탕(柴陳湯)을 지어 올렸다. 임금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병을 이루었고, 해를 지낼수록 깊은 고질이 되었으며,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때로는 혼미(昏迷)한 증상도 있었다.[13]

이 기사의 내용을 시작으로 경종의 병세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계속해서 질병에 시달리고, 이를 다스리려는 어의御醫의 노력이 실록의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시기의 경종실록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종의 질병사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밤에 임금이 한열(寒熱)이 갑자기 심하여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 이광좌(李光佐) 등이 대조전(大造殿) 침실에 입진(入診)하고, 이튿날 아침에 의논하여 승양산화탕(升陽散火湯)을 지어 올렸다.[14]

임금이 한열(寒熱)이 그치지 않아 …, 세 제조(提調)가 처음으로 본원에서 직숙(直宿)하였다.[15]

임금이 한열(寒熱)로 인해 수라(水刺) 올리는 것을 싫어함이 더욱 심하므로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우선 복약(服藥)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16]

임금이 병환으로 침선(寢膳)이 날로 줄어들고 소변이 점점 단축되므로 약방(藥房)에서 약(藥)의 조제를 의논하고 시령탕(柴苓湯)을 올렸다.[17]

밤에 임금이 가슴과 배가 조이듯이 아파서 의관(醫官)을 불러 입진(入診)하도록 하고, 약방 제조(藥房提調)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 문안(問安)을 하였다.[18]

임금의 복통(腹痛)과 설사(泄瀉)가 더욱 심하여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황금탕(黃芩湯)을 지어 올렸다.[19]

임금의 설사의 징후가 그치지 않아 혼미하고 피곤함이 특별히 심하니,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탕약(湯藥)을 정지하고 잇따라 인삼속미음(人蔘粟米飮)을 올렸다.[20]

임금의 환후(患候)가 피곤하고 위태함이 더욱 심하고 맥(脈)이 낮아져서 힘이 없었다. 4경(更)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삼다(參茶)를 올리고 물러나와서는 주원(厨院)으로 옮겨서 입직(入直)하기를 청하였으며, 사각(巳刻)에 다시 입진(入診)하였다.[21]

이후 경종은 한열과 복통, 설사 등에 시달린 끝에 8월 25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22] 그의 나이 37세의 일이다. 그런데 경종은 사망 후에도 편치만은 않았다. 그의 병과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소문과 음모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어머니 희빈 장씨에 의한 거세설과

앞서 말했던 연잉군, 즉 영조에 의한 독살설이다.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는 현대 매체에서 조선 최고의 '악녀'로 재생산되어 왔다. 여기에 빼어난 미모를 가진 인물이라는 기록은,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희빈 장씨 역할에 배우의 외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끔 하였다. 그녀의 실제 외모를 알 수는 없겠으나, 신하들이 그녀의 미모를 조심하라는 상소를 거듭 올리고[23] 실록에 별도로 언급될 정도의[24]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희빈 장씨의 본명은 장옥정張玉貞이다. 역관譯官 장형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장형이 사망하여 당숙 장현의 슬하에서 자랐다. 장현도 장형과 마찬가지로 역관이었으며, 뛰어난 수완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당대 최고의 부자라 불릴 정도였다. 희빈 장씨가 어떻게 궁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연유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숙 장현의 재력, 그리고 그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남인들의 추천으로 궁녀가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희빈 장씨의 무덤 대빈묘(大嬪墓),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西五陵) 내에 위치해있다.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에 있던 것을 1969년 현재 위치로 옮겼다.

궁에 들어간 장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의 눈에 들게 되었고 1688년(숙종 12), 후일 경종이 되는 아들을 낳았다. 숙종에게는 첫 아들이었기에 후궁의 소생이었음에도 총애를 받았다. 이에 어린 나이의 왕비인 인현왕후가

있었음에도 왕의 정식 후계자인 세자로 책봉되었고, 장씨는 희빈으로 그리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궁녀에서 왕비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인현왕후가 폐출되고 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며 서인에서 남인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후 숙종은 남인의 권세가 비대해졌다고 판단하여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다시 왕비에서 빈으로 강등시켰다. 숙종은 재위기간 동안 세 번의 큰 환국換局을 단행할 정도로 절대적인 왕권의 강화를 지향하였던 인물이다. 이를 통해 남인과 서인의 정권교체, 인현왕후의 폐비와 복권이 거듭 이루어졌다. 희빈 장씨가 왕비가 되었다가 빈의 위치로 강등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1701년(숙종 27) 사사賜死된 것 또한 숙종의 절대왕권 확립이라는 목표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 즉 그녀가 가진 희대의 '악녀' 이미지는 왕권을 강화하려던 숙종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녀는 정쟁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희빈 장씨의 '악녀' 이미지나 인현왕후에 대한 투기가 심하여 저주하였다는 이야기, 숙종의 총애를 받은 숙빈 최씨를 질투하여 잔혹하게 매질했다는 이야기는 이후 정권을 잡은 노론 세력이 권력 다툼의 과정에서 만들어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희빈 장씨가 경종이 어렸을 때 이씨 왕가를 저주하며 그의 성기를 잡아당겨 성불구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세설 또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노론 세력이 그녀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경종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종은 두 명의 부인에게서 전혀 후사를 갖지 못하였고 희빈 장씨의 죽음 이후 점차 건강이 안 좋아졌기에 희빈 장씨에 의한 거세설이 그럴 듯

하게 퍼졌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세자의 자리에 오르며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이후 14세의 나이에 정쟁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목격한 데다가, 노론의 정치적 압박까지 있었으니 건강을 온전히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터이다. 그 와중에 아버지인 숙종마저 경종을 향했던 총애를 다른 빈들의 소생인 연잉군, 연령군 등에게 향했다. 심지어 숙종은 경종을 나무랄 때마다 "누구의 자식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죽은 어머니인 희빈 장씨를 거론하였다고 전한다.[25] 경종이 느꼈을 정신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종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그런데 사망 후 왕세제 연잉군, 즉 영조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며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은 영조의 재위기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아래는 경종이 사망하기 며칠 전의 실록 기사이다.

> 약방에서 입진(入診)하고 여러 의원들이 임금에게 어제 게장을 진어하고 이어서 생감을 진어한 것은 의가(醫家)에서 매우 꺼려하는 것이라 하여, 두시탕(豆豉湯) 및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진어하도록 청하였다.[26]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경종의 수라상에 게장과 생감이 함께 올랐는데, 경종은 이를 먹은 뒤 증세가 악화되었다. 의원들이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는 것은 의가에서 매우 꺼리는 일[27]이라고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수라에 올린 것을 두고 연잉군의 소행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겼다. 경종 사망 직

전의 기록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실록에 의하면 왕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연잉군이 급히 인삼人蔘과 부자附子를 쓰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의관은 반대하였으나, 연잉군은 "내가 의약醫藥의 이치를 알지 못하나, 그래도 인삼과 부자가 양기陽氣를 능히 회복시키는 것만은 안다."라고 하여 결국 이를 올렸고[28], 경종은 기운을 차리는 듯하다가 결국 다음 날 숨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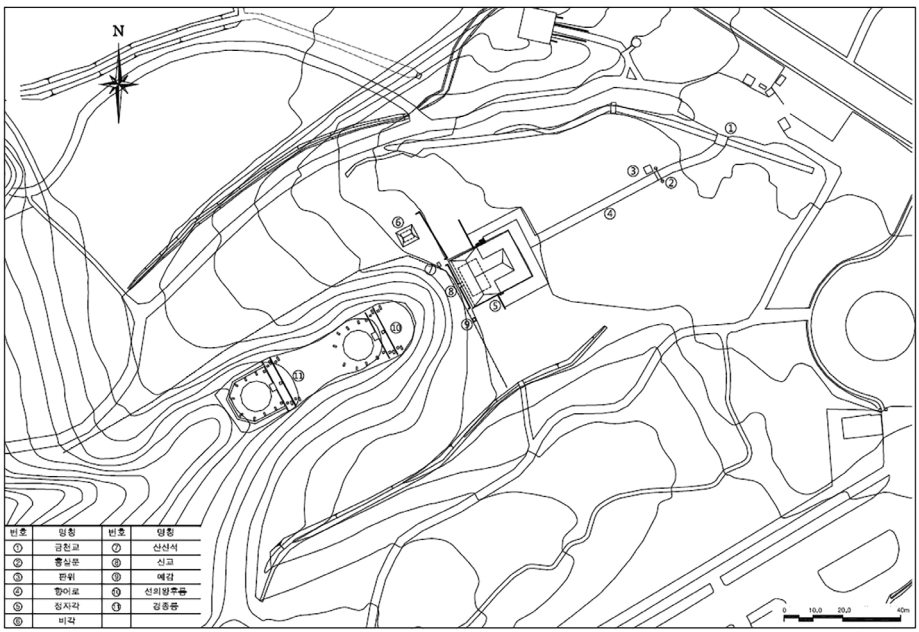
앞서 보았듯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매우 병약했다. 크고 작은 병환에 끊임없이 시달렸으며 정쟁의 한복판에서 얻은 정신적 압박감도 상당했다. 특히 사망 직전에는 이미 병환이 심각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어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게장과 생감을 먹은 것이나, 인삼과 부자를 올린 것으로 인해 경종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영조의 경종 독살설은 허구라는 것이다. 다만 의혹은 끊임없이 영조를 따라다녔고 반대파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를 의식하였는지 영조는 경종이 승하한 이후에도 경종과 더불어 선의왕후를 부모와 같다고 하며 극진히 모셨다. 선의왕후에게는 존호를 올리고 왕대비王大妃로 올리는 등 존숭에 힘썼다. 1730년(영조 6) 선의왕후가 승하하자 선의왕후와는 평범한 수숙 사이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직접 그녀의 행록을 저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영조는 왕위계승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정하였다.

의릉의 조성 그리고 수난

1724년(경종 4) 8월 25일 경종이 승하한 후 같은 해 12월 16일 양주 중량포의 천장산天藏山(현 성북구 석관동 소재) 기슭 언덕에 예장하고 묘호를 경종, 능의 이름은 의릉이라 하였다. 1730년(영조 6) 6월 29일 경종비 선의왕후가 승하하자 10월 19일 경종릉 아래 예장하였다. 왕과 왕비의 봉분을 언덕에 앞뒤로 배치하여 동원상하이봉으로 구성하였다. 곡장曲墻을 두른 것이 경종의 것이고 없는 것이 선의왕후의 것이다.

능지의 선정에 대해서는 9월 초부터 논의하였다. 총호사 이광좌李光



번호	명칭	번호	명칭
①	금천교	⑦	산신석
②	홍살문	⑧	신고
③	판위	⑨	예감
④	향어로	⑩	선의왕후릉
⑤	정자각	⑪	경종릉
⑥	비각		

의릉 배치도 (그림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VI)

佐가 후보지로 옛 영릉寧陵 터, 중량포, 용인, 교하, 왕십리의 다섯 곳을 선정하였다. 이광좌 등을 비롯한 몇몇이 이중 옛 영릉 터가 좋다고 하였으나 김일경金一鏡 등이 천릉하였던 장소에 다시 능을 쓴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여 논의 끝에 중량포로 결정하였다.[29] 이후의 조성 과정은 아래와 같다.

1724년 9월 24일	산릉공사 시작
1724년 9월 24일	묘시(卯時)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 풀베기와 땅파기 시작(斬破土)
1724년 11월 초10일	진시(辰時)에 관을 땅에 묻기 위해 '井'자 모양에 맞추어 구덩이를 팜(開金井)
1724년 11월 13일	묘시에 관을 담는 외재궁(外梓宮)을 내림
1724년 12월 16일	발인 후 임금의 관을 구덩이(玄宮)에 내린 뒤 묻고 장사지냄[30]

흔히 의릉의 특징으로 잘 알려진 것은 능의 상하이봉 배치이다. 쌍릉은 좌우로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풍수설에 따라 산릉처로 부적합한 좌우 배치보다 혈穴이 명확한 상하 배치가 더 좋다는 풍수설에 따라 위아래로 배치하였다. 이는 효종孝宗(1619~1659)의 영릉寧陵과 같은 방식이다.

의릉의 또다른 특징은 기존 왕릉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도상이 적용된 문무석인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의릉에 배치된 석물의 체제는 명릉明陵의 예를 따랐다. 석물의 종류나 규모, 크기, 위치 등 대부분 명릉과 흡사하게 조성되었다.[31] 그러나 석물의 조성은 1722년(경종 3)에 추배된



의릉은 두 개의 능을 일렬로 배치하는 상하이봉으로 조성되었다. (사진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VI)



경종의 능 정면. 선의왕후 능에는 없는 곡장이 배치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의왕후端懿王后(1686~1718)의 혜릉惠陵과 많이 닮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무석인의 도상은 혜릉과 의릉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양식이다.

두 능의 무석인을 비교해보면 얼굴 표정과 같은 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투구의 모양이나 상모가 달린 점, 허리 부근에 꼬리가 돌돌 말린 표범 가죽옷을 입고 있는 등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혜릉의 석수 조성에 참여했던 석수들이 다수 의릉의 석수 조성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32] 더불어 혜릉의 석물 추배와 의릉의 조성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의릉의 건축물들은 명릉의 예를 따랐다. 건축물이 배치되었던 곳이나 그 규모는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 정자각은 능아래 72보 지점에 있으며, 정자각 내부의 포진은 건원릉과 같다. 수라청은 3칸으로 정자각 우측 13보 지점에 있으며, 수직방 3칸은 정자각 좌측 12보 지점에 있다. 망료위는 정자각 남쪽 4보 되는 곳에 있다. 표석은 하나로 정자각 서북쪽 15보 되는 곳에 있는데, 길이 8자, 두께




혜릉 무석인




의릉 무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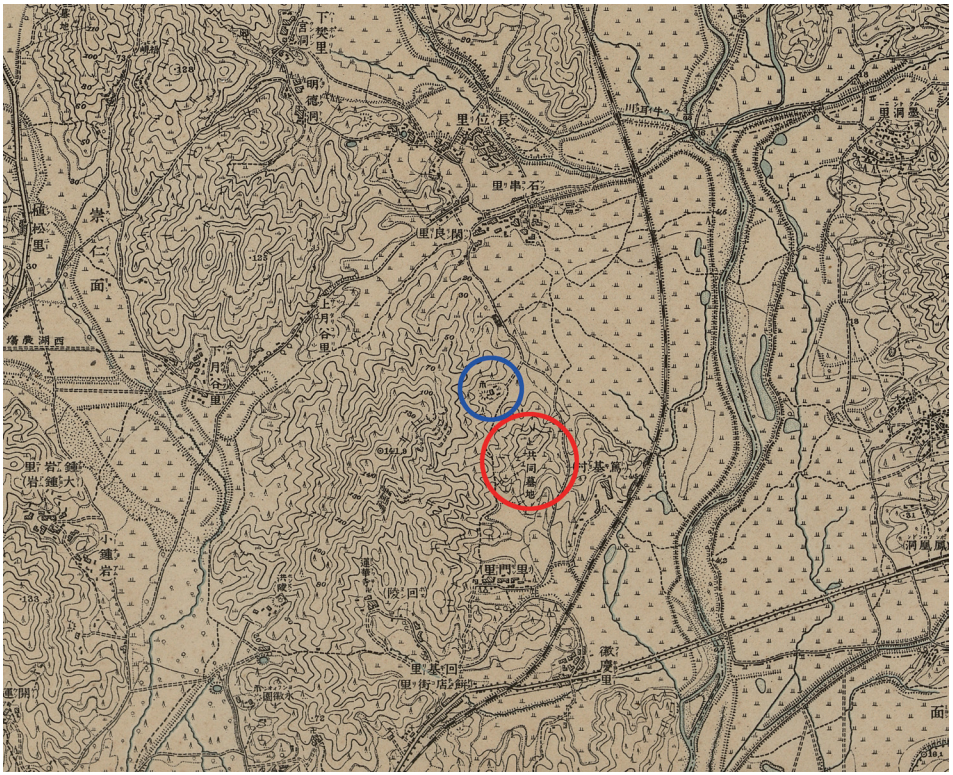
혜릉과 의릉의 무석인 비교 (사진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VI)

> 3치, 두께 1자 5치로 보호각이 있다. 전서로 '朝鮮國景宗大王懿陵宣懿王后祔'라는 음기가 있다. 홍살문은 정자각 남쪽 51보 되는 곳에 있다. … 전사청은 8칸으로 홍살문 북쪽 264보 되는 곳에 있으며, 제기고 3칸은 전사청 옆에, 안향청 6칸과 집사청 5칸은 홍살문 북쪽 273보 지점에 있다. 재실 13칸은 전사청에 접해 있으며, 연지는 재실 남쪽 100보 지점에 있는데 길이는 140자, 너비는 89자다.[33]

이 기록에 따르면 의릉의 건축물로는 정자각, 수라청 3칸, 수직방 3칸, 비각, 홍살문, 전사청, 제기고, 안향청, 재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정자각과 비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홍살문은 최근 복원되었다. 그러나 수라청, 수직방, 전사청, 제기고, 안향청, 재실 등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기록을 통해 그 위치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의릉은 조선왕조가 유지될 때까지는 여느 왕릉처럼 왕실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다. 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곡장 일부가 무너지거나 석물의 회칠이 벗겨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왕실에 의해 금세 수리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현대사를 거치며 의릉은 능역이 철저히 파괴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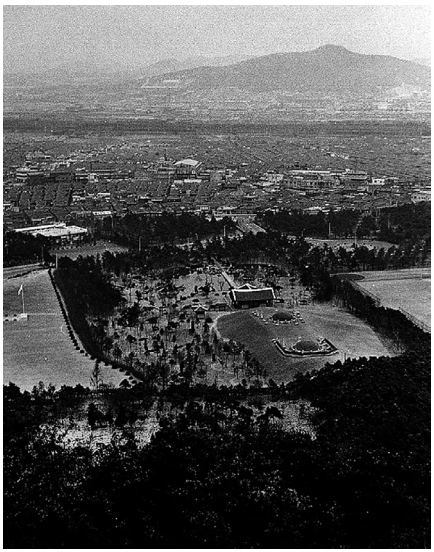
의릉의 능역은 조성 당시 약 30만평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찍이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훼손으로 1960년도 능역은 약 18만 평으로 축소되었다.[34] 이렇게 규모의 축소를 겪은 의릉은 일제강점기에는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고, 1962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무상임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수난을 겪게 된다.



1915년경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서 의릉(파란색 원) 아래 공동묘지(빨간색 원)가 조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경성 및 인천지방-우이동」지도)

1962년 1월 13일, 당시 남산 부근에 있던 중앙정보부는 이전을 목적으로 의릉의 능역 131,401평을 무상임대하였다. 이후 능 우측에 본관건물을 도입하여 능의 좌청룡을 훼손하였고, 능의 좌측에도 건물을 신축하며 우백호마저 훼손하였다. 심지어 1972년 무렵에는 정자각과 홍살문 사이의 땅을 파서 인공 연못을 조성하여 능제를 훼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천교가 파괴되었다. 인공연못이 조성되며 의릉은 왕릉으로서의 위엄있는 상징성이 배제되고 정원庭園의 기능이 부각되었다. 능역 곳곳에 각종 꽃나무와 수

목을 심어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정자각의 양쪽에는 큰 청동 향로를 놓았으며 연못 부근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탑 등을 놓았다.[35]



중앙정보부가 자리잡은 뒤인 1974년 11월 촬영된 의릉과 석관동 일대 (사진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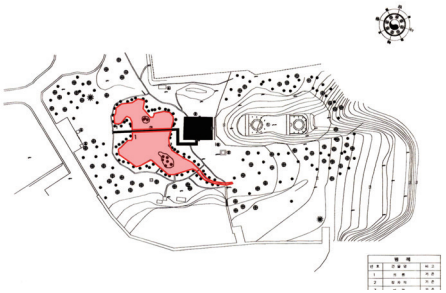
> 재야원로들과 사회각계 및 여야 지도급 인사들 1백 5명, 그리고 정부의 각료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17일 자리를 함께하고 안보 문제와 국민의 자세 등 시국 문제에 관해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었다. … 박정희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정보부 구내의 의릉 앞 잔디밭에 준비된 노천식당에서 오찬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리셉션이 베풀어지고 있던 낮 12시 30분 김정렴 비서실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대동하고 도착, 박수를 받으며 입장해서 오후 2시까지 90분 동안 자리를 같이했다.
>
> —'105명 원로들과 「안보대화」 90분', 「동아일보」, 1975년 5월 19일.

위의 기사처럼 1975년에는 조성된 '정원'에서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만찬이 열리기도 하였다. 본 행사는 중앙정보부가 주최한 행사로, 그들이 의릉 능역을 훼손한 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건축물 또한 대부분 파괴되었다. 재실은 1969년 철거되어 1973년 영친왕 봉분이 있는 영원英園으로 이전하였다. 재실이 있던 자리는 사유지가 되어 국악예술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부지로 활용되다가 1993년 ㈜한화제약의 사옥이 들어섰다. 금천교는 앞서 서술한 인공연못 조성



1996년 촬영한 인공연못 (사진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VI)



2001년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의릉 배치도. 인공연못(빨간색 테두리)이 조성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출처 : 문화재청)



1973년 영원(英園)으로 이건된 의릉 재실 (사진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VI)

과정에서 파괴되었고 수라청, 수직방 등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비슷한 때에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파괴된 의릉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은 중앙정보부가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꾼 후 1995년에 지금의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9월 25일 청사 이전이 일부 완료되고, 토지가 일부 국가로 반환되었다. 국가는 이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995년 10월에는 KBS 음악 프로그램「열린음악회」의 녹화가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리기도 했다.[36]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은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1차로 토지 환수를 한 후 곧바로 의릉을 복원하여 일반에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1996년 2월 한예종이 기존의 건물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능침 주변만 우선 정비하여 공개하였다. 1997년 2차 토지 환수 이후에는 해당 건물 및 부지가 한예

종에 관리 위임되었다. 토지의 환수는 이후 세 차례 더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문화재위원 자문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환수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전 능역을 복원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으나, 한예종이 건물 사용허가를 받고 기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건물 철거는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복원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인공연못을 매립하고 홍살문을 원래의 자리로 옮겼다. 어도와 금천교도 복원하였으며 능침 주변의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고유수종을 식재하였다. 다만 (구)중앙정보부 강당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역사적 장소라는 점이 인정되어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등록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었다.

2006년 5차 토지 환수가 시행된 이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예종의 관리위임을 종료시키고 있으며, 2010~2012년에는 추가적으로 의릉 구관 철거지역 능제복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능역 복원 및 보수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능역에 한예종이 자리하고 있어 완전한 복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예종은 본디 새로운 캠퍼스 부지를 구해 이전해야 했으나 재정 문제로 인하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관리위임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해주었다. 의릉이 고된 수난을 마치고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란 무척 요원해 보인다.



200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구관 본관동 철거 현장 (사진출처 : 문화재청)

의릉 조성 연혁[37]

시 기	내 용	비 고
1724.8.25.(경종 4)	경종 승하	
1724.12.16.(영조 즉위)	양주 중량포 천장산에 의릉 조영	
1730.6.30.(영조 6)	선의왕후 어씨 승하	
1730.10.19.(영조 6)	왕릉 아래 선의왕후릉 조영	
1962.1.13.	의릉,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에 무상임대	총 131,401평 규모
1970.5.26.	사적 제204호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1972.	정자각과 홍살문 사이 인공연못 조성	
1973.	의릉 재실 영원(英園)으로 이건	
1995.9.25.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내곡동으로 이전	일부 남음
1995.11.2.	토지 1차 환수	
1996.2.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1997.3.	토지 2차 환수	한예종에 관리위임
1998.12.	토지 3차 환수	
2002.12.	토지 4차 환수	
2003. ~ 2005.	능역 복원공사(1차) 시행 및 완료	
2006.1.	토지 5차 환수	
2008.7.~2012.11.	능제복원 사업 진행 - 한예종 구관 건물 철거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및 사격장 철거 - 지형 복원 및 역사경관림 조성	
2013.	(구)중앙정보부 강당 및 회의실 리모델링	



1990년대 촬영한 (구)중앙정보부 청사와 강당. 좌측에는 운동장이 조성되어있다.
(사진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 VI)



2000년대 초반 의릉 능역 내 인공연못의 사진
(사진출처 : 문화재청)

능행_의릉으로 가는 길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삼은 국가였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유교를 기반으로 정해지고 행해졌다. 그중에서도 '예禮'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예'는 상호간의 지켜야 할 법도이자 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질서였다. 조선의 국왕에게는 '예'를 솔선하여 보여줄 의무가 있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오직 국왕만이 주재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왕실의 오례五禮[38]였다.

국왕이 주재하던 오례에서 국왕이 궁궐을 벗어나 백성들에게 모습을 보이던 의례에 행행幸行이 있다. 행행은 국왕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장소를 향해 궁궐 밖으로 나아가던 것으로 백성들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기회이자, 왕과 함께하는 화려한 대열을 보여주어 국왕의 위엄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었다.[39]

이중에서도 선대왕과 왕비의 능침에 제사를 비롯하여 전알展謁과 전배展拜를 하러 가는 능행陵幸은 국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한편, 효孝를 실천



1759년(정조 19), 정조가 현륭원(顯隆園)에 능행하여 개최한 행사 장면을 그린 화성능행도병풍(華城陵幸圖屛風). 능행의 규모나 행례에 대해 알 수 있다. (소장 : 국립고궁박물관)



영조 어진(1900년 제작) (소장 : 국립고궁박물관)

함으로써 적통嫡統임을 천명하고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영조에게 있어 경종의 의릉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확한 수단 중 하나였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경종을 독살하였다는 흉흉한 소문에 시달렸다. 왕세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위에 보다 빠르게 오르기 위하여 경종으로 하여금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폈듯 낭설에 지나지 않았는데, 영조와 그를 지지하는 노론의 반대 세력에게는 좋은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755년(영조 31) 발생한 나주벽서사건이다.

나주 객사인 망화루 기둥에 거병을 촉구하는 벽서가 붙은 것이 발단이 되어 수많은 소론들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신치운申致雲은 국문 도중 영조의 면전에 대고 "나는 갑진년(1724년, 경종이 사

망한 해)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소!"라고 말했다. 영조가 재위에 오른지 30여 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거론된 것이다. 이렇듯 영조의 재위기간 내내 경종 독살설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영조는 이러한 소문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소문은 영조의 정통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영조 또한 이를 말끔히 일소하기는 어려웠다. 영조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영조는 52년이라는 긴 재위기간 동안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숙종의 명릉과 더불어 경종의 의릉에 자주 능행하였다.[40] 특히 의릉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영조는 왕이 된 이후 태조의 건원릉과 아버지 숙종의 명릉보다 의릉에 가장 먼저 능행하였고, 3차례나 능행한 이후에야 다른 곳을 찾았다. 또한 영조가 의릉에 능행한 시기를 다른 능침에 능행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주 목적지가 의릉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릉이 건원릉 등 구리의 동구릉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의릉만을 능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건원릉에 능행할 때에는 대부분 의릉에도 능행하였다. 영조의 재위기간 이루어진 총 77차례의 능행 가운데 의릉은 15차례 찾았다. 총 25차례 능행한 명릉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의릉을 특별하게 여긴 영조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영조의 능행지역과 시기[41]

	건원릉	후릉	헌릉	영릉	현릉	장릉	광릉	창릉	선릉	정릉	효릉	강릉	목릉	장릉	영릉	숭릉	명릉	의릉
1	1726. 9.4	1740. 9.1	1733. 9.10		1761. 2.4		1755. 2.18	1754. 8.15	1728. 9.1	1728. 9.1	1741. 8.28	1738. 8.19	1747. 8.19	1731. 8.17	1730. 2.27	1727. 8.16	1726. 10.20	1725. 1.16
2	1737. 8.19		1748. 3.21		1764. 2.25			1756. 8.1.	1742. 8.16	1742. 8.16			1753. 8.9	1731. 9.26		1747. 8.19	1732. 8.16	1725. 8.27
3	1747. 8.19							1759. 3.27	1746. 8.10	1746. 8.10			1761. 2.4	1745. 8.19		1753. 8.9	1735. 8.11	1726. 2.12
4	1753. 8.9							1760. 3.26					1764. 2.25	1749. 2.10		1761. 2.4	1740. 3.11	1727. 2.2
5	1761. 2.4															1764. 2.25	1744. 8.7	1730. 11.10
6	1764. 2.25																1748. 8.10	1732. 1.25
7																	1751. 8.6	1734. 2.13
8																	1754. 7.30	1737. 8.19
9																	1756. 8.1	1747. 8.19
10																	1758. 1.25	1750. 8.20
11																	1758. 8.1	1752. 8.25
12																	1759. 3.26	1753. 8.9
13																	1759. 8.15	1759. 9.30
14																	1760. 3.25	1761. 2.4
15																	1760. 6.7	1761. 8.24
16																	1761. 8.13	
17																	1761. 8.15	
18																	1762. 8.15	
19																	1764. 8.15	
20																	1765. 8.1	
21																	1766. 8.9	
22																	1767. 8.20	
23																	1769. 8.10	
24																	1770. 9.1	
25																	1771. 8.20	
계	6	1	2		2		1	4	3	3	1	1	4	4	1	5	25	15

영조는 능행을 통하여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신이 '삼종혈맥'을 잇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때로는 경종에 얽힌 일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부상하게 되면 의릉에 능행하여 신하들의 앞에서 능에 엎드려 우는 모습까지 보이며 경종과의 관계를 변호하였다.[42] 정치적인 목적으로 능행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능행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영조는 능행을 일종의 대민 직접 접촉의 기회로 삼았고, 군신관계를 조정하는 매개체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의릉으로의 능행은 좋은 기회였다.

> 이날 임금이 환궁하다가 노상(路上)에 연(輦)을 멈추고 양주(楊州)에 나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본읍(本邑)의 폐막(弊瘼)을 물었다.[43]

영조가 재위에 오른 후 의릉에 두 번째 능행을 하였을 때의 기록이다. 이처럼 영조는 능행을 기회로 삼아 지방관들에게 지역의 폐단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을 전해 들었다. 그런가하면 왕이 능행을 할 때 백성이 직접 호소하여 이를 해결해주는 일도 있었다.

> 임금이 의릉(懿陵)에 거둥하였는데, 돌곶이 고개를 지나갈 때 한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호소하여 금오(金吾)가 붙잡았다. 임금이 승지 조명채(曹命采)에게 유시하기를,
> "그의 뿌리를 물어서 아뢰라."
> 하였는데, 어가(御駕)가 능 아래에 이르자, 조명채가 말하기를,
> "그 아이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말하기를, '태종대왕(太宗大王)의 7대손으로 본디 금천(金川)에 살았는데 걸식을 하며 양천(陽川) 땅에 이르러

부모가 모두 죽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길가의 한 어린아이가 왕가의 후손이라 하는데, 이는 바로 사민(四民) 가운데서 고(告)할 곳이 없는 사람이다. 양천현감(陽川縣監)은 지난번 신칙한 후에 잘 받들어 거행하지 못해 현 안의 고할 곳이 없는 아이로 하여금 관(官)에 호소하지 못하게 하여 길가에서 슬피 울부짖게 했으니, 단속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해당 도신(道臣)은 종중추고(從重推考)하며, 그 고아는 해청에서 식물(食物)을 넉넉히 제급(題給)할 것이며, 그 부모 역시 본현으로 하여금 돌보아 묻게 하라."

하였다.[44]

이처럼 영조는 능행을 하였을 때 지방관을 통해 지역의 민심을 전해 듣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직접 백성을 불러 어려움을 묻기도 하였고, 때로는 왕 앞에 호소하는 자들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의릉 능행 이외에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45] 이와 더불어 능행이 지역에 가져다주는 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왕의 능행은 능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가능했다. 왕이나 신료와 더불어 수백의 군졸들이 동원되어 함께 대열을 유지한 상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능행로는 백성의 생활 터전인 농경지나 가옥을 거쳐 가는 경우가 많아 백성들의 생업에 차질을 빚곤 했다. 또한 능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능행로를 정비하는 일에 동원된 백성들은 인근 30리 이내의 거주민들이어서,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필수적 과제였다. 특

히 능행로는 한 번 정해지면 큰 변화 없이 반복해서 이용하였기 때문에 능행을 자주 행하였던 곳은 더욱 신경을 써주어야만 했다.[46] 이에 능행로를 정비하고 야간에 횃불을 밝히는 비용으로 저치미儲置米(국가비축미)를 내려주고, 농민들이 보유한 재화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주었다.[47] 농번기에는 백성을 동원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가서 의릉(懿陵)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香)을 친히 전하였다. 농민을 불러 보고 농사 형편을 물었다. 하교하기를,
> "… 의릉의 기신에 알릉(謁陵)하는 예(禮)를 정하였으나 바로 추수(秋收)하는 시기에 당하니, 길을 닦을 때에 절대로 농민을 쓰지 말아서 내가 석년에 휼민(恤民)을 체득한 뜻을 펴도록 하라."
> 하였다.[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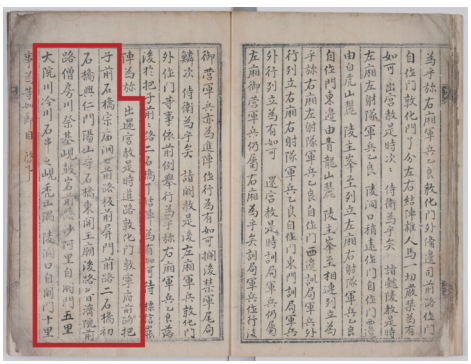
정조는 이러한 영조의 뜻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선왕先王(영조)을 생각하면 감히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며 능행 중에 접수된 백성들의 상언上言을 모두 직접 처리하였는데, 재위기간 동안 총 4천여 건에 달했다.[49] 또한 능행 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저치미를 내려주는 것 이외에 각종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법을 만들거나, 기금을 만들고 이자를 이식하여 해결하기도 하였다.[50]

앞서 말하였듯 한 번 정해진 능행로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았다. 간혹 천재지변에 의해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길을 보수하는데 막대한 재력이 소모될 경우 일부만을 변경할 따름이었다. 능행로는 능행에 앞서 국왕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되었는데, 이를 통해 후대 국왕들도 능행로를



오늘날 의릉의 모습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51] 실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의릉으로의 능행로는 영조 대에 처음 닦여 영조의 재위기간 동안 총 15차례 이용되었다.[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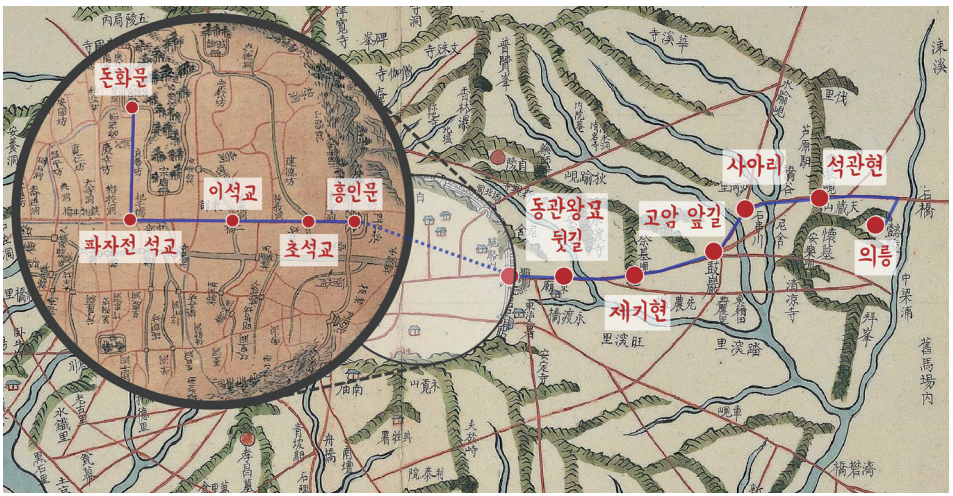


『어영청거둥등록(御營廳擧動謄錄)』에 기록된 의릉 능행로(붉은색 네모) (소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돈녕부(敦寧府) 앞길 → 파자전 석교(把子廛 石橋) → 종묘동구(宗廟洞口) 앞길 → 판전병문(板廛屛門) 앞길 → 이석교(二石橋) → 초석교(初石橋) → 홍인문 → 양산수석교(陽山守石橋) → 동관왕묘 뒷길 → 보제원(普濟院) 앞길 → 승방천(僧房川) → 제기현(齊基峴) → 고암(皷岩) 앞길 → 사아리(沙阿里) (궐문(自闕門)으로부터 5리(里)) →

대원천(大院川) → 냉천(冷川) → 석관지현(石串之峴) → 독산우(禿山隅) → 능동(陵洞) 입구 (궐문(闕門)으로부터 10리(里))[53]

위는 『어영청거둥등록』에 기록된 의릉 능행로이다. 이를 따라가보면, 어가는 돈화문을 통해 궁에서 나와 종묘 앞길을 지나 홍인문(동대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동관왕묘 뒷길을 통해 보제원(지금의 안암오거리) 앞을 지나 제기현을 거쳐 고암(지금의 종암동) 앞길을 지났다. 그 뒤 두 개의 천을 건너 석관지현(지금의 석관동)을 지나 의릉에 도착한다. 이를 통해 의릉은 다른 능에 비해 비교적 궁궐과 가까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길을 옛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양도(漢陽圖, 18세기)』(돋보기 안)와 『동여도 도성도(都城圖, 1857)』(보물 제1358호) 위에 능행로를 표시한 것이다.
(소장 : 서울역사박물관)



오늘날의 지도 위에 능행로를 표시한 것이다. (단, 실제 능행로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도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이를 오늘날의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위와 같다.

옛지도 위에 표시한 것과 오늘날의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을 비교해보면 능행로가 지금까지도 길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능행 시에는 왕과 신하 그리고 호위군이, 말과 가마 그리고 수레 등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는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고 있다. 당시와 비교하여 지금은 지명도 바뀌었고, 지형지물도 현대식으로 변모하였다. 길도 잘 포장되어 더 이상 먼지가 풀풀 날리거나, 비를 맞아 진흙탕이 될 일도 없다.

하지만 어가의 행렬이 능행을 위해 지나간 기억은 길에 스며있다. 경종의 의릉이 그 곳에 남아있기에, 의릉으로 가는 길 또한 옛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화려한 의장과 기치를 내걸고 수백의 군사와 함께 지나던 왕의 모습. 그 화려한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능행로로 구름처럼 모여든 백



의릉과 석관동 전경 (사진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 VI)

성들의 모습. 이러한 '관광민인觀光民人'들에 의해 능행로가 비좁아져 행렬이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결코 이들을 내쫓거나 해산시키지 않은 너그러운 통치자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을 길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글을 읽은 여러분도 함께 간직하게 되었다. 길이 가진 기억을.

(민문기)

성북의 능·원·묘

조선 왕실의 분묘墳墓는 위계에 따라 능陵, 원園, 묘墓로 구분되었다. 왕과 왕비, 또는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고 하며, 왕의 사친私親이나 조모,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손 등 일반 왕족들과 위계를 달리하면서도 종묘에 부묘祔廟될 수 없는 왕족들의 무덤은 원이라고 하였다. 왕자, 공주 등 왕자녀의 무덤은 묘라고 불렀다.[54]

조선 왕실의 분묘 중 최상의 권위를 갖는 것은 능이다. 산릉山陵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산릉이란 '제왕을 장례지낼 때 산에 능을 만든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능의 조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주변 능역과의 거리, 도로와의 관계나 풍수설에 따른 방위, 주변 산세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다.[55]

묘의 주인공인 대군이나 군, 공주나 옹주는 품계가 없는 특별한 인물들로서, 품계에 따른 묘지 면적, 묘소 조성, 석물 설치 등의 제한에서 예외적인 대우를 받았다. 때문에 지나치게 화려한 묘소를 조성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474년(성종 5)에 신분에 따른 규모나 석물의 설치 제한 등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더 이상 호화로운 묘소를 조성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성의 지역적 제한은 능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56]

조선조에서 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26년(인조 4)의 일이다.

인조가 자신의 생부인 정원대원군의 묘를 흥경원興慶園으로, 생모 연주부부인의 묘를 육경원毓慶園으로 봉원한 것이다. 능과 원의 구별은 조성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능에 비해 원이 작았다. 원이라는 명칭은 '능이라고 하자니 결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묘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기에 중국 황실의 예를 찾아 이를 따라 정한 것이다. 인조대 등장한 원은 18세기 무렵 부자 관계에 의한 왕위 계승이 아니거나,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경우가 생기면서 더욱 확산되었다.[57]

성북 지역에 처음 조성된 왕릉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정릉貞陵이다. 최초에는 사대문 안에 조성되었으나,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어 정릉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이유로 1409년(태종 9) 양주 사을한沙乙閑(지금의 정릉동)의 산기슭으로 천장遷葬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조성된 왕릉은 조선의 20대 임금 경종의 의릉이다. 1724년(영조 즉위년) 중량포中梁浦 인근(지금의 석관동)에 조성되었다. 앞서 천장된 정릉과는 달리 처음부터 성북 지역에 조성된 왕릉이다.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가 사망하자 그의 묘소를 의릉 국내局內인 천장산에 조성하고 연경묘延慶墓라 명명하였다. 이후 아들 헌종憲宗이 왕위에 오르자 1834년(헌종 즉위년) 효명세자는 국왕으로 추숭되었고 그의 묘소도 능의 위상을 갖게 되며 수릉綏陵으로 명

명되었다. 성북 지역에 세 번째 왕릉이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1846년(헌종 12) 수릉은 용마산 아래로 천장이 행해졌고, 1855년(철종 6) 건원릉 좌강左崗으로 재차 천장되었다. 이에 따라 성북 지역의 능은 세 곳에서 다시 두 곳이 되었다.

성북 지역에는 왕릉 이외에도 왕실의 원·묘 일부가 조성되었다. 1779년(정조 3) 정조의 후궁인 원빈元嬪 홍씨가 사망하자 제터고개 인근(지금의 안암동 고려대 교내)에 묘소를 만들고 인명원仁明園이라 명명하였다. 다만 후사도 없었던 후궁의 묘를 원의 호칭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상소가 빗발치자 1786년(정조 10) 원에서 묘로 위상이 격하되었다. 이후 1950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의 후궁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성북 지역에는 인명원 이외에도 왕자녀 및 후궁의 묘가 추가로 조성되었다. 순조의 1녀 명온공주明溫公主가 종암리 일대(지금의 종암동)에, 3녀 덕온공주德溫公主의 묘가 양주 장위리(지금의 장위동)에 조성되었다. 이밖에도 고종의 후궁인 영보당 귀인 이씨, 보현당 귀인 정씨, 왕자 완왕完王 이선李墡의 묘가 월곡 일대에 조성되었다. 그리고 고종의 왕자 1명이 정릉의 우강右崗에, 공주 1명이 의릉의 좌강에 각각 안치되었다.

성북 지역의 능·원·묘 중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수릉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원빈묘는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후궁 묘역으로 옮겨졌고, 명온공주의 묘는 서울 중랑구 망우리공

원으로 이장되었다. 고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 귀인 이씨 등의 묘와 완왕 이선 등 왕자녀의 묘는 모두 서삼릉 비공개 경내로 옮겨졌다.

성북 지역 능·원·묘의 특이한 점은 천장된 정릉을 제외하면 대개 18세기 이후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까닭으로 18세기 이후 성북 지역에 능·원·묘가 조성되었는지 추적하여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어렴풋한 짐작은 가능하다. 조선후기에는 도성으로의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보다 왕성해졌다. 이에 도성으로 향하는 교통로 가운데 홍인문으로 시작되어 동묘-안암천-제기현-고암-사하리-수유현을 넘어 양주 포천로로 연결되는, 성북 지역을 지나는 길이 발달하였다. 이를 통해 능·원·묘 조성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도로 관계 문제가 해소되었기에, 18세기 이후 성북 지역에 많은 능·원·묘가 조성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58]

종류	조성시 국왕	봉호	관계	초장지	현위치	비고
능	태조	신덕왕후 정릉	태조의 계비	한성부 서부 취현방	서울 성북구 정릉동	
	영조	경종 의릉	영조의 이복형	양주 중량포	서울 성북구 석관동	
	순조	익종 수릉	순조의 아들	의릉 국내 천장산 인근	경기 구리시 동구릉	헌종에 의해 왕릉으로 추존
원	정조	인명원	정조의 후궁	한성부 동부 제 터고개	경기 고양시 서삼릉	정조에 의해 원빈묘로 격하
묘	순조	명온공주 묘	순조의 공주	동부 숭신방 종암리	서울 중랑구 망우리공원	
	순조	덕온공주 묘	순조의 공주	양주 장위리	미상	
	고종	영보당 귀인 이씨 묘	고종의 후궁	양주 월곡	경기 고양시 서삼릉	
	고종	보현당 귀인 정씨 묘	고종의 후궁	양주 월곡	경기 고양시 서삼릉	
	고종	내안당 귀인 이씨 묘	고종의 후궁	양주 월곡	경기 고양시 서삼릉	
	고종	대군 묘	고종의 왕자	양주 정릉 우강	경기 고양시 서삼릉	
	고종	공주 묘	고종의 공주	양주 의릉 좌강	경기 고양시 서삼릉	
	고종	완왕 이선 묘	고종의 왕자	양주 월곡	경기 고양시 서삼릉	

미주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s://heritage.unesco.or.kr/)
2 제19대 왕 숙종(肅宗, 1661~1720)은 46년간 재위하였고 제21대 왕 영조(英祖, 1694~1776)는 52년간 재위하였다. 조선의 왕들 가운데 재위기간이 긴 순으로 보면 영조가 첫째, 숙종이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
3 민진원(閔鎭遠), 『단암만록(丹巖漫錄)』, 1728(영조 4).
4 『경종실록(景宗實錄)』 권3, 1년 4월 20일(경술).
5 『경종실록(景宗實錄)』 권5, 1년 10월 10일(정묘).
6 『경종실록(景宗實錄)』 권5, 1년 10월 13일(경오).
7 『경종실록(景宗實錄)』 권6, 2년 3월 17일(임인), "입진이 끝나자 도승지(都承旨) 김시환(金始煥)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나아가 읽었는데 잠시 후에 임금의 화열(火熱)이 갑자기 오르고 심기(心氣)가 폭발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놀라 두려워하며 물러갔다."
8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1, 3년 3월 6일(을유), "약방제조(藥房提調) 이태좌(李台佐)가 지금부터 법식을 정하여 모든 의원이 이틀 간격으로 입시(入侍)하여 진맥(診脈)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9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3, 3년 7월 8일(을유), "약방제조(藥房提調)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종기(腫氣)를 앓는 사람이 꺼리는 바는 노기(怒氣)를 발동하는데 있습니다. 노기가 발동하면 다시 발생하기 매우 쉬우니, 청컨대 '정(靜)'자 한 글자를 조섭(調攝)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하고,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에게 만일 과실이 있어도 음성을 돋구고 안색에 보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용히 조섭하는 가운데에서는 더욱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받아들였다. 대개 임금이 담화(痰火)가오르고 내리는 증세가 간혹 말하는 즈음에 나타났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진계(陳戒)한 것이다."
10 『경종실록(景宗實錄)』 권8, 2년 6월 24일(정축).
1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440책, 숙종 34년 2월 10일(정해).
1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531책, 경종 1년 윤6월 10일(기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531책, 경종 1년 윤6월 20일(기묘).
13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2일(임신).
14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3일(계유).
15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8일(무인).
16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11일(신사).
17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16일(병술).

18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20일(경인).
19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22일(임진).
20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23일(계사).
21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24일(갑오).
22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25일(을미), "밤에 유성(流星)이 앙성(昴星) 아래에서 나왔으며 또 정성(井星) 위에서도 나왔다. 축각(丑刻)에 임금이 환취정(環翠亭)에서 승하(昇遐)하니, 내시(內侍)가 지붕에 올라가 고복(皐復)을 하고 곧 거애(擧哀)를 하였다."
23 『숙종실록(肅宗實錄)』 권17, 12년 9월 13일(갑오), "… 신의 생각으로서는 후궁(後宮)으로서 가까이 사랑할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 미색(美色)에 마음이 현혹될 근심과 치우치게 사랑에 빠져 은총을 열어 준다는 비난을 없게 한다면…"; 『숙종실록(肅宗實錄)』 권17, 12년 12월 14일(갑자), "삼가 듣건대, 전하께서는 궁인(宮人) 장씨(張氏)를 숙원으로 삼았다 하니 … 삼가 궁중의 사이에 명분(名分)이 분명함을 알지 못하므로, 성색(盛色)을 경계하라는 말이 또한 이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24 『숙종실록(肅宗實錄)』 권17, 12년 12월 10일(경신), "장씨(張氏)를 책봉하여 숙원(淑媛)으로 삼았다. … 나인(內人)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자못 얼굴이 아름다웠다."
25 민진원(閔鎭遠), 『단암만록(丹巖漫錄)』, 1728(영조 4).
26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12일(신묘).
27 『본초강목(本草綱目)』의 〈상반제약(相反諸藥)〉에 보면 '시반해(柿反蟹)'라 하여 감과 게를 상반약물로 보고 있다고 한다(이해웅,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종, 영조의 질병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67쪽).
28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5, 4년 8월 24일(갑오).
29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때 반대에 부딪힌 옛 영릉 터가 이후 영조의 원릉(元陵) 능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능지에서 제외된 곳이 이후 선정된 것은 이후에도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다.
30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Ⅵ,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299쪽.
31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14, 300쪽.
32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14, 304~309쪽.
33 『춘관통고(春官通考)』 12책 권20 「고례(吉禮)」, 18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14, 346쪽에서 재인용.
34 조운연, 「조선왕릉의 능역 복원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22쪽.

35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4, 310~311쪽.
36 「이문동 안기부서 '열린음악회'」, 『동아일보』, 1995. 10. 4.
37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4, 311~315쪽; 조운연, 앞의 논문, 2008, 150~152쪽; 최종희 · 김홍년 · 이원호 · 엄태건, 「의릉 일원의 입지와 공간조성특성에 관한 구」, 『문화재』 Vol. 4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216쪽.
38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의 다섯 가지.
39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2016, 18~19쪽.
40 이왕무, 위의 책, 2016, 158쪽.
41 이왕무, 위의 책, 2016, 157쪽.
42 『영조실록(英祖實錄)』 권7, 28년 8월 25일(계축).
43 『영조실록(英祖實錄)』 권7, 1년 8월 27일(임진).
44 『영조실록(英祖實錄)』 권72, 26년 8월 20일(경인).
45 1730년(영조 6) 영릉 행행 때는 여주와 안성의 백성들을 위로하였다(『영조실록(英祖實錄)』 권25, 6년 2월(경인)). 1731년(영조 7) 8월과 9월에는 장릉에 행행하면서 파주의 백성들에게 도승지를 보내 민폐를 물었다(『영조실록(英祖實錄)』 권30, 7년 8월(정미)). 1734년(영조 10) 장릉 거둥시에는 김포 고을 유생을 불러 보고(『영조실록(英祖實錄)』 권39, 10년 9월(무자)), 1736년(영조 12) 퇴계원에서는 길가에 구경나온 노인들을 불러 위로하였다(『영조실록(英祖實錄)』 권41, 12년 2월(정축)). 1740년(영조 16) 송도에서는 노인들을 불러 폐막을 묻고 오래전에 대여한 쌀과 목면을 탕감하여 주었으며(『영조실록(英祖實錄)』 권52, 16년 9월(경오)), 1762년(영조 38) 명릉을 둘러 본 뒤에는 백성들을 불러 농사 형편을 물었다(『영조실록(英祖實錄)』 권100, 38년 8월 (을사)); 이희중, 「17,8세기 서울 주변 왕릉의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17, 서울학연구소, 2001, 47쪽.
46 이왕무, 위의 책, 2016, 238~239쪽.
47 『영조실록(英祖實錄)』 권117, 47년 8월 17일(을유).
48 『영조실록(英祖實錄)』 권91, 34년 6월 28일(임오).
49 김문식, 「18세기 국왕의 소통 방식」,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014, 174쪽.
50 이희중, 위의 논문, 2001, 45~46쪽.
51 이왕무, 위의 책, 2016, 239~244쪽.
52 이후 정조가 1차례, 순조가 5차례, 헌종이 2차례 이용하였다. 철종이 의릉에 능행한 기록은 없다.
53 『어영청거둥등록(御營廳擧動謄錄)』 권3, 정미(1727) 1월 28일, 「병조절목(兵曺節目)」(이왕무, 위의 책, 2016, 242쪽에서 재인용).
54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사전』 '능원' 항.
55 이근호, 「조선후기 성북 지역 능묘 조성과 그 의미」, 『성북학 학술회의 조선시대

성북지역의 공간 · 삶 · 문화』 발표자료집, 2019, 93~96쪽.

56 이근호, 위의 논문, 2019, 97~98쪽.

57 이근호, 위의 논문, 2019, 99~100쪽.

58 이근호, 위의 논문, 2019, 102~104쪽.



3장 | 8년간의 쉼표, 번암 채제공의 명덕동 별업



8년간의 쉼표, 번암 채제공의 명덕동 별업

아랫말, 웃말, 간대말, 활량리, 명덕동.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장위동에 있었던 작은 마을들의 이름이다. 이 가운데 명덕동은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별업別業이 있던 마을이다. 별업은 요즘 말로 하면 별장이다. 별서別墅라고도 불렀는데 옛날 지위 높고 재력 많은 양반들이 본가 외에 근교에 따로 토지를 사서 정원을 갖추어 만든 휴양 목적의 주거 시설이다. 조선시대 명덕동 일대는 뒤로 산을 두르고 앞으로는 맑은 시내와 들판을 마주한 아늑한 지세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별업을 조성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느 사이엔가 명덕동과 함께 별업도 사라지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채제공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남긴 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 편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옛 명덕동 별업과 그 주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명덕동 별업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별업의 주인 번암 채제공은 누구였는지, 왜 그는 이곳에 별업을 조성했는지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채제공은 조선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영조와 정조 연간에 활동했던 유능한 관료이자,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명재상이었다. 홍성에서 태어난 그는 1743년(영조 19)에 문과 급제를 한 뒤 영조의 신임을 받아 두루 요직을 맡으며 활동했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에는 세손우빈객世孫右賓客이 되어 세손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했고 영조 말엽에는 벼슬이 병조판서에

까지 이르렀다.

정조의 채제공을 향한 믿음은 더욱 각별했다. 정조는 자신의 옛 스승일 뿐 아니라 국정을 수행하는 능력도 출중하며 언제나 직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를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했다. 정조가 즉위 후 당시 원로 반열에 든 채제공을 굳이 규장각 제학에 임명했던 것은 항상 그를 옆에 두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에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관료와 신하로서 모든 자질을 갖춘 채제공이었지만 평생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당색黨色이었다. 채제공은 남인南人에 속했다. 남인은 숙종 대 갑신환국 이후 조정 내에서 입지를 잃었고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 이후에는 관로 진출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인 출신 채제공만이 조정에서 버티고 있었다. 조정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거나 보호해 줄 선배들은 전무했다. 노론 관료들은 채제공의 빈틈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779년(정조 3) 음력 9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도가 홍국영이 실각함에 따라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노론 세력은 이때를 놓칠세라 채제공의 파직을 임금에게 강력



채제공초상-금관조복본(보물 제1477-2호). 1784년작. 채제공이 명덕동 별업에 은거했을 때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인 이명기(李命基, 1756~?)가 왕명을 받고 그린 초상화이다. 서양화법을 따른 명암법을 적절히 구사하여 얼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장식적인 금관조복을 금박, 선명한 채색, 명암법 등으로 화려하게 표현했다. 사실성과 장식성을 어우러지게 하여 조선 초상화의 뛰어난 수준을 잘 보여준다. (사진출처 및 설명 : 문화재청 국기문화유산포털)



창경궁 홍화문(弘化門). 1744년(영조 20) 정하언이 왕명을 받고 이 문의 편액을 썼다. 정하언은 1735년(영조 11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744년(영조 20) 조정에서 『속대전(續大典)』을 찬수할 때 왕의 특명으로 법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삼척부사 재임 시 귀양 온 채제공과 어울렸고 서울 명덕동에 땅을 구입하여 별업을 조성하였다. 저서로는 『지당집(止堂集)』이 있다.

하게 요청했다. 채제공의 역할이 커질수록 남인 세력의 부상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정조의 신임은 확고했지만 반대파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다. 후퇴 겸 휴식이 필요했다. 그해 초겨울 채제공은 관직에서 물러나 동대문 밖 명덕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강 건너 노량진 별업이나 홍성의 본가로도 갈 수 있었지만 도성과 가까운 명덕동으로 발길을 옮긴 것은 언제라도 임금에게 변고가 생기면 궐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 일선에서 아주 떠나버린 것이 아닌 미래를 기약한 전략적 후퇴였다. 아마 그를 신임했던 정조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명덕동에서 채제공이 보낸 시간은 무려 8년이다. 이 시절 그는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벗들을 자주 불러 산수를 유람하기도 하며 별업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가끔 도성 안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오래 머무르진 않았다. 문장에 능했던 그는 이곳에서 여러 편의 한시와 산문을 썼다. 그의 문집 『번암집樊巖集』 제15권에 실려 있는 70여 편의 한시와 같은 책 제34권에 실려 있는 6편의 산문들이 바로 그때 쓴 작품들이다.

명덕동에서 쓴 작품들은 그가 머문 장소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이 중 6편의 산문은 모두 기문記文으로 이를 통해 별업 내부의 건물, 나무, 바위, 폭포 등의 배치는 물론 각 장소의 유래와 거기에 담긴 뜻을 알 수 있다.

「연명헌기戀明軒記」에는 별업의 중심건물 '연명헌'의 뜻을 풀어 놓았다. 곧 '빈궁하든지 영달하든지 간에 밝은 군주를 사모하여 멀리가지 못하고 근교에서 농사짓고 누에친다.'는 뜻으로 차마 임금을 멀리 떠나지 못하며 노심초사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

> 명덕산(明德山)은 동문(東門) 밖 10리 남직한 곳에 있다. 바위와 뫼뿌리가 둘러 안고 있어서 산 밖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가운데 동부(洞府)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
> 동부의 안은 실로 넓고 커서 폭포를 포용하고 있다. 흐름이 깊은 골짜기로부터 오다가 반석을 만나 콸콸 큰 소리를 내면서 날며 운다. 돌의 형세가 바뀌면 그 소리가 따라 변한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다. 사면의 산에는 소나무와 가죽나무가 천 그루 있고, 춘하추동 사(四)계절을 통하여 기이한 곳이 끊어지지 않는다. 누(樓) 앞을 둘러 막아 못을 만들었으니 연꽃 향기는 베개와 자리에 잠기고 물고기와 새들은 자유롭게 잠기고 뜨

곤 한다. 유연하여 태고의 기미(氣味)가 있다. 이것은 실로 나의 별업(別業)이다.

—「연명헌기(戀明軒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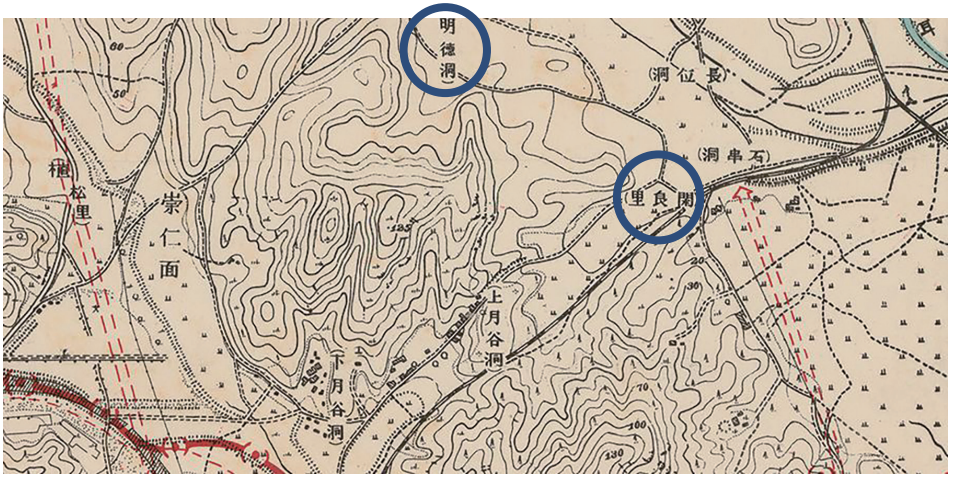
(국역 출처 : 남만성 역, 1988, 『한국사상대전집33 : 번암집』, 양우당)

「수옥대기漱玉臺記」에는 명덕동 별업의 유래가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원래 별업은 삼척부사를 지낸 옥호玉壺 정하언鄭夏彦(1702~1769)의 소유였다. 채제공은 1751년(영조 27)부터 1753년(영조 29)까지 1년 넘게 강원도 삼척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정하언이 당시 삼척부사로 있었으므로 의기가 통했던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채제공의 평에 따르면 정하언은 권력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문장에 능하고 술을 잘하며 바른 말을 하는 데 거리낌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1769년(영조 45) 정하언이 죽자 그 아들들이 가난하여 명덕동 별업을 팔았고 그 뒤 세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채제공이 도성을 떠나오면서 사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절벽 아래 붉은 먹으로 '수옥대漱玉臺'라고 새긴 글씨는 다름 아닌 정하언의 필체로 채제공은 글씨를 어루만질 때면 고인의 마음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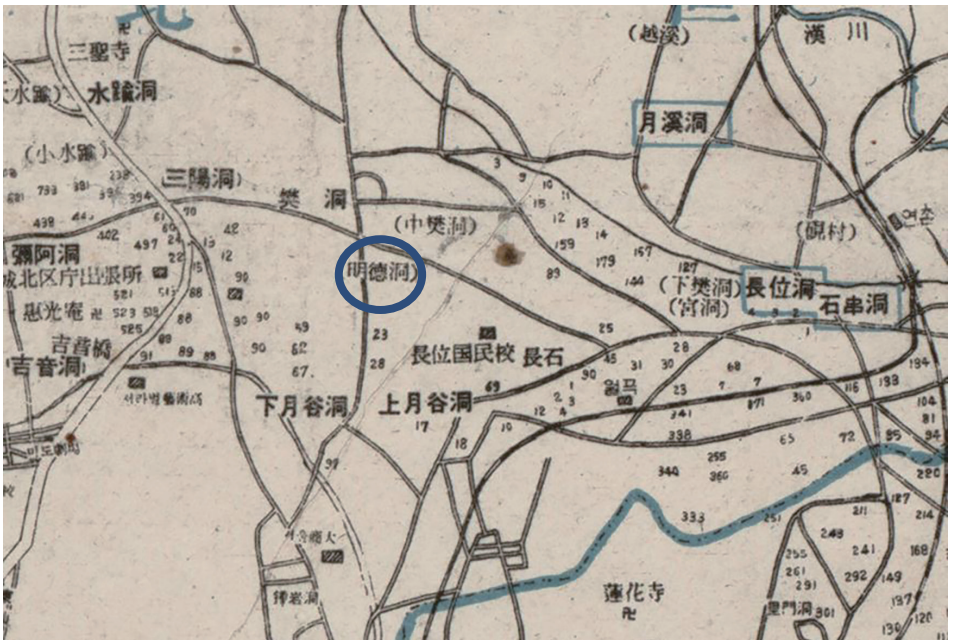
그러면 별업 바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명덕동기明德洞記」를 읽어보자.

난가대(爛柯臺)를 지나서 경사진 벼랑을 따라 석벽 곁으로 칡을 잡고 가면 얼마 안 가서 명덕동에 닿는다.

동(洞)이 깊어서 때로 나무꾼이 오기는 하나 드물다. 높은 산봉우리들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동북의 구석에 이르러서는 그 정상이 그다지 치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53).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명덕동(明德洞), 한량리(閑良里)가 보인다.



『최신서울특별시전도』(1966).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966년까지만 해도 명덕동이란 지명이 남아 있었다.

솟지 않은 것이 마치 커다란 고리에 약간 이지러진 곳이 있는 것 같다. 이 동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를 경유한다.

수락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그 이지러진 곳에 뾰족뾰족 상투처럼 솟아 있다. 연기 어린 나무들과 아득히 먼 산안개를 손으로 가리켜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각심암(覺心庵)이다.

동의 형체와 지세는 깊숙하고 넓고 비었다. 가운데에 밭 약간 묘(畝)가 있을 뿐 나머지는 다 소나무 · 전나무들이다. 어지럽게 뒤섞이어 푸르름을 이루었는데 물은 빨리 흘러 벼랑을 따라 달아난다. 소나무 그늘 있는 곳까지 못 미쳐서 금잔디가 땅을 따라 부드럽고 연하여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다.

나는 병이 없을 때면 막대를 끌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돌아다닌다. 그래도 피로하지 않다.

매년 3월, 9월의 계절을 만나면 바람이 자고 날씨가 따뜻한 때를 가려서 집안사람과 부녀들을 인솔하고 솥과 노구를 싣고 가서, 언덕의 돌에 의거하여 혹은 바위의 꽃을 따기도 하고, 혹은 계단의 국화를 따서 떡을 굽는다. 혹은 쑥을 끓여서 점심에 곁들여 먹기도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보내면서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허연(許掾)의 전가(全家)의 도기(道氣)와 방덕공(龐德公)의 온 집안이 은돈(隱遯)한 고사를 가져다가 이것과 비교하면 그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허연과 방덕공은 옛 중국의 은자이다.)

생각하건대 내가 소년 시절에 홍주(洪州, 지금의 홍성)의 시골집에 있을 때, 영절(令節)을 만나면 나는 부모를 모시고 여러 누이들을 이끌고 고산(孤山)의 식암(息庵) 깊은 곳에 놀러 가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한 일이 모두 몇 번이던가. 잠깐 사이에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때의 즐겁던 일은 다시 얻을 수 없고 외롭게 세상에 남아 있는 이는 오직 노쇠하고 병든 나와 늙은 누이 한 사람뿐이다. 또 누이는 집이 시골이고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 모임을 같이할 수가 없다. 어찌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시물을 보고 느낌이 없을 수 없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안식구들이 눈치 채면 즐거운 취미를 감손(減損)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음속에만 감춰 두고 면전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명덕동기(明德洞記)」 전문

(국역 출처 : 남만성 역, 1988, 『한국사상대전집33 : 번암집』, 양우당)

별업을 둘러싼 명덕동 일대의 풍경이 손에 잡힐 듯하다. 글에 따르면 채제공은 명덕동 일대를 자주 거닐었고, 봄가을 좋은 날씨를 만나면 식구들과 함께 주변의 바위나 물가를 찾아 야유회를 즐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고희를 앞둔 나이인지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소년 시절 홍성에서 보낸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자주 떠올리는 그였다. 조정에서 40년 넘게 온갖 풍상을 겪은 그도 마음 한 구석에 유년의 추억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1786년(정조 10) 9월, 채제공은 평안병사로 부름을 받고 명덕동을 떠났다. 1788년(정조 12) 2월, 다시 정조는 직접 어필로 그를 우의정에 임명하는 교지를 내렸다. 69세 노정객의 화려한 재등장이었다. 조정에 다시 돌아온 채제공은 지난날 명덕동에 머무르면서 고민을 거듭했던 것들을 정리해 '6조 진언進言'을 만들어 올렸다. 조선이 부강해지고 청나라에 대적할 만한 힘을 키우려면 먼저 바른 치국治國의 도리를 세우고, 탐관오리를 징벌하



장위1동 주민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장위동 풍경(2015). 멀리 불암산이 보인다.

고, 당론을 없애야 하며, 의리를 밝히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봐야 하며, 권력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조는 채제공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 뒤 정조는 그를 좌의정으로 임명했는데 당시 우의정과 영의정이 공석이었으므로 채제공은 약 3년 동안 독상獨相으로 있으면서 국정을 총괄했다. 정조 연간 후반기에 추진한 굵직한 개혁 정책, 예를 들면 금난전권 폐지, 정약용 · 이가환 · 박제가 · 이덕무 등 실학자 중용, 수원 화성 건설 등은 모두 정조와 채제공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돌아보면 채제공에게 8년간의 명덕동 생활은 의미심장한 쉼표였다. 겉으로만 보면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조정을 떠나 숨어버린 것이지만 그는 이 시간을 반전과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았다. 명덕동 별업은 그가

도성 안에서 펼쳐지는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치밀하게 모색한 공간이었다.

지금 그의 별업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언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의 별업을 둘러쌌던 산과 언덕을 장위동에서 볼 수 있다. 가까운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그가 거닐었던 물가의 흔적들도 일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남긴 생생한 시와 산문이 우리 곁에 있다. 비록 한문이지만 머지않아 이 모두를 번역된 글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옛날 명덕동 별업의 밝고 그윽한 정취가 다시 피어오를지 모르겠다.

(백외준)



4장 | 장위동 남녕위재사



장위동 남녕위재사

남녕위재사

성북구 장위2동 76-59번지(돌곶이로34길 4-11)에는 불교사찰 진흥선원이 있다. 현재 사찰의 건물과 대지는 현재 '장위동 김진홍 가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진입공간과 사랑채, 안채, 별채가 갖추어져 있는 이 널따란 조선식 한옥을 사람들은 '장위동 부마가옥'이라고 부른다. 조선의 23대 임금 순조의 넷째 딸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의 묘가 장위동에 조성된 이후 1865년(고종 2)에 덕온공주의 남편인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1823~1887)이 지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남녕위재사南寧尉齋舍'는 처음 이 집을 지었을 때의 정식 이름이다. 이 집은 윤의선의 아들 윤용구尹用求(1853~1939)가 들어와 '장위산인藏位山人'이란 별호를 달고 기나긴 은거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해졌다.[1]

재사齋舍란 재실齋室이라고도 하는데,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한다. 보통 재사에는 묘지기 또는 산지기가 상주하며 무덤을 관리하고, 유사가 있어서 매년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아서 한다. 하지만 남녕위재사는 묘의 관리와 제사 준비를 위한 공간만을 두고 있지는 않다. 사랑채, 안채, 별채로 구성된 집은 규모가 제법 큰 살림집의

모습을 띠고 있다. 1865년 처음 지을 때 재사 본연의 역할과 함께 별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본래 재사 가까운 곳에는 덕온공주의 묘소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덕온공주 제청과 묘소 일원은 매우 넓었으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로 경관과 지형은 물론 묘소까지 사라지는 변화를 겪었다.

건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남녕위재사는 을축년인 1865년(고종 2)에 지어졌다고 한다. 이는 남녕위재사에 있었다는 '을축년 상량문'이라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1865년은 부마 윤의선이 궁궐 건축 책임을 맡은 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던 해였다. 따라서 남녕위재사는 부마 윤의선의 주도 아래 지어졌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2]

조선시대 상류계층 살림집의 형태와 격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남녕위재사는 1977년 그 가치를 인정 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1962년 8월 18일 윤용구의 손자 윤영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을 당시 주소는 장위동 76번지였으나 지금은 76-59번지로 축소됐다. 1965년 김진홍 씨가 이 집을 사서 33년간 이곳에 거주했다. 그 사이 이 집은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5호(1977년 9월5일)로 지정돼 문화재 명칭도 '김진홍 가옥'이 됐다. 현재 이 가옥의 연면적은 478.42㎡다. 김진홍 가옥은 문화재 지정 후 1993년과 1998년 2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김씨의 부인 권옥경 씨가 1998년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지와 건물 전체를 기증함으로써 이듬해 진홍선원이란 이름으로 선방을 열었다. 현재 안채는 대웅전으로, 안채 별당채는 지장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녕위재사는 ㄷ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 ㄷ자형 중문간 행랑채, ㄷ자형 별채, 一자형 별당채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문에 들어서면 안마당

의 전면에 안채가 자리하고 있다. 중앙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건넌방이 있고 ㄱ자로 꺾여서 부엌·마루·사랑채의 침방으로 연결되는 방이 배치되어 있다. 대청 왼쪽에는 윗방과 안방이 있고 꺾여서 부엌과 찬마루가 놓였다. 안채 왼쪽 터에는 별당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산호벽루珊湖碧樓'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사랑채는 중문간 행랑채 오른쪽에 있는 일각대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큰사랑방, 대청, 작은사랑, 침방으로 되어있다. 침방은 안채와 연결되며 작은사랑 북쪽으로는 별채가 자리한다. 전체적으로 마당 내부 구석의 객실들을 들쑥날쑥하게 처리하여 큰 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시선 방향에 따른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처리한 주택이다. 전체 배치가 궁궐의 내전 일부를 보는 것 같이 상당한 규모의 격조를 지니고 있다.[3]



남녕위재사(현 진흥선원) 앞마당



남녕위재사(현 진흥선원) 입구



남녕위재사(현 진흥선원) 안채의 방문



남녕위재사(현 진흥선원) 안채

부마도위 윤의선과 덕온공주

부마가옥의 '부마'는 부마도위 윤의선을 가리킨다. 윤의선은 음판관 윤치승尹致承(1789~1841)의 아들로서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경교景敎, 호는 석남石南이다. 남녕위는 윤의선이 부마가 되면서 받은 칭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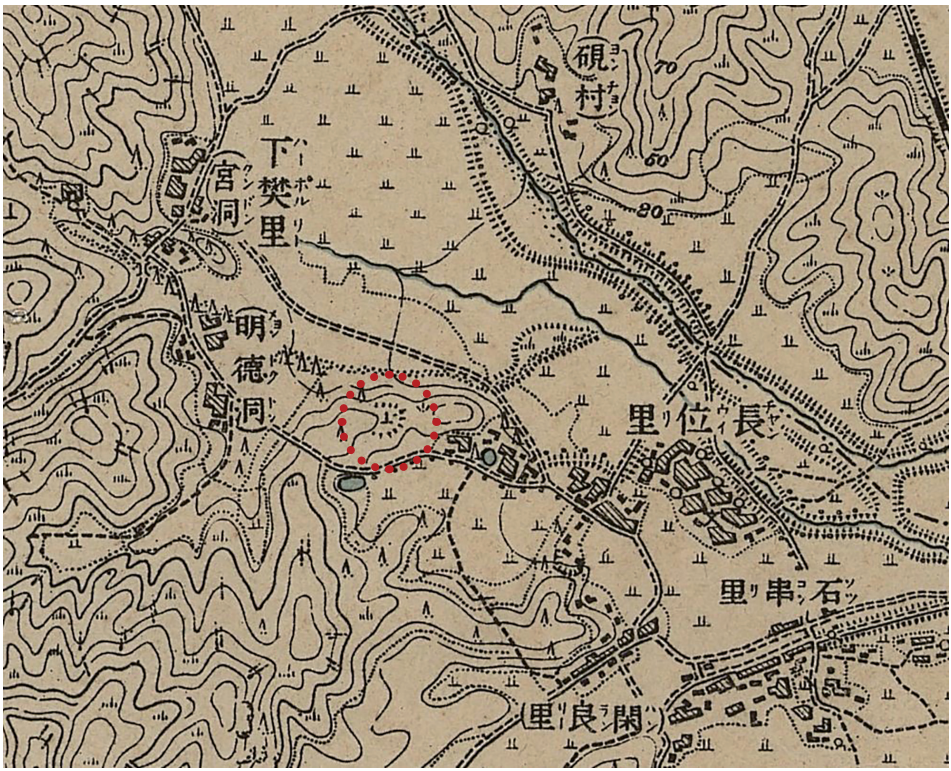
덕온공주는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 사이의 1남 3녀 중 셋째 딸이다. 동기로는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 명온공주明溫公主(1810~1832), 복온공주福溫公主(1818~1832)가 있지만, 이들은 덕온공주가 혼인하기 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다. 순조 이후 즉위한 조선의 왕들은 슬하에 여식으로 후궁의 소생인 옹주만을 두었으므로, 덕온공주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공주로 기록된 사람이다. 아버지 순조는 1829년 공주가 8살 되던 해 '덕온德溫'이란 작호를 내리고, 공상供上과 전결田結을 예에 따라 마련토

록 하였다.[4]

공주나 옹주는 보통 12살을 전후하여 혼인을 하는데 덕온공주가 13살이 되던 해에 순조가 세상을 떠나자 덕온공주의 가례는 3년상 뒤로 늦춰졌다. 덕온공주의 혼인은 3년 뒤인 1837년에 본격화되었다. 대왕대비는 14살부터 16살까지의 전국의 미혼 남성들에 대한 금혼령을 내리고 부마자를 간택했다. 그리하여 1837년 6월 25일 생원 윤치승의 둘째 아들 윤인갑이 최종 부마자로 확정되었다. 순원왕후는 윤인갑의 신체 조건과 함께 대왕대비 김씨와 인척관계인 가문 조건을 고려하여 부마로 확정하였다. 윤인갑이라는 이름은 부마로 확정된 다음 '의선'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순원왕후는 윤의선을 부마로 확정한 뒤 남녕위로 봉작하였다.

1837년 16세의 나이로 1살 어린 윤의선과 가례를 올린 공주는 도성 안 저동(중구 저동1가 · 충무로2가 · 명동1가 · 명동2가 · 을지로2가 ·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에 살림집을 마련했다. 공주의 경우 시가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살림집을 마련하여 사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공주는 자주 병을 앓았으므로, 어머니인 순원왕후는 특별히 공주를 궁에 들어와 치료를 받게 했다. 순원왕후는 일반적인 치료법 외에 민간요법까지 동원하여 공주를 치료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844년 덕온공주는 임신한 몸으로 급체를 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7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후사 없이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서 윤의선은 친형의 둘째 아들 윤용구를 양자로 들였다.[5]

덕온공주의 묘는 임좌병향壬坐丙向으로, 범위는 서쪽으로 명덕동, 동쪽으로는 장위리, 남쪽으로는 외백호산 산등성, 북쪽으로는 동안평東安坪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명덕동과 장위리 부근 지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 문서). 빨간색 점선 원 안이 덕온공주의 묘소, 동남쪽에 있는 건물이 남녕위재사로 추정된다.

과 경계라고 하였다.[6]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도를 보면 서쪽의 명덕동과 동쪽의 장위리가 구별되어 표기되어 있다. 덕온공주의 묘소는 이 두 마을 사이, 지금의 남녕위재사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녕위 윤의선에 대한 기록은 1837년 덕온공주와 결혼한 이후로 20여 년간 나타나지 않다가 1857년(철종 9), 윤의선이 35세이던 해에 입직入直을 명령 받는 기사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한다. 특히 1863년(고종 즉위년) 이후부터는 기록이 많은데 대부분 관직을 제수 받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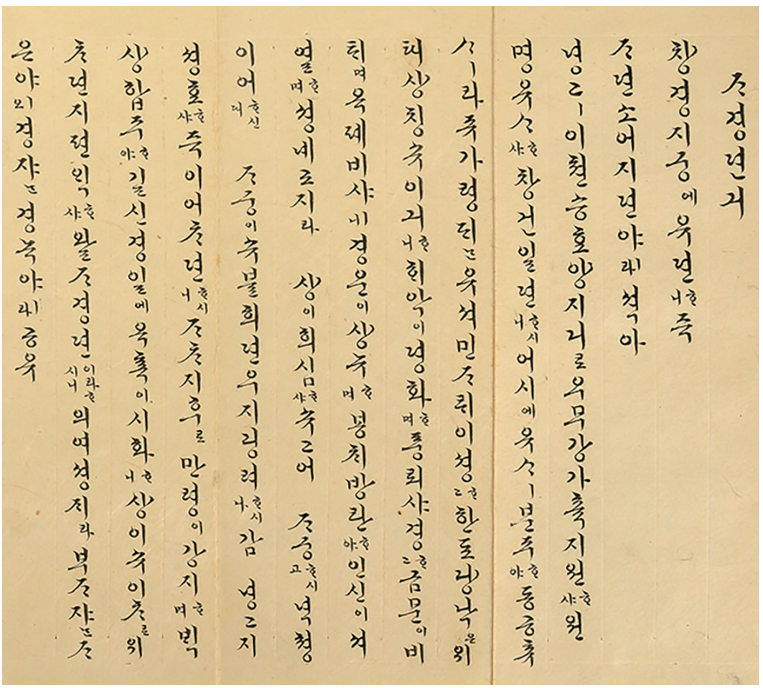
기사 중에는 1871년(고종 8)에 덕온공주의 아들인 윤용구가 과거에 합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볼 때 윤의선은 당시 윤용구를 입양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과거에 합격할 당시 윤의선의 나이는 49세, 윤용구의 나이는 18세였다.

한편 윤의선은 63세가 되던 해 경우궁景祐宮을 인왕동으로 이전하는 공사의 감독을 맡는다. 경우궁은 순조의 생모인 수빈綏嬪 박씨朴氏의 사당이다. 순조의 부마인 윤의선이 경우궁 이전 공사의 임무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의선과 덕온공주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한 행장을 찾을 수 없다. 실록이나『승정원일기』와 같은 관찬 사료는 덕온공주의 결혼과 죽음, 윤의선이 역임한 관직 정도만을 알려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윤의선이 쓴 글씨와 덕온공주가 쓴 한글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들 부부의 학식과 예술적 기량, 생활의 구체적 단편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윤의선이 거쳐 간 관직들을 보면 유독 서사관이란 직책이 많다. 그는 1864년(고종 1) 국장도감國葬都監 하현궁명정서사관下玄宮銘旌書寫官과 이듬해 대왕대비전 서사관書寫官이 되어 일을 했다. 1875년(고종 12)에는 왕실 관련 일인 왕세자책례도감서사관王世子册禮都監書寫官, 상호도감익종대왕추상존호서사관上號都監翼宗大王追上尊號書寫官, 추상가상존호도감서사관追上加上尊號都監書寫官, 추상존호금보전문서사관追上尊號金寶篆文書寫官으로서 일을 했다. 서사관이란 국가나 왕실의 공식문서를 직접 글씨를 써서 작성하는 일을 맡아보는 벼슬을 말한다. 윤의선은 왕실의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지만 서예 솜씨가 당대 일류급이었기에 서사관이란 직책을 왕실의 주요 행사마다 맡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윤의선의 글씨로 알려진 것은『문조익종황제추상존호옥

책문』에 실린 전각 글씨이다. 고종대에 효명세자를 문조익종황제로 추존하면서 제작한 금인장에 새긴 전서체 글씨를 그가 썼는데, 이는 서예 솜씨뿐 아니라 한자에 관한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손댈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예술작품이다. 윤의선의 학식과 예술적 기량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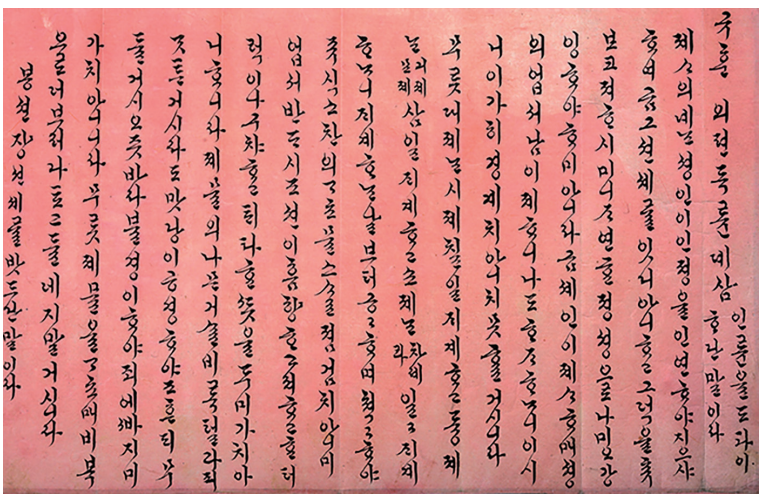
덕온공주는 요절했지만, 어려서부터 순원왕후와 궁내 사람들에게 왕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윤의선과 혼인한 뒤에도 서체를 익힌 결과,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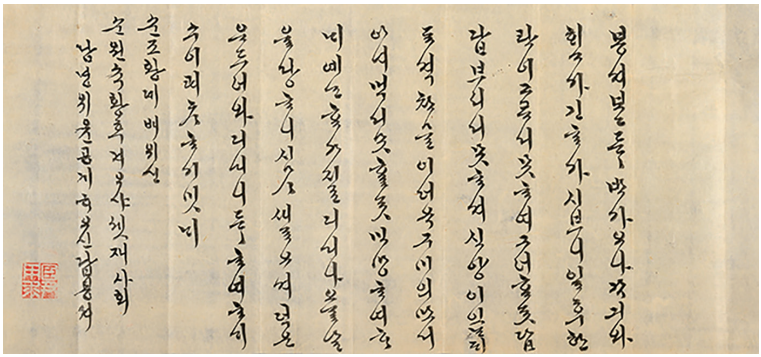
덕온공주가 쓴 「자경전기」. 자경전(慈慶殿)은 1777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홍씨를 위해 창경궁의 양화당(養和堂) 옆 작은 언덕에 지은 전각이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한문으로 된 『자경전기』는 순조가 어머니 효의왕후의 명을 받들어 1808년에 지었다. 이 글을 순조의 비 순원왕후가 딸 덕온공주에게 명하여 원문에 토를 달아서 한글로 쓰고, 이어서 우리말 번역문을 적게 하였다. 단아한 한글 글씨는 덕온공주의 친필이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편의 한글 편지와 「자경전기」, 「춘련」 등 아름다운 필체의 한글 서예 작품을 남겼다. 덕온공주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궁체 글씨는 당대 한글 서예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7] 2019년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공유, 글시 뎍으시니: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2019. 4. 25. ~ 8. 18.)에서는 덕온공주가 사람들, 즉 조선왕실과 윤용구, 윤백영 등이 쓴 약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의 한글 작품들 400여 점이 공개되었다. 조선의 마지막 공주라는 칭호에 담긴 무게를 실감할 수 있는 전시였다.

한글 작품 외에도 덕온공주가 남기고 간 것들은 많다. 덕온공주가 입었던 당의 · 의복 · 유물이 각각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 제211호, 제212호로 지정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들은 앞



덕온공주가 쓴 『규훈(閨訓)』. 덕온공주가 『규훈』 「외편(外篇)」 독륜(篤倫)의 '봉선장(奉先章)'과 '교자손장(敎子孫章)'의 우리말 번역문을 단아한 궁체로 적은 것이다. 부녀자가 지켜야할 덕목이나 예절 등을 기록하였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순원왕후가 사위 윤의선에게 보낸 편지. 윤의선이 감기와 기침을 심하게 앓아 걱정하고, 덕온공주가 궁에 들어와 있어 든든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서 소개한 공주가 남긴 한글 편지나 한글 작품과 마찬가지로 공주의 손녀이자 윤용구의 딸인 사후당 윤백영尹伯榮(1888~1986) 여사가 갈무리해 둔 것들이다. 19세기 전반 왕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자료이다.

장위산인 윤용구

장위동 남녕위재사는 '윤용구 대감집'으로도 널리 알려져 왔다. 윤용구는 1853년(철종4)에 출생하였고, 1939년에 사망하였다. 본관은 해평이고, 자는 주빈周賓이며, 호는 석촌石村, 해관海觀, 수간睡幹, 장위산인藏位山人 등 여러 개를 사용했다.

윤용구는 덕온공주가 세상을 떠나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윤의선의 양자가 되었다. 윤용구는 두 번 결혼을 했는데, 첫째 부인은 광산 김씨였으

나 광산 김씨와 사별하고는 연안 김씨를 맞아들였다. 광산 김씨가 남긴 자식은 없고, 연안 김씨 사이에서 첫째 윤백영 여사가 태어났으며 2남을 더 출산하였다.

윤용구는 1867년(고종 4) 15세 나이로 종7품 돈녕부직장에 임명되며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돈녕부는 왕실의 친척을 대상으로 한 관청이다. 이러한 관직을 맡은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윤용구는 윤의선의 양자가 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윤용구는 19세이던 1871년(고종 8)에 별시 병과 16위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고종은 덕온공주의 아들과 덕온공주의 언니인 명온공주의 손자가 같은 날 과거에 합격하자 크게 기뻐하여 경축하였다고 실록에 전한다.

덕온공주와 윤의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윤용구는 왕실과의 두터운 교분을 쌓았으며, 홍문관 교리를 시작으로 이조판서, 궁내부대신, 장례원경 등 고종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윤용구의 부인들 또한 왕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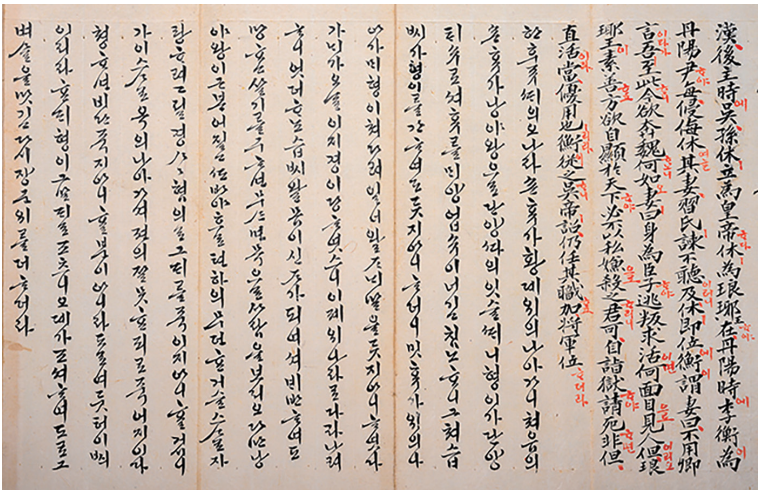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은 윤용구의 관직생활의 분기점이었다. 갑오개혁을 일본에 의해 왕권과 국가의 자주권이 침해 받은 일로 여긴 그는 갑오개혁 이후 여러 차례 고위 관직에 임명되었음에도 이를 사양하고 장위동 남녕위재사에 머무르며 국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앉았다. 다만 고종이 정치적으로나 신변상 위험에 처했을 때 보필하고자 임시직을 맡아 처리했을 따름이었다.

1895년 4월 윤용구는 중추원 의관직을 사직하였는데 몇 개월 뒤인 8월 20일 일본공사 및 낭인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는 '을미사변'이 일

어났다. 다음 해인 1896년 2월 고종이 아관파천 직후 탁지부대신에 임명하자 몇 차례 사직상소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해 4월부터 출사했다.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어하던 1897년 2월 다시 사직하였는데, 대한제국 선포를 앞둔 몇 개월은 국사에 헌신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0월 12일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자 스스로의 임무를 마쳤다고 여긴 윤용구는 사직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다음 해에도 고종은 윤용구를 불렀고 윤용구는 1899년 3월 다시 사직상소를 올렸다. 지루한 임명과 사직을 반복하였지만 또 다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당하자 출사하여 황제를 성심껏 보필하였다. 그러나 1907년 7월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 당하고 순종황제가 즉위하자 잔무를 처리한 다음, 사직하고는 다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윤용구는 고종의 명에 응하여 끊임없이 사직상소를 올리고 때로는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기도 했지만 1907년 황제가 강제퇴위를 당할 때까지 집요한 부름에 응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진퇴를 거듭했다. 그러니까 윤용구의 완전한 은거는 고종황제의 퇴위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8]

1908년 6월 경릉 표석의 서사관으로 차출되어 소임을 다한 윤용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임무를 맡지 않았다. 그러나 1909년 윤용구는 고종의 명으로『정사기람正史紀覽』을 궁중 여성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하여『뎡ᄉᆞ긔람』을 바쳤고 고종은 1910년 8월 4일 팔괘장을 하사하였는데 윤용구로서는 이것이 국가로부터 받은 마지막 훈장이었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일을 당한 이후 일본 왕이 그 해 10월 7일 윤용구에게 남작 작위를 수여하자 "완민頑民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위를 거절하였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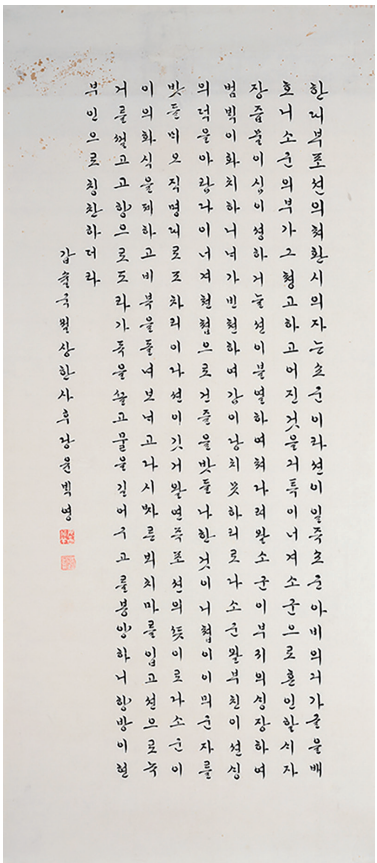
갑오개혁 이후 남녕위재사가 있는 장위동에 나아가 머물며 은일지



윤용구가 쓴 「여사초략」. 윤용구가 중국 역사에서 모범적인 여인 30명의 행적을 사람별로 나눠서 한문으로 먼저 적고 행간에 붉은색으로 토를 달았으며, 이어서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다. 표지에 윤용구가 친필로 '己亥十月石村退士書示女兒(기해년 10월에 석촌퇴사가 딸 아이에게 써서 보여 준다.)'라고 적어 놓았다. 기해년은 1899년으로 윤용구가 12살 되는 딸 윤백영에게 써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사隱逸之士의 길을 걸으면서도 윤용구는 왕실의 종척으로 왕실의 크고 작은 일에 집사로 나섰고 또 음악과 미술 분야에 전념하였다. 음악 분야에서는 1912년 5월 조선정악전습소 휘금 교수로 잠시 나갔고 미술 분야에서는 1915년 동양미술전람회에 출품하였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단체나 기관 주최의 행사에도 불참함으로써 공식 활동을 중단하였다. 다만 남아 있는 여러 「합작도合作圖」에 보이는 바처럼 당대 미술계의 중심 안중식, 민족운동의 핵심 인물이자 서화가 오세창 등 예인들과 교유하고 또 전국 각지의 뜻있는 이들이 청해 오는 서화 주문에는 인색하지 않았다.[10]

장위동을 근거지로 한 은일지사로서의 삶은 1939년 그가 별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주민들 사이에 전하는 말에 따르면 남녕재 문 밖에 큰 섬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곳은 당시 관직의 고하에 따라 하마下馬하는 곳이었



윤백영이 쓴 「환소군전」. 윤백영이 47세 되던 1934년에 환소군(桓少君)의 전기를 궁체로 쓴 작품이다. 윤백영은 한글 궁체로는 처음으로 조선미술전람회(1929년, 1931년)에 입선하였으며, 전통적인 한글 궁체가 현대의 예술 작품으로 연결되는 과도기에 가교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다고 한다. 또 장위동 사람을 잡으러 왔을 경우나 죄인이 장위동으로 잠입했을 경우 전 판서 윤용구 대감의 허락 없이는 체포할 수 없었다 한다. 또 장위동에 대해서도 윤용구는 동명을 반드시 '장위藏位'라고 썼다 한다. 이것도 윤용구가 모든 벼슬을 거절하고 은거했다는 뜻으로서 상통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윤용구의 아호가 '장위藏位'인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11]

다음에 인용한 신문기사들은 장위동에 은거할 당시 윤용구의 충절, 예술, 학문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세간에 전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전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윤용구(尹用求) 씨와 문장(文章)

해관(海觀) 윤용구 씨는 홍진고해(紅塵苦海)를 탈각(脫却)하여 노송고삼(老松古杉)이 울울창창(鬱鬱蒼蒼)한 동소문 외 월곡리 남녕위궁(南寧尉宮) 묘소 일우(一隅)에 별업(別業)을 치(置)하고 수년 이래 풍월을 반(伴)하여 유유자적하니 실로 신선도(神仙圖) 중의 일인(一人)이로다.

씨는 조선 현대의 서가(書家) 중 굴지의 인(人)일 뿐더러 산수(山水)를 능화(能畫)하여 일가를 성립한 인(人)이며 또한 씨는 왕년에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언역(諺譯)하되(『뎡ᄉᆞ긔람』을 가리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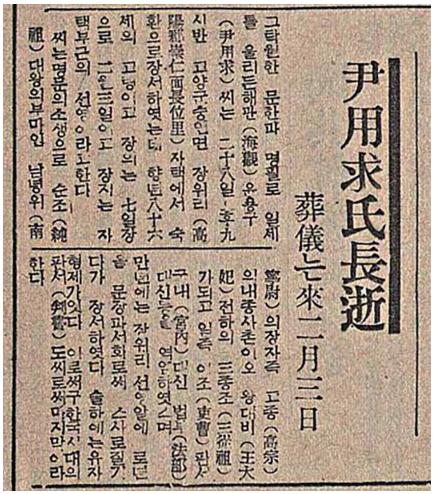


「윤용구 씨와 문장」『매일신보』1915. 1. 20.

다.) 삼사차 개삭(改刪)하여 완성 후 이왕(李王) 전하(순종황제를 가리킨다.)께 헌상하여 이 진적(珍籍)은 이왕가(李王家)의 일보물(一寶物)로 비장(祕藏)하셨다는 설(說)을 들었으니 씨의 경학(經學)과 문장(文章)은 이로써 알 수 있다.

씨에 관하여 일진담(一珍談)이 있으니 씨는 서화(書畫)의 소청(所請)이 있으면 비록 천백장(千百張)이라도 사절(謝絶)치 아니하되 문장(文章)은 단불착필(斷不着筆)하는 일이라 그동안 씨에게 비문(碑文)과 명문(銘文)을 청한 자도 있었으나 모두 응하지 않으므로 무료히 귀거(歸去)하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내사(內査)한 즉 구한국시대(舊韓國時代)에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임명된 일이 있었는데 홍문관은 궁중도서(宮中圖書)를 관장하는 곳이요, 예부터 유명한 석학을 임명하는 전례라 이에 씨의 자격이 적당하다고 하여 임명하였는데 씨는 불감당이라 겸손하고 물러나 사직소를 올려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서화는 농(弄)하여도 문장은 일생부작(一生不作)이라 결심한 것이 분명하였다 하며 씨는 현대 조선인(朝鮮人) 중 희유(稀有)의 장서가(藏書家)라 그 고서진적(古書珍籍)이 한우충동(汗牛充棟)이라 하니 현금(現今) 조선의 고서진적이 그 그림자도 남지 않게 된 것은 차제에 씨와 같은 장서가가 상존(尙存)함은 오인(吾人)의 찬하(攢賀)를 불금(不禁)하는 일이로다.

—『매일신보』1915. 1. 20.



尹用求氏長逝

葬儀는來二月三日

그탁월한 문한과 명필로 일세를 울리든해관(海觀) 윤용구(尹用求)씨는 二十八일 午九시반 고양군숭인면 장위리(高陽郡崇仁面長位里) 자택에서 숙환으로장서하였는데, 향년八十六세의 고령이고 장의는 七일장으로 二월三일이고 장지는 자택부근의 선영이라고 한다 씨는명문의소생으로 순조(純祖)대왕의부마인 남녕위(南寧尉)의장자즉 고종(高宗)의내종사촌이오 왕대비(王大妃)전하의 삼종조가되고 일즉 이조(吏曹)판서 궁내(宮內)대신 법부(法部)대신등을 역임하였으며 만년에는 장위리 선영아래 노년을 문장과서화로써 스사로 즐기다가 장서하였다 슬하에는 유자형제가있다 이로써구한국시대의 판서(判書)도 씨로써 마지막이라 한다

「윤용구씨 장서」『매일신보』 1939. 1. 31.

윤용구(尹用求) 씨(氏) 장서(長逝)

그 탁월한 문한과 명필로 일세를 울리든 해관(海觀) 윤용구(尹用求) 씨는 28일 오후 9시 반 고양군 숭인면 장위리 자택에서 숙환으로 장서(長逝)하였는데 향년 86세의 고령이고 장의는 7일장으로 2월 3일이고 장지는 자택 부근의 선영이라고 한다.

씨는 명문의 소생으로 순조대왕(純祖大王)의 부마인 남녕위(南寧尉)의 장자 즉 고종(高宗)의 내종사촌이오 왕대비(王大妃) 전하의 삼종조가 되고 일찍이 이조(吏曹)판서, 궁내(宮內)대신, 법부(法部)대신 등을 역임하였으며 만년에는 장위리 선영 아래 노년을 문장과 서화로써 스사로 즐기다가 장서하였다. 슬하에는 유자형제가 있다. 이로써 구 한국 시대의 판서(判書)도 씨로써 마지막이라 한다.

—『매일신보』 1939. 1. 31.

(백외준)

사후당 윤백영의 손녀 유선을 만나다

사후당 윤백영은 서예가이자 전통 궁체宮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힘썼던 인물로, 석촌 윤용구의 딸이다. 석촌 윤용구는 당대 명필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덕온공주와 부마 윤의선의 아들이다. 이들 모두 장위동 부마가옥(현 진흥선원)에 살았다.

2019년 5월, 해외에 거주중인 윤백영의 손녀 유선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선대의 흔적을 다시금 찾기 위함이었다. 성북문화원은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장위동에 살았던 선조들의 이야기, 그들이 남긴 것들과 거기에 담긴 정신, 그리고 계승해야 할 것들까지 알 수 있었다.

덕온공주와 장위동에 대하여

김성일(지음건축도시연구소 연구원, 이하 김): 작년에 장위동을 조사하다 보니 지역에서 윤용구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계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장위동 일대가 삼성 쪽(동방생명보험회사)으로 넘어가면서 70년대 비교적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들어섰고, 그래서 오늘날 장위동이 되었고요. 그런데 윤용구 선생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분이 초야에 묻혀 계셔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한 당대의 인물이었고 글이면 글,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면 음악 다 일가를 이루셨던 분인데 시대를 워낙 잘못 만나셔서 그

런 거를 전혀 펼치실 기회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작위를 거부함으로써 일제에 영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거든요. 당시 일제의 위세가 굉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거는 자기 신변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하셨다는 건 굉장히, 이분이 비록 초야에 묻히셨지만 그러한 기백은 분명히 있으셨던 선비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구 선생을 조사하다 보니 또 덕온공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작년에 덕온공주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장이 미국에 경매로 올라왔다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언론에 언급되었어요. 이번에 한글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또 재작년인가 고궁박물관에서도 한 번 전시를 했었고요. 덕온공주에 대해서도 조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다 보니까 덕온공주의 묘가 장위동에 있다고 많은 기사에서 인용하더라고요.

만약에 공주의 묘가 있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자산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도저히 공주의 묘가 보이지도 않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50년대 항공사진에 분명히 그 공주의 묘로 추정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이쪽 코너에 '김진홍 가옥'이라고 부마 가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무덤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거리가 조금 되긴 하는데 집에서 나오셔서 요까지 이 오솔길로 걸어가서 묘를 이렇게 한 번 둘러보시고 오신다던가, 그래서 이 지역은 묘



1954년 장위동 덕온공주 묘소와 남녕위재사를 촬영한 항공사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나무 울타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자꾸 주민분들께서도 여기 소나무 울타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묘가 겹치니까 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도로 자리가 이 묘 위로 지나가거든요?

유선(윤백영의 손녀, 이하 유): 50년도에는 제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냥 있었어요.

김: 60년대쯤에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60년대 이 땅이 동방단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땅 전체가 넘어가고 개발이 이뤄지면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니까 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로가 지나가고 하면서 일단 원래 위치에서는 옮겨진 거 같고, 이쪽에 보

시면 덕온공주 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덕온공주 묘가 있는데 지금 이 묘는 용인 쪽으로 이장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유: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온 거예요. 저희 조부모께서 덕온공주마마 분하고 부친 석촌 윤용구 대감님 묘가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애를 태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 이번에 오면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말이죠.

김: 네. 덕온공주님에서부터 윤용구 선생 또 윤백영 여사님 이렇게 3대가 전해오는 문화적인 측면들도 부각이 되어야 하고 또 마지막 조선왕조의 공주라는 부분과 한말 선비의 모습을 지키신 윤용구 선생님이 개별적으로도 조명이 될 필요가 있는데, 또 이 묘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유: 저는 지금 여든이 되어가면서 저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실천하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장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모께서 하도 애를 타셔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제 조모한테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시니 저는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이하 백)**:** 저희가 정말 좋은 말씀 듣게 돼서 기쁘고요. 공주릉이라고 해서 저희 장위동 사람들, 성북구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찾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드림

랜드가 이렇게 생기기 전까지 소풍 장소로 굉장히 많이 찾던 곳입니다.

유: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가면 가끔 아이들이 원족遠足을 오더라고요.

김: 네. 소풍의 일본말로.

백: 옛날 우리 장위동의 옛 기억을 살리는 데에도 여사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 모든 시대가 많이 변천하죠.

백: 예.

유: 집안도 변천하듯이 모든 게 다 같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유선 개인에 대하여

백: 저희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여사님의 성함과 출생 연도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 제 이름은 워낙에는 유선입니다. 저희 항렬이 외자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적에 일본 시대였었답니다. 1939년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손녀딸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는 경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절에서 스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지께서 저희 할머니께 속삭이시더래요. 제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뭐 다 꼽아보더니 "마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

게 기다리던 손녀인데 이 손녀가 아무래도 외국 사람한테 시집갈 것 같습니다." 하하. 저희 할머니가 너무너무 놀래셔서 그 시절에는 일본 시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내 손녀가 왜놈한테 시집을 가면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유선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가셔서 '유'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유유선. 왜냐면 성이 없어지니까 집안이 큰일 난다. 그래서 제 이름이 유유선으로 바뀐 겁니다. '유'자를 하나 더 했습니다.

석촌 윤용구 대감의 글씨에 대하여

유: 제가 65년도에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에 팔자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너라도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해라. 망한 국가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8.15 이후에 밤낮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해를 하고 누가 남겠느냐 말이야. 전쟁도 험악하게 끝났고. 네가 미국 들어가서 너라도 살아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러고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주자왈 10계명을 써주셨다고. 하루에 10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라 말이야.

그러시면서 제가 비행기 타는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친(증조부 윤용구)께서 아마 지금 생각에 1910년 아니면 1920년 사이였어요. 그때 선친께서 동양 서도전에 나가셨다가 일

등을 하셨다는 거예요. 석촌 대감께서. 그러는데 영국 공사가 오셔서 친히 부탁을 하시더래요. 서도 하나 좀 글을 써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저희 증조부께서 궁금하셨겠죠. 왜 이런 나의 글씨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증정하고 싶다고 학생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번에 며칠 후에 또 미국 공사가 찾아왔더래요. 대감님 나한테도 한 장 써주십사 하고. 그래서 당신 뭐를 하려고 이걸 쓰느냐 그랬더니 내가 콜롬비아 대학에 증정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박물관에 보내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정말 보관을 해서 박물관에 보냈는지 그거를 버렸는지 한번 찾아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미국만 가면 뭐든 쉬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하. 그때나 알아본다는 것이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게 복잡했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손녀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랜마grandma 당신이 밤낮 얘기하던 증조부 글씨가 우리 하버드 대학 박물관에 있다 말이야. 꼭 그분 같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낼 테니 한번 봐라 말이지. 보니까 저희 증조부 글씨예요. 다음번에 그러면 네가 그걸 찾았으면은 한번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옥스퍼드 대학에서 브리티쉬 뮤지엄British Museum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백: 실제 그 글씨를 확인하셨어요?

유: 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스토리도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윤용구 대감이 국가가 쓰러지면서 장위산으로 들어가서서 석촌에서 아, 제일 먼저 일본… 조선총독으로부터 작위를 보냈는데 선물하고 돈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딱 네 자로 쓰셔서요.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고 네 자를 쓰셔서 그 모든 거를 즉시 다음날로 돌려보내셨답니다.

윤용구 대감이 남녕궁(현 진흥선원)으로 가게 된 사연에 대하여

유: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있으셨어요. 조선 말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혁명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원군파. 그 다음번에 명성황후 쪽.

백: 임오군란도 있었고.

유: 네. 사실상 일본이 들어와서도 물러났지만 그 전에요. 갑신정변 때 개경 저 재동 쪽에요. 그때는 재동 쪽에서 계셨답니다. 그 당시에 그 궁이 그쪽에 있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적에 윤용구 대감도 그때 대궐에서 일을 하셨지만 선친도 그때 윤의선 고조께서도 거기서 일을 하시니까. 지금 현대 자리에 또 궁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 그리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벌써 길에 그냥 피가 낭자하더래요. 그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때는 가마 같은 걸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무서워서 문 근처에 오더니 뭐 벌벌벌 떨고 들어가질 못하

시더래요. 윤의선 대감께서 호령을 치면서, 왜 못 들어가느냐. 지금 저 안에서 사람 죽는 소리가 나고 피가 낭자하고 그래서 대감님 너무 죄송하지만 위험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죽여도 우리 부자를 죽이지 너를 죽이겠느냐. 고종께서 부르시고 명성황후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내가 안 가느냐.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팔은 팔, 다리는 다리, 머리는 머리 어떻게 사람을 처참하게 살인을 했는지 거의 쓸 만한 사람은 거의 다 잡아다가 처참하게, 그때 살인 장면은 말할 수도 없더래요. 윤의선 대감께서 보시면서 "아들아,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저렇게 쓸 만한 사람이 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니 누군들 살아나겠느냐.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장래는 없다, 이 나라는." 그러시면서 "너는 지금서부터 조정에서 나올 준비를 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때서부턴 이분은 글을 쓰시겠다고 물러날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시고 난 뒤에 아마 석촌 윤 대감께서 고종 황제께 항상 "저는 글을 좋아하니 글을 쓸 기회를 주십시오. 물러나겠습니다."

석촌 대감께서 명성황후하고 굉장히 친하셨어요. 누이동생처럼 굉장히 가까우셨대요. 좋은 책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하도 물러나시겠다고 그러니까 고종 황제하고 명성황후께서 청탁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 나라가 너무 정세가 이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명성황후하고 대원군 싸움 아닙니까.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황후 어른 분한테도 교육을 시키자

말이야.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 한자가 힘들고 너무 어렵고 특수한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문으로 교육을 시키자 말이지. 그래서 오천년 역사를 언문으로 좀 써주십사 해서 『정사기람』을 쓰게 되었어요.

조선, 이 나라를 이완용 씨가 전부 넘겨주고 있었잖습니까. 이완용 씨가 이쁜 눈으로 봤겠어요? 이 분이 맨 첫 번에 받아서 그 분만 받으시면 나라가 그냥 쉽게 넘어갈 텐데 이분이 싫다고 거절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 이완용 대감이 그때 순종 황제가 생존해 계실 땐데 어떻게 구했는지 남녕궁南寧宮(윤의선 부마 가옥)을 재동에 있던 거를 이완용 씨가 뺏었어요. 누가 귀띔을 드리더래요. 윤용구 대감께서 여기 계속해서 계시면은 생명을 보존을 못 하시고 모든 걸 다 잃으시니까.

바로 그 직전에 3·1운동이 일어났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 계셨었대요. 왜 탑골공원 멀지 않잖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그 집 대궐로.

백: 윤용구 대감 댁으로.

유: 네. 대감댁으로요. 그래서 다 잘 보호를 하시는데 아마 젊은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랬겠죠. 조선 총독에서 특히 와서 부탁을 하시더래요. 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대감 신변이 위험하시니까 우리한테 내놓아달라. 보나마나 그분이 그렇게 내놓으시겠어요?

그 이후에 조심조심해서 장위동 석촌으로 다 이사를 가신 거예요. 거기는 옛날에 선산이었기 때문에 산소를 가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곳이라고요.

장위동 남녕궁 앞에 큰 연못이 있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희가 겨울에 스케이팅을 타러 갔어요.

백: 겨울방학에 그렇게 타고 그러셨나 봐요.

유: 겨울방학에, 네.

백: 아까 성 안에 궁이 재동에 있었다고…

유: 네. 재동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석촌 대감께서 장위동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이사 후에 이완용 씨가 들어왔어요.

박정숙(경기대학교 서예과 교수, 『조선의 한글편지』 저자, 이하 박)**:** 재동은 저동 궁 아닌가요?

유: 아니에요. 그것도 뺏었지만 이것도 뺏었다고요.

그런데 3·1운동 날 당시에 재동궁에 계셨었다고요. 석촌 대감의 정경부인 되시는 분이, 저희 증조모님입니다, 그분이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석촌 대감께서 3·1운동에 도망 왔던 사람을 한 명도 안 내치고, 이완용 씨가 화가 날대로 화가 났었다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뺏고 난 뒤에 국민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에 불을 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백: 그러면 그때는 장위동과 이렇게 재동궁을 이렇게 오가시면서 지내시던 때였나요?

유: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너희 위험하다고 아무래도 대감께서 몸을 움직이시라고. 근데 그분께서 장위동으로 가실 적에 3·1운동 하던 학생들을 다 먼저 보내고 다 몸을 다 보호해주고 남녕궁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장위동에 계실 적에 남녕궁 근처에는 순사가 그 근처에 와도 대감 댁에는 못 들어왔대요. 수색을 못 했대요.

백: 그럼 많은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유: 많았대요. 독립자금 이런 거 하시는 분을 많이 뒤에서 도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경부인께서는, 어렸을 때 "증조할머니, 어째 은비녀 하나 없습니까?"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다른 사람 보면 은비녀도 끼고 금비녀도 끼시는데 그랬더니 그런 중요한 폐물은 대감께서 다 해가지고 독립자금 하는데 감춰뒀다가 많이 뒤로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백: 그러면 석촌 대감께서 남녕궁에 사실 때 대감께서는 주로 사랑채에 계시고 그리고 정경부인께서는 안채에 계시고…

유: 네. 제가 태어났을 적에는 석촌 대감께서 벌써 운명을 하셨을 때에요. 주로 이 얘기는 정경부인께서 말씀해주시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선친께서 이야기 해주시고 저희 큰오라버니님〔유형〕이 생존하셨으면 더 잘 알죠. 201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밤낮 거기서 자라다시피 했으니까. 저보다 열 살이 위니까.

원서동 거주 당시 할머니 윤백영과 장위동에 가던 기억에 대하여

박: 맏손자 분[유형]만 한국에 계시고 나머지 손자 손녀분 아홉 분은 다 미국으로 가셨어요.

백: 서울에 계실 적에 댁은 어디셨어요?

유: 원서동 234-15. 대궐 바로 옆에 현대건설에서 한옥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바로 그 뒷집이었어요.

백: 거기서 어머님이랑 다 같이 사신 거죠?

유: 네. 저희 할머니랑. 그러니까 거기를 이사 간 또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에는 안국동 36번지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저희 어머니[김계숙]께서 안국동으로 시집을 오셨는데 아, 사랑에 젊은 청년들이 십여 명이 밤낮 드나드는데, 옛날에는 부인이 감히 바깥에를, 사랑을 맘대로 못 기웃거린다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아니, 웬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서방님 친구십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하루 난리가 났더래요. 집안에 막 순사가 들어닥치고. 저희 할아버지[유용준] 성격은 불같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불처럼 폭발하면 저희 할머니[윤백영]는 보슬비를 내려서 불을 끄시는 분이었다고 성격이. 그러셨는데 이 양반이 지팡이를 들고 나오시더니 막 순사들을 야단야단을 치고 가만히 일하는 사람보고 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느냐 그랬더니 순사가 젊은 사람이 들락날락 한 게 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말이야. 그래서 서류를 찾으

러 왔대.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온 거라고. 근데 며칠 전부터 그 사람들이 삼복더위인데 밤낮 종이를 태우고 군불을 피우더래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무슨 군불을 저렇게 피느냐 그랬더니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희 서방님들이 종이를 밤을 새고 불을 땐다 말이지. 저희 어머니는 그때 새색시셨으니까 모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서류들 다 불을 태우고 얼루 도망갔는지 싹 도망갔더래요. 순사가 왔을 땐 아무것도 없었대요. 안에까지 순사가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다 칼 가져와서 베개까지 자르고 이러는데 조사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나서서 지팡이를 들고 아마 순사를 좀 때려줬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저희 할아버질 잡으러 오셨더래요. 그래서 도망을 가신 곳이 장위동 석촌 대감 그 집은 못 들어가시고 그 근처로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신했다가 무서우니까 안국동 집은 나중에 서서히 처분하고 워낙 또 집도 컸고 그래서 원서동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백: 그러면 원서동에 계실 때 장위동 가실 때는 주로 어떻게 가셨어요?

유: 아마 제가 알기에는요, 미아리 못 미처까지 전철이 갔던지 버스가 갔던지 미아리까지는 못 갔습니다. 삼선교 조금 더 지나서 있었나봐요.

백: 전차가 돈암동까지만…

유: 네! 돈암동까지 가고 할머니하고 걸어가든지 그렇지 않

으면은 뭐 그때 뭐 전화가 있어서 연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아리 지나고 나면은 돌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중—中 선생님[김충현][12]의 땅이었었다고요. 고거를 이렇게 지나면 누가 마차 같은 거 가는 사람이 할머니하고 저를 태워줬다고요. 벌써 할머니가 가시면 어유, 마님이 오시느냐고, 궁에 들어가시느냐고…. 그런데 그건 좋은 날에 사람을 만나서 타고 갔고. 그 당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멀다 이런 걸 몰랐어요. 너무 가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노는 게 좋아가지고.

백: 그럼 주로 어떤 날 가셨습니까?

유: 주로 무슨 제삿날, 생신날 또 돌날, 정경부인 증조모 생신날 그런 날은 반드시 가고 덕온공주마마 제삿날, 부마 제삿날 또 그 위에 분 제삿날.

박: 집안에 조경사가 있을 때 가셨네요.

유: 네. 또 일요일 같은 날은 날씨가 좋고 그러면 항상 할머니께서 가자 그러면 제가 쫓아 나섰어요.

백: 나들이로 가시고 그러셨구나.

유: 그리고 방학 때. 방학 때는 거기 가서 시간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가면 저희 오빠들하고 같이 스케이팅을 타는 데서 스케이팅을 탔다고요.

글을 좋아하셨던 할머니 윤백영에 대하여

백: 윤백영 여사님에 대해서 이번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덕온공주님 유물이나 석촌 대감 유물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계시다가 박물관으로 기증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그런 유물들은 보시거나 아니면 설명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 저는 골치 아플 정도로 봤죠. 할머님께서 곰팡이 난다고 늘어놓으시면은 치우는 거는 저희 일이니까 말이죠. 그 냄새 나는 거 마룻바닥에 쭉 늘어놓으시고, 저희 남자 형제들 맘껏 뛰어다니면 저희 형제들이 걸음마 배울 적에 별거 다 만져도 괜찮은데 뭐든지 글씨 있는 거 만큼은 못 지나게 못해요. 그걸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양반이 자기 글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그 윗대의 편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에 가면 신문지를 잘라서 썼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그러는데 그거마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안 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아주 속심으로 굉장히 중요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놀다가도 이 종이를 보면 그 위를 못 밟고 간다고요. 어디를 가서나.

그 시대 저희 할머니가 태어나시던 시절에, 그러니까 1888년에 태어나셨는데 그 시대는 여자가 글을 배우면 누구도 안 데려가요, 며느리로. 근데 이 분이 3살서부터 아버지〔윤용구〕 아침 인사를

들어가면요, 상궁하고 같이 그 궁에서 들어가시면 저희 할머니께서 점심이 지나도 안 들어오시더래요. 정경부인(연안김씨), 증조할머니 말씀이.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죽겠더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경부인이 그렇게 사랑을 맘대로 남편 방이라고 쑥쑥 못 들어가던 시절이었대요. 상궁하고 들어갔는데 아가씨가 안 가겠다고 떼를 쓰기 때문에 상궁이 어쩔 수 없이 한쪽에서 지키고 서 있는데 저희 증조부께서 글을 쓰면 어깨너머로 다 배우고 외우신 거예요. 3살서부터. 그러니까 저희 증조부께서 신기했겠죠. 쓰시고 나서 본인도 쓰고 싶다 그러면 붓을 주면 쓰니까 저희 증조부께서는 너무 너무 기특해서. 그 다음번에 5살이 됐을 적에 정경부인께서 왕후께 답장을 보내시려면요, 저희 할머니가 대필을 하셨대요. 워낙 글을 좋아하셨어요.

백: 그러면은 석촌 대감께서는 이렇게 선생님 역할을 이렇게 하신 거네요?

유: 그렇죠. 하도 배우고 싶어 하니까 사서를 다 가르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온공주의 삶에 대하여

백: 덕온공주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덕온공주께서는 어떻게 사시다 가셨는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 저희 할머니께서 덕온공주마마를 존경을 하셨어요. 저희

증조부 석촌 대감께서 굉장히 존경을 하셨나봐요. 그분께서 쓰신 글이며 이런 거 해서요. 근데 워낙에… 이분이 한 3세 됐을 적에 벌써 덕온공주 집안에서 모셔가려고 그랬었대요. 양자로. 그 생각을 하셨대요. 친부께서 아드님이 둘이셨거든요? 둘째 아들이 석촌 대감이셨는데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분이 아마 그 능能했었나봐요.

백: 총명하신 그런게…

유: 네. 덕온공주 대신에 유상궁이 계셨었는데 유상궁께서 아마 석촌 대감을 다 기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온공주마마의 책자를 다 내놓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진 그분이 많이 가르치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런 분들은 이런 글재주를 타고나신 거 같아요. 덕온공주께서 글을 참 좋아하셨대요. 그렇지만 세 공주 분 중에서도 그 분이 마지막까지 사셨으니까. 굉장히 공주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굉장히 글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순조 왕께서도 무척이나 귀여워하셨대요. 자손은 다 없으셨으니깐 안 그렇겠습니까?

공주는 절대적으로 부마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는 모든 걸 다 예복을 차리고 앉아서 기다리셔야 된대요. 공주에게 주어진 범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양반이 일찍 주무시고 싶어도 그걸 벗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에 쓰신 것도 많고 정좌를 하고 그러고 남편께서 사랑에서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한 시가 되든 두 시가 되든 세 시가 되든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도 그 분이 불이 안 꺼지면 주무시지를 못한대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책하고 앉아계셔서 그렇지 저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백: 그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공주라고 조금 다르게 사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유: 왜냐하면 그 법도가 보통 양반의 사대부보다 더 엄격했답니다. 아버지가 임금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아니면 오빠가 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도 때문에 아주 공주에 대한 거를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남녕위재사의 옛 모습에 대하여

백: 지금 그 집에 가보시면 이렇게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혼자 뒤에 별당이 있습니다. 별당은 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유: 한쪽에 조그만 집은 헐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별당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사당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백: 사당이요?

유: 네. 왜냐하면 아침이면 제를 지내는 게 많기 때문에… 제 기억으론 사당이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사당에 가시고 저녁이면 해가 지기 전에 또 한 번 가서 곡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백: 곡 하시고…

유: 네. 저희 증조할머니가 못 가시면은 그분의 며느님이 가

시고 그분의 손자들이 들어가서 사당에 들어가서 아침에 곡을 하고 나오시고 저희 할머니가 가시면 저희 할머니가 하시고요.

백: 그리고 진흥선원이 있으면 그 앞에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쪽까지 다 이렇게…

유: 그렇죠. 그쪽에도 다… 네. 훨씬 컸어요. 그 밑에 또 문이, 큰 솟을대문이 있고 그 다음번에 솟을대문하고 중문 사이에 또 좀 방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깐 일하는 분이 거기 계셨고 남자분이. 그리고 들어오셔서 광이 굉장히 큰 게 있었죠. 광이 아마 꽤 큰 광이 몇 개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중문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광이 있고 광에서 좀 들어오면은 사랑채가 있고 저희 증조부의 서재가 있고.

백: 그러면은 책이 좀 많이 있었나요 집안에?

유: 6 · 25전까지도 많았어요. 꽤 있었는데 6 · 25가 끝나고 난 뒤에 가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요.

6 · 25전쟁 당시 유실된 집안 유물에 대하여

백: 석촌대감께서 그림이나 글씨를 많이 쓰셨는데, 집 안에도 보관을 해 두셨습니까? 아니면 다 밖에 주셨습니까?

유: 6 · 25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요. 저희가 그 당시에 맘대로 남녕궁을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인민군이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서 그거 달라고 그랬다간 당장 대창칼로 살해를 당하죠.

백: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있는 물건들도 운반하지 않는…

유: 저희가 그 근처도 못가죠. 6·25때는. 그렇지 않아도 6·25라서 학교를 국민학교를 못간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렸을 때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갔더니 정경부인하고 정경부인의 두 손자분하고 며느님이 피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으로. 저희가 그런 물건 같은 거를 감히 얘기는 들었지만 할머니가 당시에는 노인네시니까 저하고 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오죠.

그리고 소문에 많은 밑에 사람들이, 하인으로 있던 분들이 전부 공산주의로 변천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깐 조심을 하시라고 누가 일러주더라고요. 인민군 공산주의로 변했고 전부 그러니까. 그럼 산지기 청지기 어딨냐,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청지기만 빼놓고 다 밑에 사람들이 공산주의인데 그 자녀들이 더 무섭다 말이야. 그 사람들 자녀들이.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좋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궁금하시니까 구태여 가셨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인민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장안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피난을 간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데 마지막 1·4 후퇴 때 서울을 다 비우라 그래서 서울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증조모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와보니까 그때는 전차도 없고 버스도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와서 보니까

남녕궁이 텅텅 빈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도 할 수 없이 피난을 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물이 좀 남았던 게 저희 이모께서 피난을 가는데 그분의 시누께서는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모댁을 지키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 집에 좀 갖다놓고. 그리고 6·25 때는 저희 책가방요. 할머니가 거기다 편지를 막 그냥 가득가득 넣고 작은어머니댁 뒷방에다가 갖다 놓으라 해서.

박: 그게 이번에 또 덕온공주의『자경전기』인데… 하하.

유: 그거를 책가방에 할머니께서 꽉꽉 우리들한테 책을 주고 그 뒷방에다 갖다놓으라 그래서. 조그만 골방, 뒷방이 아니고 골방. 그래서 거기 있던 게 살아나온 거죠.

백: 그렇게 살아남은 사연이 있네요.

석촌 윤용구, 사후당 윤백영이 물려준 정신적 유산에 대하여

백: 여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석촌 대감 또 할머니, 그런 분들로부터 물려받으신 정신적인 유산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유: 그분들 생각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제가 못 좇아가요. 이분들의 삶이라는 거는… 저희가 조찬이나 이럴 때 저희는 같이 상에 가서 같이 먹는 거를 생각을 못하죠. 그럼 저희 아버지 할머니하고 항상 겸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불평을 합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바보처럼 다른 사람은 다 받아가지고 누구 저기서는 기가 막히게 철철 잘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말이지.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정직한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선친하고 할머니께서 항상 저희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는 좀 이득이 없었지만 이렇게 참는 게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거다. 그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제가.

조선 민족이 단군 자손의 그 조선 민족이 참 좋은 사람이다 말이야.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국민이 아니다 말이야. 저희 아버지께서 법학을 공부하셨거든요. 저희한테 역사 얘기를 해주기를 유럽이나 다른 나라 봐라 말이지. 다른 나라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귀족이었다 말이야. 우리 다 살려줬으니까 우리가 고맙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우리 생명을 살려줬는데 우리를 끌어가서 죽이겠다는 말은 안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참자 그러시지 그거를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제 생각엔 저 양반들은 바보 천치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들은 틴에이저가 되고 그러니깐…

박: 윤백영 여사님 말씀도 하세요. 늘 창덕궁을 향해서 절하셨다고…

유: 평생을 창덕궁 장서각에 들어가실 때는 꼭 절을 하세요. 그다음 번에 종묘에다 대고 절을 하세요. 어쩌다가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보면 놀리는 거야. 오늘 말이지 유선아, 네 할머니 아직까지도 절을 하시더라 말이야. 하하. 거기 아무도 없는데.

백: 절을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유: 문 앞에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사람이 쌓이거나 말거나 나는 내 예의를 지키는 거지, 누구한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시면서 종묘사직에 전부 앞으로 국민이 잘 살게 해주십사 말이지. 다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다 잘 살게 해주십사 하고.

백: 기도를 하셨군요.

유: 거기다 절하시고 그런다고요. 그럼 저는 창피하다고 막 도망을 가죠. 아유, 할머니하고 같이 가다가 기절을 하고 누가 볼까 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일편단심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백: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옛날 그 진홍선원만 보고는 '아, 옛날 그냥 조선집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실 껍데기만 가지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내용을 가진 집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성북구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좋은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 아유, 정말 그래주세요. 석촌 대감께서 국민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청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요. 이분들 말씀이 청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면 한문이 힘들지

않습니까. 중국도 문맹인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망한 거다 말이야. 그러셔서 명성황후, 고종황제하고 그런 의논을 많이 하셨대요. 이 좋은 글을 두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좋은 우리나라 말을, 언문을 만들었는데 왜 안 쓰느냐 말이야.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국민을 교육시키자고 그러고 이 두 분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박: 여성 교육 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거죠. 그래서『정사기람』하고『동사기람』이 생긴 거예요. 역사를 이제 여자들이 알아야 된다. 궁중에 있는 여자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서 남겨서 궁중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내려서 만든 게『정사기람』이에요. 정사가 바로 중국 역사예요. 석촌 대감께서 5년간에 걸쳐서 그걸 완성했어요. 80권이에요. 그런데 윤백영 여사님께서 그중에서 19권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열아홉번째 권. 창덕궁에 그게 보관되어 있으니까 매일 창덕궁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책을 읽고 하시다 어느 날 보니까 6·25가 지나고 19권이 없어진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윤백영 여사님이 거기에 해당하는 역사를 직접 언해해서 똑같이 거기에 채워 넣은 거예요.

이거는『동사기람』이에요. 윤용구 어른께서 여자들이… 그동안 여성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효, 충, 열녀 이런 쪽만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동사기람』에 있는 내용들은 다 훌륭한 여성, 용감한 여성, 깨어있는 여성, 나라를 일으킨 여성,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

록 도와줬던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10권으로 만들었어요.

(정리 : 조성윤)

미주

1 백과사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에서 윤용구의 호를 '장위산인(獐位山人)'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 윤용구가 남긴 서화작품들에는 '장위산인(藏位山人)'이라는 호가 자주 눈에 띈다. '장위(藏位)'에 담긴 뜻은 그의 은둔생활과 잘 들어맞는다. 앞으로 윤용구의 '장위'란 아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 류성룡, 『장위동 부마의 한옥』,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0, 25쪽.

3 서울역사편찬원 편, 『서울 洞의 역사 : 성북구』4, 서울역사편찬원, 2018, 216쪽.

4 『순조실록(純祖實錄)』 권30, 순조 29년 3월 6일(경자).

5 국립한글박물관 편, 『덕온공주가의 한글』1, 국립한글박물관, 2019, 10쪽.

6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428책, 헌종 10년 6월 12일(정미). 언니 복온공주의 묘가 있던 지금의 북서울꿈의숲 남쪽으로, 현재 복온공주의 묘가 있던 곳 부근에는 창녕위재사가 남아있다.

7 국립한글박물관 편, 위의 책, 2019, 11쪽.

8 최열, 「석촌 윤용구, 학이 되어 천년 만에 돌아온 은일지사」, 『내일을 여는 역사』 47, 2012, 230쪽.

9 최열, 위의 논문, 2012, 231쪽.

10 최열, 위의 논문, 2012, 231쪽.

11 성북문화원 편,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216쪽.

12 김충현(1921-2006): 서예가. 호 일중. 복온공주와 부마 창녕위 김병주의 후손.



5장 | 석관동과 중앙정보부



석관동과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의 탄생

중앙정보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름이다. 수많은 정치공작과 간첩사건 등이 이곳에서 고문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내내 최고 권력기관이기도 했다.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자 일종의 비밀 조직이기도 했던 중앙정보부는 그 실체가 베일에 싸여있다. 조직의 규모, 구성, 예산 모두 알려져 있지 않다. 여러 사람의 회고와 증언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앙정보부'이다.

중앙정보부는 5·16 쿠데타 이후에 탄생했다. 쿠데타 직후인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꾼다. 법적 근거는 1961년 6월 6일 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1] 설치되었으며, '5·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2] 법적 근거가 있는 듯 보이지만, 기관이 먼저 생기고 법이 나중에 생긴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바로 이 '최고통치기관' 최고회의의 직속 기관으로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에 의해 탄생했다.

그 중심에 김종필이 있었다. 김종필은 쿠데타 1년 전부터 최고회의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고, 더불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권력기관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 별도의 기관이 바로 중앙정보부였다. 중앙정보부법에 따르면 설립 당시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기관이었으며,[3] '부장 1인과 기획운영차장, 행정차장 각 1인을 두고 지부에 지부장을 두며 본부와 지부에 수사관'이 있는 조직이었다.[4] 또한 '소관 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됐다.[5]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며,[6] 부장은 '제1조에 규정된 정보수사에 관하여 국가의 타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할 수 있었다.[7]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다.

실체는 더욱 알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조직의 소재지, 정원뿐만 아니라 예산 및 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 예산도 총액으로만 청구했으며, 심의조차 받지 않았다.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 대한 거부권도 있었다.[8] 그러니 전체 직원의 수도 분명하지 않았다. 제4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김형욱은 전체 인원을 2천명 가량으로 추산했지만[9] 37만명이라는 설,[10] 10만명~30만명 사이라는 설[11]도 있다. 그만큼 베일에 싸인 조직이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김종필이었다. 그는 쿠데타 직후부터 육사8기 등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중앙정보부법을 준비했으



위 사진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유럽 시찰 후 귀국하는 김형욱 국가재건회의최고위원을 영접하는 사진이다. 김형욱은 1963년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한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진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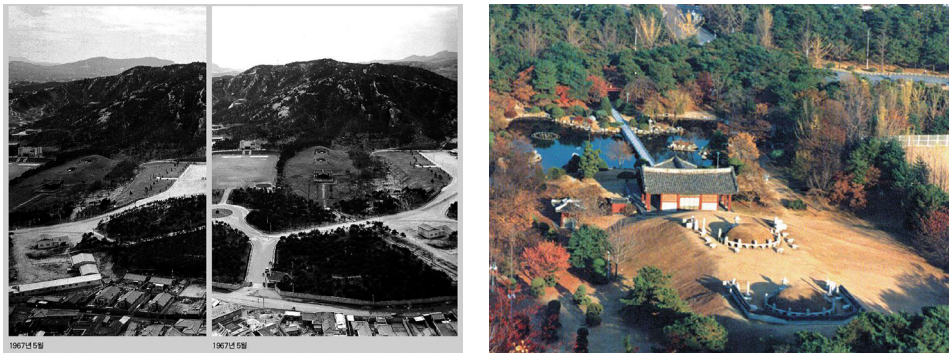
며[12] 당시 CIA 한국지부장 피어 드 실바Peer de Silva에게 자문을 받았고, 이 후락을 통해 정보조직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13]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을 충원한 것도 김종필이었다.[14] 이런 조직 구성은 훗날 다른 부장들이 중앙정보부를 장악하는 것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 거대한 미지의 조직이 - 사전준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 매우 소수의 손에서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석관동과 남산

보통은 '남산'의 청사가 잘 알려져 있어서 중앙정보부 하면 남산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본청은 성북구 석관동 산1-5번지, 현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지에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시작은 서울 중심부였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두 명의 차장은 서울 태평로에 있는 국회 제3별관을 사무실로 사용했다. 2국은 남산 북쪽 숭의학원 인근에, 3국은 무교동 서린호텔 자리에, 서울 분실은 남산3호 터널 입구 사무실을 사용했다. 창립 초기라 6개의 국과 실이 모두 들어갈 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보안상의 이유로 다 모아 둘 수도 없었다. 곧 본청을 만들 곳을 찾았다. 석관동 자리는 이영근이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다니다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관동 본청 자리는 의릉이 있어 넓은 부지가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었다. 이 본청 건물에서는 주로 자료 수집·보관, 교육·훈련, 해외 업무 등 배후 기능을 담당했다.[15]

남산 청사는 중구 예장동 4-5번지 일대에 있었다. 이 남산 청사에서 정치공작, 대공업무 등 이른바 '핵심업무'를 담당했다. 부장을 비롯한 차장 등 핵심 인사들도 본청보다는 주로 남산 청사에 머물렀다. 대통령이 부르면 달려가기 편했기 때문이다. 1972년 남산 본관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당시까지 40여 동의 건물을 사용했다. 공포의 남산시대는 이렇게 막을 열었다.

하지만 양쪽의 업무가 확연히 갈라진 것은 아니었다. 석관동 청사에서도 고문이 자행됐다. 동백림사건의 당사자들이 끌려간 곳 역시 남산과 석관동 청사였다.[16] 후술하겠지만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곳도 석관동 본청의 강당이었다. 그러니 '핵심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도,



중앙정보부가 건설된 이후 의릉의 변화 모습이다. 왼쪽은 1967년 5월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1980년대의 모습이다. 중앙정보부가 정자각 앞에 연못을 조성하고 의릉을 정원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VI)

본청 직원들의 기세도 대단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술을 먹고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도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술을 마시고 담벼락에 소변을 본 사람들을 직원들이 구타하는 일도 있었다. 주민들은 석관동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를 중앙정보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17] 개발이 아니라 미개발의 근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당시 기세등등한 중앙정보부의 본청이 석관동에 있었고 이곳의 미개발, 직원들의 행패 등을 포함하여 석관동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주민들의 믿음과 기억은 실재하는 '사실'이다.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

무소불위의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은 실로 다양하다. 간단히 그 종류만 언급해도 외교부터 대북 접촉 및 대공 업무, 언론 관리, 정치 공작 및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대통령의 사생활 보좌 등으로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외교문제부터 살펴보자. 1961년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은 박정희의 밀명을 받고 한일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갔다. 최고회의에도 알리지 않을 만큼 비밀스러운 일이었다.[18] 이후에도 중정은 한일회담 막후 협상에 일부 참여한다.[19] 물론 훗날 한일회담 반대 데모 진압의 중심도 중정이었다.[20] 유엔 관련 대외정책도 중정이 담당했다.

하지만 중정의 가장 큰 임무는 정치인 사찰 및 정치 공작, 선거 개입, 간첩 사건 등이었다. 간첩단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동백림사건이다. 1967년 벌어진 이 사건은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유학생들이 동베를린(동백림) 북한 대사관에 드나들었으며, 일부는 평양도 오가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시인 천상병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한국으로 잡혀 들어와 고문을 받았다. 이들이 북한과 접촉한 것, 평양까지 오간 것 등은 모두 사실로 보인다. 문제는 '간첩행위를 했느냐? 단순 접촉만 했느냐?' 하는 것인데, 중정은 고문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간첩행위'로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 있는 이들을 당사국 몰래 한국으로 잡아온 것이었다. 이것은 서독 정부와 큰 외교적 마찰을 가져왔다.

중정의 선거 개입의 대표적 사건은 3선 개헌공작이다. 중정은 간첩사건 등을 통해 3선 개헌 반대세력을 탄압했으며, 그때까지 진행해 온 정치

인 사찰자료 등을 통한 협박과 금전적 이익을 통한 회유 등을 진행했다. 간첩단 사건의 경우 이효상 국회의장이 1968년 7월 15일 '3선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5일 뒤인 20일 바로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중정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목포 임자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이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조사 받은 인물이 바로 김대중이다. 이 사건은 훗날 통일혁명당사건으로 확대된다.

3선 개헌은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들 일부도 반대할 만큼 무리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은 현직 국회의원을 다른 사건과 엮어 중앙정보부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하기도 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반대파들도 개헌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김형욱에 대한 반감은 더 커졌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김형욱은 중정부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재로 가는 길인 3선 개헌이 통과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 말로 정권 지킴이, 중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7·4남북공동성명의 아이러니

중정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대북 업무였다. 이들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지만, 진짜 간첩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김일성이 박정희에게 보낸 특사 '황태성 간첩사건'이 대표적이다. 황태성은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친구였다. 박상희는 형제들 가운데 박정희가 가장 존경하던 형이었고, 황태성 역시 존경하던 인물이었다.[21] 박상희와 황태성은 해방 직후에

도 대구 지역에서 남로당 활동을 하였는데,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담한 것은 이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박상희는 1946년 10월 1일 대구지방에서 일어난 이른바 '대구 10 · 1사건' 당시 경찰의 총에 맞아 피살되었고, 황태성은 살아서 북한으로 갔다. 그런 그가 특사로 박정희를 찾은 것이었다. 이 문제를 맡은 것이 중정이었다. 중정 부장이었던 김형욱은 황태성 사건을 미국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형을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22]

이른바 김일성의 특사 황태성은 임무에 실패했지만, 박정희의 특사로 북한에 간 중정부장 이후락은 성과를 남겼다. 바로 남북 사이 최초의 합의인 1972년 7 · 4남북공동성명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정세의 변화가 남북한 정부의 변화를 본의 아니게 압박했기 때문에 생겼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남쪽으로 넘어왔다. 목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 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불과 이틀 뒤 미 해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게 피랍됐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으며 82명이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 이 두 사건으로 남북은 거의 전쟁 직전의 분위기였다. 박정희 역시 강경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1964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미국에게는 여유가 없었다. 이에 더하여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1 · 21 사태의 수습이 아니라, 푸에블로호 선원의 안전한 귀환이었다. 미국은 자존심을 굽혀가며 북한과 협상에 나섰다. 이 사건은 박정희에게 미국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1971년 대만(중화민국)이 유엔에서 축출되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됐다.

북한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다. 공산권이 분열되기 시작했기 때

문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대규모 민주시위가 일어났다.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다. 1969년에는 소련과 중국이 국경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이 대립은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었다. 3월부터 9월까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소련은 중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 갈등은 중국보다 소련을 더 큰 적으로 느끼던 미국, 소련과의 분쟁에서 편이 되어 줄 세력이 필요했던 중국이 이념을 떠나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 결론이 1972년 2월 11일 이루어진 닉슨과 마오쩌둥 회담이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남북은 이런 세계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남한은 미국을 100% 신뢰할 수 없었고, 북한은 우방이 분열한 상태였다. 양국 사이의 대결은 더 이상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1972년 5월 2~5일 중정부장 이후락이 대통령의 밀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거기서 당시 내각총리 김일성을 만난다. 5월 29일~6월 1일 북한에서도 부수상 박성철이 특사로 내려와 대통령 박정희를 만난다. 이들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7월 4일 이후락이 석관동 중앙정보부 강당에서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7 ·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좌)과 석관동 중앙정보부 강당의 모습(우)
(사진출처 : KTV 화면 캡쳐)

이상의 내용은 이후 진행된 남북과의 합의에서도 계속 계승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상황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은 계속 되었다. 심지어 이후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한 박정희와 김일성은 모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통해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나아갔으며, 김일성 역시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고, 스스로 주석에 취임했다. 소위 '주체사상'이 나온 것도 이때의 일이다.

중정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7 · 4남북공동성명은 이러한 후속 조치로 인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7 · 4남북공동성명은 중정이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기관이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그리고 내곡동 시대

막강한 권력기관이자 정권 유지의 수단 중앙정보부 시대의 끝은, 바로 그 수장인 중정부장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 중정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한 것이다. 심지어 그 암살은 대통령 경호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중정 소유의 '안전가옥(이른바 안가)'에서 일어났다. 10·26이다. 1979년 10월 26일 이후 1981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바뀔 때까지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임기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것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아직 완전하게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학살을 벌인 신군부는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립하며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한다. 중앙정보부는 그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중앙정보부보다 대공, 대북, 방첩업무와 정보수집 업무를 강화하여 확대한 형태로 발족한다.

안기부 역시 정권 사수를 위한 기관이었고, 중앙정보부의 임무를 그대로 이어 받았기 때문에 청사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 남산과 석관동의 청사는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1961년부터 긴 시간 중정에게 자리를 빼앗긴 의릉은 왕릉이 아니라 정원의 역할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 많은 부분이 훼손됐다. 중정 직원들의 횡포는 안기부 직원들의 횡포로 바뀌었을 뿐 주민들이 당하는 억압도 변하지 않았다. 이 석관동과 남산의 중앙정보부 시대는 1995년 양 청사가 모두 내곡동으로 옮겨가며 끝난다. 남산도 의릉도 이때 비로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옮겨간 내곡동 역시 조선왕릉인 헌릉과 인릉(헌인릉)이 위치한 곳이다. 또 왕릉 옆으로 간 것이다. 서울



복원 공사 중인 의릉(사진출처 : 성북구청)

안에 대규모 시설을 수용할 부지가 왕릉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이라는 강력한 기관이 아니었다면, 또 정권수호기관이 아니었다면, 국가가 쉽게 왕릉 옆 부지를 내주었을지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의릉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헌인릉의 일부 권역은 다시 시민으로부터 멀어졌다.

(박수진)

미주

1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2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장 총칙, 제2조.
3 중앙정보부법, 제1조(기능).
4 중앙정보부법, 제3조(직원).
5 중앙정보부법, 제6조(수사권).
6 중앙정보부법, 제7조(타기관의 협조).
7 중앙정보부법, 제4조(직원의 권한 의무).
8 백준기, 「5 · 16군정기(1961. 5. 16-1963. 12. 16)의 정치지형재편과 그 의미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55쪽..
9 김경재, 『김형욱회고록, 혁명과 우상』 2, 인물과 사상사, 2009, 107쪽.
10 김정원이 주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Kim Kwan Bong이 주장한 것이 처음이다. 그는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정보정치의 극점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감시와 스파이 활동을 하는 이들까지 감안 이러한 숫자를 도출했다. 그러나 주석이 없어서 그 근거를 알 수는 없다(김성환 · 김정원 외, 『1960년대』, 거름, 1984, 160쪽; Kim Kwan Bong, 『The Korean-Japan Treaty Crisis and the Instability of the Korean Political System』, New York, Praeger, 1971, 16쪽.).
11 10만에서 30만명을 추산하는 것은 두가지 자료에 근거한다. 하나는 미국 프레이져 소위원회의 증언을 내용으로 한 수치이다. (J. D. Gupta , 'A season of Caesars :Emergency Regimes and Development politics in Asia', Asian Survey, vol-x Ⅷ, no 4(April, 1978), 326쪽, footnote 20, 강민, 「박정희의 권위주의 통치와 저항운동」, 『현대사란 무엇인가』 4권, 동아일보사, 1990, 44쪽 각주 7번에서 재인용). 정영국, 한배호 등도 이 수치에 의존한다. 그러나 역시 증언에 근거한 것이라서 정확하지는 않다. 10만에서 30만명에 달한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접근은 프린스턴 대학의 국제법 교수인 Richard Falk가 1975년 8월 일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저자가 참가하러 온 김에 한국을 방문하고 그 체험에 근거해서 증언을 취합, 본인이 계산해서 『세계』라는 잡지에 실은 통계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석은 없다. 단, 위의 것과 다른 점은 보다 자세하다는 점인데 여기서 저자는 중앙정보부의 유급인원이 10만명 이상 정도 될것이며, 사람들에 의하면 그 요원수는 더 많다고 하며, 전인구의 1%인 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계산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R. A. フォーク, 「韓國の 現況に 代るもの」, 『世界』 11月号, 岩坡書店, 1975, 41쪽 참조).
12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1권, 동아일보사, 1992, 42~43쪽.
13 백준기, 위의 논문, 1992, 55쪽.

14 김충식, 앞의 책, 1992, 50쪽.

15 오승용, 「돌아온 남산, 공포정치의 대명사가 되다」, 『한겨레21』 789호, 2009.12.10.

16 이정민, 『東伯林事件과 韓獨關係』,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24~25쪽.

17 이들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의 행패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니었으면 이미 석관동에 13,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석관동 주민 인터뷰, 진행: 2019. 9. 10., 장소: 석관동 실버복지센터, 구술자 : 김광호(1938년생), 권태선(1939년생), 권대성(1940년생) / 면담자 :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18 조용중, 「다큐멘타리 국가재건최고회의」, 『신동아』 5월호, 동아일보사, 1983, 161쪽.

19 김경재, 앞의 책 2, 2009, 156~159쪽.

20 김경재, 위의 책 2, 2009, 237~262쪽. 「한국학생들의 데모술」이라는 장인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당시 중정 부장 김형욱이 학생들의 시위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 지 확인할 수 있다.

21 김경재, 『김형욱회고록, 혁명과 우상』 3, 인물과 사상사, 2009, 137쪽.

22 김경재, 위의 책 3, 2009, 219~220쪽. 한편 처음부터 이 사건을 맡은 사람도 황태성이 처음 한국에 도착한 1961년 당시 중정부장 김종필이었다(김경재, 위의 책 3, 2009, 126~217쪽).



6장 | 장위동 · 석관동 마을과 민속

장위동 · 석관동 마을과 민속

장위동 · 석관동 마을과 민속의 특징

장위동과 석관동에는 아직까지 이중계里中契, 마을 주민들의 유대, 상호부조, 공동재산 등으로 대변되는 마을공동체적 특징이 남아있다. 이는 도시 민속에서 중요한 연구 항목으로, 이 특징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배경과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장위동과 석관동 사람들의 삶 자체, 즉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고, 어떤 공동체적 유대를 가지고 어떤 풍속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동 연혁을 살펴보면, 장위동과 석관동이 서울로 편입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895년 갑오개혁 때는 한성부 동서東署 인창방 동소문외계에 속하였고, 1910년 10월 1일 일제가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예속시키면서, 이듬해 4월 1일 경성부 성외 지역에 8면제를 시행할 때 장위동, 석관동은 경성부 인창면에 편입되었다. 또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을 축소할 때는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에 속하여 광복 때까지 계속되었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이 확장될 때 장위동과 석관동은 서울시로 재편입되어 성북구에 속하였다. 명칭도 장위

리, 석관리로 불리다가 1950년 3월 15일 동명 개정이 있을 때에 와서야 비로소 장위동, 석관동이 되었다. 현재 장위동은 1, 2, 3동이 있고, 석관동은 1, 2동으로 분동되었다가 다시 석관동으로 통합되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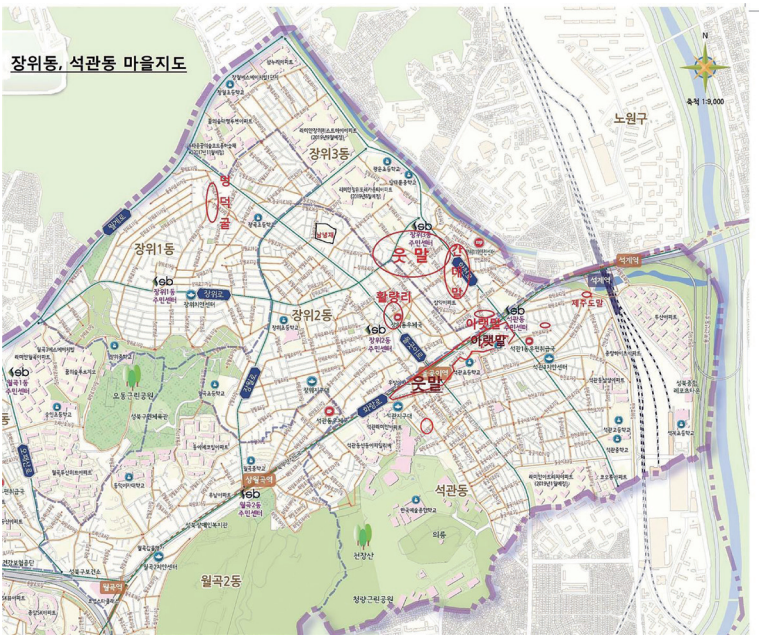
자연마을을 살펴보면, 장위동에는 웃말, 아랫말, 멍덕굴, 간대마을, 활량리 5개 마을이 있었고, 석관동에는 푸석골이 있었다. 석관동은 일제강점기에 와서 인구가 늘어나 윗말, 아랫말로 나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보다는 그 마을이 속했던 행정구역 1구, 2구로 호칭한다. 이런 마을들에 세거성씨들도 살았는데 잘 알려진 성씨가 바로 장위동 해평 윤씨다. 남녕위 윤의선尹宜善(1823~1887), 장위산인 윤용구尹用求(1853~1939)로 대변되는 장위동 해평 윤씨는 윤의선 대에서 시작하여 3~4대정도 이 곳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나 마을사람들은 더 오래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석관동에는 푸석골에 여흥 민씨 집성촌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관련 기록이 전무한 상태다. 진주 강씨 역시 석관동에서 오래된 성씨 중 하나이다. 고조高祖대부터 들어와 살았다고 하니 지금까지 대략 6~7대 정도 이어져 내려온 셈이다.

장위동, 석관동은 5, 60년 전까지만 해도 넓은 벌판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네에는 암암리에 소를 도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5, 60년 전까지만 해도 도당제의를 올렸고, 여름엔 대동놀이, 정월엔 윷놀이를 했었다. 잔치나 상이 났을 때는 동네에서 다 함께 도와주었고, 마을 공동체조직인 이중계가 존재하여 마을 공동재산을 관리하고, 상부상조하며 마을의례를 조직했었다.

2019년 현재 장위동 웃말, 석관동 웃말에 이중계가 유지되고 있다. 2018년 초까지 유지되던 장위동 아랫말과 활량리는 재개발로 인하여 이중

계가 해체된 상황이다. 이중계가 유지되는 마을들은 공통적으로 마을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마을 공동재산으로부터 나온 임대료는 계원들의 상부상조와 마을제의에 사용한다.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되어 옛 마을 정경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이 바뀌었고, 인구 이동으로 인하여 토박이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장위동, 석관동 마을공동체 조직은 아직도 유지되어 옛 마을에서의 유대를 나누며 서로 상부상조하고, 마을공동체의 례도 존속시키고 있다. 이는 장위동과 석관동에 남아있는 마을민속의 특징이다.

토박이들의 타지 이주가 잦아짐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토박이 계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우회이다. 장위동 활량리 향우회는 활량리를



장위동 · 석관동 마을지도

고향으로 하는 토박이 모임으로 이중계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즉 이중계는 엄격한 장자 가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 향우회는 장자 여부와 상관없이 1962년 이전 활량리 출생자면 가입이 가능하여 이중계 회원들은 향우회에도 가입되어 있다. 이는 도시화되어 가는 서울에서 사람들이 공동체적 결속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장위동과 석관동에는 토박이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서울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대다수를 차지한다. 석관동에 연탄공장이 들어서면서 연탄가게나 연탄수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서울도시 개발로 동대문 근처에서 점점 밀려나 장위동까지 오게 된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온 시장 상인들,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원 등 이들은 상호간에 유대관계를 맺으며 장위동, 석관동이라는 터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연마을과 세거 성씨들

장위동

마을은 생업에 종사하는 민중들이 살아가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 문화 기반이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장위리와 석관리에는 자연마을이 존재했었다. 좌측의 지도는 장위리와 석관리에 있던 마을 위치를 성북구 도로명 주소 지도에 표기해 놓은 것이다. 본 마을 위치 지도는 토박이들의 구술과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당시 장위리에는 웃말, 아랫말, 멍덕굴, 간대말, 활량리 등 5개 마을

이 있었다. 멍덕굴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 마을들은 웃말을 중심으로 낫과 같은 모양을 이루었다고 한다.

윗말은 장위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남녕궁南寧宮'[2]이 있는 마을이기도 한 윗말 앞에는 '궁논'이 있었다.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보면 이 '궁논'은 윤용구의 소유로 되어 있다. '남녕궁'에서 바라보이는 서쪽, 지금의 돌곶이로에 윤대감의 묘[3]가 있었다. 이 묘는 1960년대 초반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윗말은 장위3동 일부와 2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4]

아랫말의 현재 위치는 장위3동에 해당된다. 지금은 복개되었으나 당시에는 흐르는 냇물이 있었고, 냇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여 '수멍텅'이라고도 불렸다. 이 냇물은 모여서 한내, 즉 지금의 중랑천으로 흘러갔다. 아랫말은 당시 장위리의 제일 끝 마을로서 현재 온누리병원 북쪽 길 아래로 아랫말이었고, 남쪽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석관동과 마주하고 있다.

간대말은 장위리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위치는 장위3동에 해당하며, 한천로를 따라 서북에서 동남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즉 한천로 94길과 한천로 90길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한천로 83길과 만나는 지점까지 그 사이의 지역이 간대말이었다.

멍덕굴은 명덕고을의 와전된 말로, 주민들은 이곳에 윤용구의 형이 살았고 또 그 윗대부터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윤용구 집안의 높은 뜻과 행동을 기리는 의미에서 '명덕明德'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다. 현재 장위1동에 해당하며 장곡초등학교 서북방향에 있는 마을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는 윤용구 형의 아들 윤헌영尹獻榮의 소유로 되어있다. 멍덕굴은 장위리 중에서도 하나의 섬처럼 되어 있던 곳으로서 이곳에는 무당들이 많

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장위리에서는 도당제를 매년 지냈다고 하고 이 지역은 장위리 지역보다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다고 한다.

활량(한량)은 한량리閑良里의 와전된 음으로 조선시대 이 마을에 술집이 많아 도성 한량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장위2동에 해당하며 현재 장위2동 주민센터 앞거리, 즉 돌곶이로 27길, 28길을 기준으로 그 북쪽에 형성되어 있던 마을로 돌곶이로30가길을 중심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1912년에 작성된『고양군 숭인면 장위리 토지조사부』[5]에 의하면 장위리에는 윤씨, 최씨, 우씨, 한씨, 박씨, 김씨, 이씨 등 성씨가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중 윤용구와 그의 조카 윤헌영尹獻榮[6]의 토지가 많았는데, 윤용구만 하더라도 밭 38,351평, 논 26,266평, 대지 27,736평, 임야 760평, 늪지池沼 311평, 분묘지 549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윤용구의 거주지는 경성부 북부 가회방 제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거주지를 쓰고 있는 큰아들 윤건영尹建榮은 장위리에 밭 225평만 소유하고 있었다. 윤용구의 둘째 아들로 그의 친형 윤정구尹定求의 양자로 보내진 윤헌영은 거주지가 장위리로 되어 있고, 밭 15,096평, 대지 6,403평, 논 4,588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해평 윤씨는 언제부터 장위리에 들어왔을까? 장위리 토박이 우덕수 씨는 단양 우씨가 장위리에 들어온 후로 본인이 7대째라고 한다. 또 어른들에게 전해 듣기로 해평 윤씨가 단양 우씨보다 한 세대 먼저 들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단양 우씨는 대략 18세기 말, 해평 윤씨는 대략 18세기 중반 정도에 장위리에 들어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해평 윤씨대동보』에 의하면, 22대 윤의선尹宜善은 분묘지를 장위리에 쓰고 있

고, 윤회선尹會善 및 그의 윗대는 대부분 장단長湍군에 분묘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23대인 윤정구, 윤용구, 24대 윤헌영, 윤건영은 모두 장위리에 분묘지를 두고 있다.[7]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해평 윤씨가 장위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부마 윤의선 때부터였으며 그 아래 23대, 24대를 거쳐 거주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장위동 토박이들의 이야기와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평 윤씨 후손들은 1960년대에 와서 모두 땅을 팔고 나갔다고 한다.

『고양군 숭인면 장위리 토지조사부』에는 또 다른 윤씨들이 나온다. 이를테면 윤석기尹錫起, 윤석린尹錫麟, 윤규원尹奎遠, 윤홍원尹弘遠, 윤윤근尹允根, 윤경식尹景植 등이다. 이들도 윤용구와 같은 집안이었을까? 애석하게도 그들 이름은 해평 윤씨 항렬자行列字[8]를 따르지 않는다.

24世	25世	26世	27世	28世	29世	30世	31世	32世	33世
○榮	○燮	○老	○鎭	洪○	○植	炳○	○圭	○鏞	○準

때문에 이들은 같은 해평 윤씨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덕수 씨는 장위리에 해평 윤씨 말고도 또 다른 윤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해평 윤씨보다는 적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윤의선이 장위동에 들어온 것은 부인인 덕온공주와 관련있다. 장위2동 76-56번지에 위치해 있는 김진흥가는 조선 말 순조의 넷째 딸 덕온공주(1822~1844)의 묘가 근처에 들어선 후 그 옆에 지어졌다고 알려졌다. 또 윤의선의 소유였으므로 정식 당호는 '남녕위재사'였다. 짧게 '부마가옥'으로 불린 이 집은 부마의 아들 윤용구가 갑오개혁 이후 들어와서 장위산인이란

별호를 달고 기나긴 은거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해졌다.[9] 이렇게 보았을 때 당시 윤용구는 경성부 북부 가회방 재동에 거주지를 두고 '남녕위재사'에서 은거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풀이된다.

1960년경부터 해평 윤씨 집안에서 분묘지를 이장하고 땅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회를 타서 사람들이 땅을 사서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택지가 되어 현재는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동네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라고 한다.

여기에서 잠깐, 조선시대 양자 관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친형제 사이었던 윤정구와 윤용구는 양자관계로 얽혀 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가계계승을 최우선 목적으로 양자를 입양하여 양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즉 혈통과 경제적 재산, 사회적 신분까지 물려주었다. 때문에 양자의 양부와 친부는 동성동본을 원칙으로 삼았다.[10] 윤정구와 윤용구의 생부는 윤회선이다. 즉 윤정구는 윤용구의 친형이다. 윤회선과 윤의선은 동성동본 18촌 사이로, 그들의 관계는 해평 윤씨 윤두수의 아들 13대 방昉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윤두수尹斗壽의 큰아들 방昉은 두 명의 아들 리지履之와 신지新之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로부터 직계로 22대까지 내려오면 회선, 의선이 된다. 윤의선은 회선의 둘째 아들 윤용구를 양자로 삼게 되고, 회선의 큰아들 정구는 윤용구의 둘째 아들 헌영을 양자로 삼게 된다.

윤정구와 윤용구의 가계도

12世	윤두수(尹斗壽)	
13世	방(昉)	
14世	리지(履之)	신지(新之)
15世	자(垍)	구(垕)
16世	세교(世喬)	세휴(世休)
17世	언명(彦明)	상명(商明)
18世	득의(得義)	득일(得一)
19世	익동(益東)	면동(冕東)
20世	홍열(弘烈)	명열(命烈)
21世	치성(致性)	치승(致承)
22世	회선(會善)	의선(宜善)
23世	정구(定求)	용구(用求)[11]
24世	헌영(獻榮)	건영(建榮)

석관동

석관동은 마을 동쪽에 있는 천장산天藏山의 한 맥에 검정 돌을 꽂아 놓은 즉, 수수떡이나 경단을 꼬치에 꿰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돌곶이 마을이라 불렸다. 조선왕조 20대 경종의 능인 의릉懿陵이 이곳에 안치된 뒤부터는 돌곶이 능말로 불렸다고 하는데 돌곶이란 이름을 한문으로 표기하여 석관石串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한다. 원래 의릉이 생기기 이전에는 천장산 아래, 즉 현재 의릉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왕릉이 그 자리에 만들어지면서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지금의 돌곶이로

路 건너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한다.

화랑로를 따라 상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마을사람들은 '마른대미고개'라고 불렀다. 이 고개를 넘으면 평지가 시작되므로 고개가 바로 끝난다는 뜻에서 '대미고개'라고 불렀는데 발음 관계상 언제부터인지 '마른대미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이 고개 마루에 동네의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인 서낭(성황)나무가 있었는데 커다란 소나무였다고 한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서낭나무에 빌면 자식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소나무는 크고 사철 푸르러 산 전체가 푸르게 보인다고 하여 '푸석산'이라고 불렀다. 이 푸석산을 배경으로 그 앞쪽, 즉 동쪽에 마을이 있었는데 푸석골 또는 돌곶이말이라고 불렀다.

푸석골은 석관동에 있던 여흥 민씨들의 집성마을이었다고 한다. 여흥 민씨들은 동네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 푸석산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산제를 지내고 3년에 한번 큰 굿을 하였다고 한다.[12 · 13]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인구증가로 석관리는 1구와 2구로 분리되었다. 마을은 옛길, 즉 지금의 돌곶이로 23길, 22길, 한천로 78길을 따라 길 북쪽에 길게 형성되어 있었다. 서남방향으로 절반이 1구이고 반대 동북방향으로 절반이 2구였다. 1구는 웃말이라고 하였고, 2구는 아랫마을이라고 하였다. 웃말과 아랫마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간혹 '가운데 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통용되는 마을 명칭은 아니었다. 웃말, 아랫말과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동쪽에 있는 몇 집을 제주도처럼 떨어져 있다고 하여 '제주도말'이라고도 불렀다. 1950년에 와서 석관리는 현재의 지명인 석관동으로 변경되었다. 1975년에는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는데, 1구가 2동이 되었고, 2구가 1동이 되었다.

1912년『고양군 숭인면 석관리 토지조사부』[14]에 의하면 석관리에는 창덕궁 소유지, 국유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지, 마을 소유지[15]가 있었다. 그 외 개별적으로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는 정씨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최씨, 도씨, 전씨, 한씨, 김씨, 박씨, 손씨, 유씨가 있었다.[16]

1950~60년대 마을의 성씨별 구성은 창원 황씨와 진주 강씨가 가장 많았고, 우봉 이씨와 경주 최씨, 안동 권씨와 청주 한씨 순이였으며, 그 외에 변씨, 추계 추씨, 신평 이씨, 안씨 등이 있었다고 한다. 진주 강씨는 참판공파로 그의 고조부터 이곳에 살았다고 하니 대개 일제 이전, 즉 한말에 이곳으로 입향한 셈이다. 그러나 1912년 토지조사부에 강씨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주민들에 의하면, 진주 강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였다. 진주 강씨 후손들에 의하면, 선산은 남양주시 내각동에 있다고 한다. 특히 조부 때 5남 1녀를 낳아 이후 일가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조부는 월곡동 고개를 넘으면서 서낭당에 자식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마을주민들도 이 집안이 호수가 가장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동체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중계와 개별 친목계

마을공동체 조직, 이중계와 향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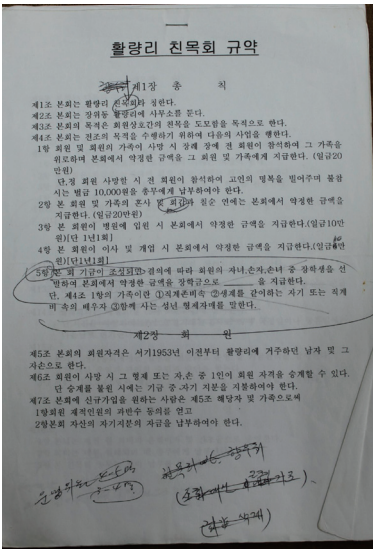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 의례, 공동 행사, 공동 노역을 통해 결속된 자신들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마을 조직들은 시대와 사회구조에 따라 명칭과 성격은 달리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동계洞契는 그 중 중요한 전통조직이다. 통상 전근대시기에 해당하는 '전통적' 조직으로 인식되는 동계는 최초에는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향촌을 지배하고 교화할 목적으로 형성되어 상하합계上下合契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 후 점차 왜소화되어 양반만의 상호부조적인 결사체로 되거나 관官의 하부구조로 재편되고, 자연촌 단위에서는 기층민을 중심으로 촌계류村契類 조직들이 나와 실제적인 촌락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중계里中契는 바로 이런 촌계류村契類 조직 중 하나로 마을 단위로 조직된 계조직이었다. 현대에 와서 도시 속에 존재하는 이중계는 이런 촌계류村契類 조직의 많은 기능이 쇠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장위동 지역은 웃말, 아랫말, 멍덕굴, 간대마을, 활량리 등 5개의 자연마을이 합쳐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옛 마을들은 이미 사라져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마을을 유지시키던 마을공동체조직은 아직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2018년 4월 필자가 성북구를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웃말, 아랫말, 활량리에 모두 이중계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는 마을소유의 건물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가 보상받음으로써 활량리와 아랫말은 이미 이중계가 해체된 상태다. 지금 장위동에 이중계가 남아있는 곳은 오직 웃말뿐이다.

장위동 활량리 이중계는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마을 단위 계 조직이었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된 이중계는 장자들만이 회원 자격을 가진다. 마을소유의 건물[17]을 임대하여 생긴 임대료 및 회원들이 낸 회비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마을소유 건물이 재개발구역에 들면서 지금은 회원들이 보상을 받고 활량리 이중계를 해체했다고 한다.

활량리 이중계에서는 해체 이전까지 '영좌領坐'라는 명칭을 사용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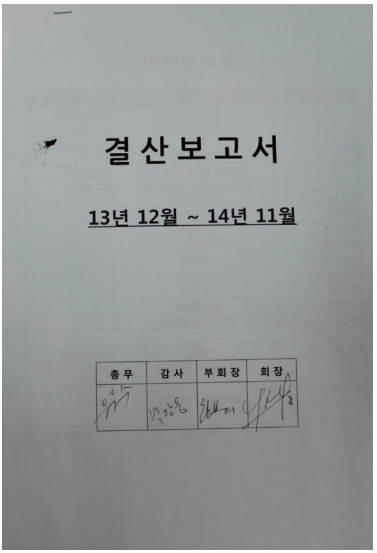
활량리 친목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활량리 친목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장위동 활량리에 사무소를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항 회원 및 회원의 가족이 사망 시 장례 전 회원이 참석하여 그 가족을 위로하며 본회에서 약정한 금액을 그 회원 및 가족에게 지급한다. (일금20만원)
단, 정 회원 사망할 시 전 회원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며 물참시는 별금 10,000원을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항 본 회원 및 가족의 혼사 및 회갑과 칠순 연에는 본회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일금20만원)
3항 본 회원이 별원에 입원 시 본회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일금10만원)[단 1년1회]
4항 본 회원이 이사 및 개업 시 본회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일금5만원)[단1년1회]
5항 본 회 기금이 조성되면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녀,손자,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본회에서 약정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_____ 을 지급한다.
단, 제4조 1항의 가족이란 ①직계존비속 ②생계를 같이하는 자기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함께 사는 성년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본회의 회원자격은 서기1953년 이전부터 활량리에 거주하던 남자 및 그 자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이 사망 시 그 형제 또는 자,손 중 1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를 불원 시에는 기금 중 자기 지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본회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제5조 해당자 및 가족으로써
1항회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2항본회 자산의 자기지분의 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

13년 12월 ~ 14년 11월

총무	감사	부회장	회장

활량리 친목회 결산보고서

다. 옛날에는 이중계 추봉秋捧 날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쌀을 거둬서 영좌나 소임에게 쌀 얼마씩 지급을 했는데 이 전통은 해체되기 전인 2018년까지도 이어졌다. 상달 추봉 날이 되면 동네잔치를 열고 영좌에게 70만원 정도 지급한다. 그러면 영좌가 그 돈을 소임과 나눈다. 영좌는 예전에는 동네 제일 어른이 맡았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영좌를 맡는다. 그래도 나이와 상관없이 영좌를 맡으면 '동네어른' 칭호를 받는다. 영좌 이야기 한마디면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고 한다. 2018년 성북구 조사에서 이중계 총무를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가 없어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활량리 향우회는 이중계와는 달리 마을 토박이들의 타지 이주가 잦아지면서 조직된 토박이 계모임이다. 장자 여부와 상관없이 활량리 토박이

면 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예전에 이중계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차자次子 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장자들은 이중계와 향우회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다. 「향우회규약」에서는 토박이 기준을 처음에는 1953년 이전 활량리 출생자로 국한시켰다가, 그 후 연로한 회원들이 사망하면서 1962년 이전 출생자로 자격을 늘렸다. 또 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들이기 위하여 그 부모가 1962년 이전 활량리 출생자이면 직계 자손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바꿨다. 향우회는 월회비 및 정기예금 이자 등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향우회 회칙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원래 회원들이 사망하면 지분을 '태워주던(지분을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 것에서 2008년에 회칙을 개정하면서 75세가 되면 지분을 태워주고 회원자격은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바꿨다. 그 원인은 살아있을 때 본인이 부은 지분을 사용하라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또 2016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신규 회원 가입을 원할 시는 지분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원래 조항을 바꿔 회비만 납부하도록 개정하였다.

석관리에도 1, 2구, 즉 웃말, 아랫말에 모두 이중계가 있었다. 이장이나 구장과 같은 행정조직 말고도 전통적인 마을조직으로서 영좌와 소임을 둔 것도 마을공동체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곳에서는 마을대동회를 '이중계里中契'라고 불렀다. 이중계 가입을 하려면 지분을 내고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회원이 사망 시에는 직계 자손은 그냥 들어올 수 있다. 이중계 모임은 산신제 이후 날을 정해 가졌다. 모임 때 통문을 만들어 돌린 것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다. 이중계 모임 때 마을재정을 결산하며, 소임 등 마을 일꾼을 뽑는 것도 이 모임에서다. 단위는 1구와 2구를 구분하여 각 마을에 영

좌와 소임을 따로 두었다. 현재까지도 1구에서는 이 조직이 유지되고 있고 43명의 회원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중계 회칙이라든지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명단만 가지고 있다.

석관리 마을에는 공청公廳이 있었는데, 움막 형태였다고 한다. 이 공청은 마을 재산, 즉 이중계 재산이었으며 순대국집으로 바꾼 후 세를 받아왔다. 지금 이 공청 자리는 시유지市有地라서 매년 280~290만 원의 토지 이용료를 낸다.

석관리 이중계는 마을에 상이 났을 때 마을사람들을 동원하여 상례를 치른다든가 마을의례인 도당제를 주최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했다.

개별 친목계

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든 비교적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모임이다. 한국인들에게 친목계는 아주 익숙한 단어로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계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위에서 서술한 마을단위의 친목조직인 이중계 외에도 장위동, 석관동에는 다양한 목적계, 공동노동을 위한 계, 목돈 마련을 위한 계들이 존재했었다. 이런 계들의 공통의 특성은 '모여서 함께하다'이며, '함께 모일 때 생기는 힘', 즉 '공동체적 힘'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이다.[18]

석관동 주민들의 친목모임은 아주 다양하다. 매월 10일은 꾀꼬리회, 재개발계, 골목회, 돌곶이회, 친목회 등이, 매월 24일은 금강회, 25일은 상포계, 30일은 동지회가 각기 모임을 갖는다. 매월 둘째 주에 행운회, 홀수 달 마지막날에 동우회, 짝수 달 첫째 토요일에 우석회 모임이 있다. 이 외

에도 연령별로 비슷한 혹은 같은 나이의 주민들끼리 친목회를 조직하는 것도 한때 유행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우회인데 쥐띠와 소띠, 즉 1936년생과 1937년생끼리 만든 친목모임이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므로 부인들의 모임은 따로 없다. 이 모임은 매월 27일에 갖다가 너무 잦다고 하여 2달에 한번 갖는다. 연령별 모임은 모두 15개다. 이 모임들 상위 모임은 석관동 중앙회다. 중앙회에서는 봄과 가을로 경로잔치 겸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물론 과거 아랫말과 윗말 주민들이 함께 모임을 갖는다. 그리고 그 회원 자격은 자식에게 물리는데, 장남이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차남이 물려받을 수도 있다.[19]

상인들만의 개별 친목회로 장위시장의 우정친목회를 들 수 있다. 이 친목회는 장위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로 회원 요건을 정하고,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를 주 목적으로 한다. 1990년에 설립되어 29년째 유지되고 있다. 초창기에 30명이 가입되었다가 이사 등 변동으로 인하여 장위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12명 정도 된다. 외부에 이주한 후에도 계속 친목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현재 회원은 총 24명이다. 우정친목회는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모임 때 회비조로 한 달에 2만원씩 4만원을 낸다. 경조 시는 상미上米 3가마, 또는 해당 년에 정하는 금액에 따라 전달하며, 회원 당 2회로 한정한다. 주로 1년에 한번 야유회를 간다.

옛날 통장들의 친목회로 통친회를 들 수 있다. 석관동에서 25년간 통장을 지냈던 김동현 씨는 석관1동 통친회에 가입되어 있다. 예전만 하더라도 통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보통 한번 통장을 하면 20년 넘게 하고 65세에 그만두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장을 오래 한 사람들의

친목회가 생겨났다. 김동현 씨가 가입되어 있는 통친회는 그 명칭이 '석관1동 통친회'다. 당시만 하더라도 석관1, 2동이 합쳐져서 석관1동이라고 칭하던 때였다. 김동현 씨는 40대부터 시작하여 석관1동 12통(지금은 21통) 통장을 25년간 했다고 한다. 통장의 주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달한 것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출입 주민에게 통장이 직접 도장을 찍어줘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방위 소집, 반상회보 돌리기 등 자잘한 업무도 모두 통장이 해야 할 일이었다. 한 통에 보통 7개 반이 있었고, 한 반에 13~14가구 정도 있었다. 김동현 씨는 12통 통장을 65세에 그만두었다. 석관1동 통친회는 조직된 지 25년 정도 된다. 초창기는 회원이 20여 명 정도 되었는데, 연로하여 작고한 사람도 있고 하여 현재는 11명 정도 남았다.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회비는 두 달에 2만원씩 낸다. 경조사 시 화환을 보내주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동현 씨는 부동산 친목회에도 가입되어 있다.

마을공동체 의례, 석관동 도당제

석관동 도당제에 대해서는 1993년 『성북구지』, 2005년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2018년 『『성북구지』발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20]등에서 서술된 바 있다. 이것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21]

석관동 도당은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현재는 석관지구대 맞은편에 있다. 약 5~6평 정도의 시멘트 건물에 지붕은 기와를 얹었으며 당 안에는

항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땋아 주저리로 덮어 둔 신위가 있다.

구전에 의하면 현재 중랑구 중화동 봉화산신烽火山神은 도당 할아버지이며, 이 당에서 모시는 천장산신天藏山神은 도당 할머니라고 한다. 원래 의릉懿陵이 들어오기 전에는 천장산天藏山 아래의 산신으로 받들다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동신洞神으로 받들게 되었다고 한다.

당집의 위치에 대해 두 보고서[22]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맞추어보면 대개 두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고, 따라서 현재의 당집은 세 번째 지은 건물이 된다. 첫 번째 이동은 의릉이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당집은 원래 천장산 중턱에 있다가 마을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곳이 1962년 의릉 안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설 때까지 있던 자리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관내에 위치한 의릉에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집의 경우는 석관동 주민들이 오랜 전통임을 내세워 계속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보부 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집을 정보부 남쪽 담장의 현 위치로 옮겨주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이동이 된 셈이다. 당집은 1990년대에 한 번 수리한 상태이고,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문짝이 뜯기는 등 훼손이 심해지자 철문을 달고 담장을 쳤으며 평상시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골목에 문을 달아 근처까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된 상태다.

축문의 표기는 '토지지신土地之神'으로 되어 있다.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두 신위를 모신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한 말 정도의 벼를 담아 당집에 보관하는 항아리는 하나여서 신위는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란히 또 한 항아리가 묻혀있는데 이 항아리는 산신제 때 제주祭酒를 담는 용도여서 신위로 보기 힘들다. 나란히 묻어 놓은 두 항아리를 각각 짚주저

리 2개로 덮어놓아 신위가 둘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짚주저리는 신체가 아니라 항아리나 제기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일 뿐이다.

도당제는 도당제 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지낸다. 예전에는 도당제를 알리는 통문을 돌렸으나 현재는 총무를 맡은 강명복 씨가 전화를 한다. 2018년 추진위원장으로는 전영필 씨, 총무에 강명복 씨가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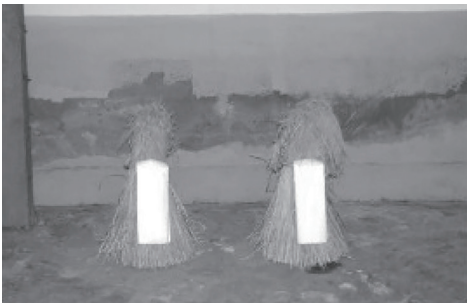
도당의 제사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오후에 시작되는데 제관으로 선정된 집이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도가都家가 되며 일을 거드는 소임 외에 주비를 뽑는다. 주비는 4명을 뽑기도 하고 2명을 뽑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를 제물로 쓰다가 쇠머리로 간소화하면서 나온 변화인 듯하다. 제관을 선정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서 제삿날의 일진日辰과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아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맞아도 그 집안에 해산을 했다든가 초상이 났다든가 부정不淨이 있으면 자격이 없다. 제관 선정은 제삿날 10일 전에 했으며, 선출된 제관은 그날부터 출입을 삼가고 매일 목욕재계를 하며, 내외를 금하고 마음을 정결히 해야 하였다. 또 당 주위에는 왼새끼에 창호지를 끼운 금줄을 치고 출입을 금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많이 간소화되었다.

제사 비용은 마을기금과 주민 추렴으로 충당한다. 마을기금은 주로 동네에 초상이 나서 동네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달공소리를 할 때 상주가 수고했다고 내는 돈을 모아 둔 것이다. 요즘은 도당제를 지낼 때는 구청에서 지원이 9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중계 금액에서 지출한다.

상차림은 소머리, 쇠족 4개, 소꼬리, 수탉, 삼색과실(밤 · 대추 · 감),



석관동 제당 전경(서울역사박물관, 2005, 399쪽)



석관동 제당 내부(서울역사박물관, 2005, 399쪽)

제주(탁주), 콩(백두), 팥(적두), 소적, 병餠, 건대구 등이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직접 소를 잡고 이것을 삶아서 제물을 마련했다. 지금은 마장동에 가서 소머리와 쇠족, 소꼬리를 사온다. 이것들을 올리면 소 한 마리를 올리는 것으로 인식한다. 큰 항아리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 그중 한 항아리에는 벼를 넣고 나머지 항아리에는 누룩을 빚어 넣은 다음 당내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제주를 마련한다. 이 모든 제물은 도가에서 준비한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지금은 소머리를 올린다고 하며 제주도 막걸리로 대체되었다.

제사에 임하기 전에 소임과 주비들은 당집 주위를 정결하게 청소하고 그릇을 닦고 가마솥을 걸어 음식을 장만한다. 항아리에 일 년간 담아두었던 벼를 덜고 새 벼로 갈아 넣는다. 제의祭儀는 분향 · 재배 · 독축讀祝 · 소지 올리기 순서로 진행된다. 재배는 제관과 주비가 함께 한다. 제사가 끝나면 분육分肉에 들어간다. 분육한 고기는 모두 꼬지에 꿰는데, 내장은 내장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꿰어 짚으로 엮는다.

아래는 1993년『성북구지』에서 보고된 축문이다.



석관동 도당 전경과 강명복 총무



당집 안 북벽에 놓인 짚주저리 2기. 각기 벼를 담은 항아리와 제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가 그 안에 있다.



2019년 도당제 모습

石串洞 山神祭 祝文

維歲次 干支 都家某 敢昭告于

土地之神 令爲 서울市 城北區 石串洞 男女老少 自今年 至明年 憂患疾痼

永爲消滅 六畜蕃盛生衰 祇薦于神尙 饗

올해에도 몇 월 몇 일 도가 아무개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토지신이시여 지금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남녀노소는 금년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우환질고를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동물이 번성하게 해주시

길 바라옵니다. 삼가 신을 받드오니 많이 잡수십시오.

분육한 소와 제수祭需는 제관과 주비가 집집마다 돌린다. 1950~1960년대까지 참여한 마을주민이 100여 호가 넘었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정확하게 나누었다. 각 가정에서는 그날 제수를 받기 위해 깨끗한 반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밝혀둔다. 받은 제물로 각자 고사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것으로 국을 끓여 집안 식구끼리 먹는다. 식구가 마을 밖에 있을 때에는 와서 먹어야지 받은 고기를 마을 밖으로 보내지 않는다. 즉 쇠고기와 제수는 어떤 경우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참여하는 마을 주민도 남은 토박이 43호에 지나지 않고 의례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소에서 쇠머리로 간소화된 이후로 제물은 제관과 그밖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복하는 데 쓴다.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벼는 제관이 가져간다. 현재는 도당제를 지내고 나서 장위리에 있는 활량리 소머리국밥집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식사를 한다.

공동체 관행과 놀이

공동체 관행과 탈관 풍속

마을 공동체 조직인 이중계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옛 마을을 떠올리게 하고 민속을 지속시키는 주축이 되었다.

장위동과 석관동 모두 5, 60년대만 하더라도 초상이 나면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마을주민 모두가 간단한 술 등을 사서 부조하였고, 부인들은 상가에 모여 청량리시장에서 사온 베로 밤새 상복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주해 온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상포계를 조직하여 초상 때 태우는 일도 있었으나 예전 마을에서는 주로 이중계가 상포계 역할까지 담당했다.

이처럼 상례를 공동체 단위에서 치르는 관행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석관동 마을소유인 상여는 24명이 메는 큰 상여로, 이를 보관하는 상여집이 따로 있었다. 이 상여집은 상여를 쓰지 않게 되면서 마을창고로 썼다가 가게로 꾸며 세를 받아 마을기금에 보태었다. 석관동에 있었던 상여집은 현재 터만 있고 건물은 남아있지 않다. 장위동에는 지금의 장위3동 주민센터 동남쪽, 지금의 한천로 위치에 상주도가가 있었다고 한다. 장위동 상여는 공주릉 이장 당시 장위리 사람들이 도와주었다고 하여 마을에 하사하였다. 그 상여는 48명이 메는 큰 상여로 선소리꾼이 앞뒤에 탈수 있었다. 마을에서는 돈 많은 집안에서만 이 상여를 빌려 썼고, 지금은 한국민속촌에 기증하였다.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상여는 이보다 작은 상여로 마을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

당시 석관동 마을에는 '거지대장'이 살았다고 한다. 평소에는 걸인들을 모아 동냥을 하고 다니지만 선소리를 잘하여 동네에 상이 나면 상여 위

에 올라가 요령을 흔들며 선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그가 사라진 후에는 마을 주민들 중에서 그 역할을 돌아가며 맡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강명옥 씨 작은 아버지도 이 일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 후 상여를 쓰지 않게 되면서 이중계 계원이 사망하면 영구차 한 대, 관광버스 한 대를 보내줬다. 현재는 동네에 있는 공청을 임대하여 한 달에 6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데, 그 돈으로 계원 사망 시 55만 원을 태워준다.

장위동, 석관동 지역 사람들은 예전에 주로 탈관을 했었다고 한다. 탈관은 상례에서 시신을 넣어 장지까지 운반한 관을 매장 직전에 제거하는 풍습으로 경기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탈관을 하는 이유는 시신이 흙과 닿아 고르게 부패하기를 바라는 관념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한다. 탈관은 보통 시신을 모실 광중壙中(구덩이 속)을 내광과 외광으로 구분하여 파는데, 내광은 시신의 체형에 맞추어 시신의 형태와 비슷하게 파고, 외광은 네모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판다. 하관은 관을 광중 앞에 안치하고 관뚜껑을 열고 시신만을 무명으로 한 들끈을 잡고 조심스럽게 광중으로 내린다. 하관이 끝나면 맏상주가 폐백을 올리고 홍대를 덮는다. 장위동에서는 홍대는 한번만 덮는다. 그런 후 맏상주가 첫 삽을 파서 관 위에 뿌리는 취토를 한다. 취토가 끝난 후 광중을 메우는 달구질을 하는데 달구질을 회다지라고도 한다. 장위동에서는 회와 흙을 번갈아 가며 세 번 정도 덮으면서 다진다고 한다. 그렇게 외광을 완전히 메우고 나서 봉분작업을 한다. 장위동 토박이 우덕수 씨는 윤대감묘 이장 때 처음으로 마을사람들과는 다른 입관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세시풍속과 놀이

삼재막이

삼재막이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행하는 액막이 풍속의 하나로 '제웅치기'라고도 부른다.[23] 제웅치기는 직성直星의 액厄을 쫓고 화를 면하는 술법을 말하는데, 이런 풍속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제웅치기의 이칭異稱으로 허수아비버리기(강원), 허두새비버리기(전남), 도채비방쉬(제주) 등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제용만들기, 삼재맥이한다고 불린다. 장위동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명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정월에 짚단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꽂아서 삼재가 든 사람보고 동구 밖에 가져다가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 삼재가 물러난다고 여겼다."라는 구술 내용을 보면 '삼재막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

직성은 아홉 개가 있어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남자는 11, 20, 29, 38, 47, 56세에 직성 들고 여자는 10, 19, 28, 37, 46, 55세에 직성이 든다. 직성이 든 해는 만사가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병이 들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이런 액살을 없애기 위해 제웅치기를 한다. 제웅은 짚으로 만들며, 배나 허리에 노자 돈이나 쌀을 넣고 액년이 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어 개천이나 징검다리 또는 사거리에 버려 액을 푼다. 지나던 사람이 이 제웅을 주워 돈을 꺼내고 버리면 그가 액을 가져가게 된다고 믿는다.

장위동의 경우에는 직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삼재가 든 사람에게 액막이로 짚단 모양을 만들어 몸에 돈을 꽂아 동구 밖에 가져다 버렸다. 이는 삼재를 물리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돈을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

만 동네 아이들이 몰래 그 짚단을 찾아서 돈을 빼내고 짚단을 땅에 힘껏 내동댕이치면서 놀았다고 한다.

대동놀이

석관동에는 1960년대까지 마을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세시 놀이로 대동놀이가 있었다. 일 년에 한 번 초여름에 날을 잡아 중랑천 백사장에 천막을 치고 가마솥을 걸어 음식을 하고 명창 지화자, 목계월 등 5명 정도를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당시 중랑천은 매우 맑아 그중 마루돌이 있는 곳에 주민 전체가 나와 빨래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행사에 드는 비용은 주민들 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독지가들의 출연으로 마련된다고 한다. 대동놀이는 70년대까지도 이어졌으며 장위동 사람들이 부러워 할 정도였다.

장위동에서도 대동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활량리가 제일 잘 놀았다고 한다. 장구 치고 꽹과리 불며 놀았는데, 대동놀이 하러 소근내(지금의 우이천)의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근처까지 갔다.

가설극장

70년대에 들어와서 장위동에 대동극장, 석관동에 이문극장이 세워졌다. 이 두 극장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마을사람들이 주로 천막을 친 가설극장을 이용했다. 이 가설극장의 위치는 대략 지금의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근처였다. 영화 한 번 보는데 그 당시 50환 정도 받았다고 한다.

어린 시절 놀이

어린 시절 놀이로는 박쥐 잡이, 쥐불놀이, 자치기, 개구리 잡이, 낟가리 놀이 등이 있었다.

쥐불놀이는 정월 들어 첫 번째 드는 쥐날, 즉 상자일上子日이나 대보름날 밤 농촌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불을 놓는 민속놀이다. 장위동 토박이 우덕수 씨도 어린 시절 논두렁에 가서 깡통에 솔방울 같은 것을 넣고 불을 붙여 휙휙 돌리면 아주 보기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개구리 잡이는 여름철에 남자아이들이 주로 노는 놀이였다. 개구리는 주로 논에 가서 잡았는데 철사로 삼지창을 만들어 개구리를 잡았다고 한다. 개구리 다리는 꼬챙이에 껴서 구워먹었고, 몸통은 통에 넣어 팔았다고 한다. 당시 장위동에는 닭장(양계장)이 많아 개구리를 사료로 썼는데, 한 통 잡아 팔면 20환을 받을 수 있었다.

낟가리 놀이는 가을 벼 수확 후 아이들이 즐겨 노는 놀이 중의 하나다. 가을 벼 수확 후 논두렁에 낟가리를 둥그렇게 쌓게 되는데, 장위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볏단을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어른들 몰래 쌓아놓은 낟가리 중 한 두 개 짚단을 빼내고 그 속에 들어가 놀곤 했었다. 낟가리가 바람을 막아주어 그 안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박쥐 잡이는 동네 아이들의 또 하나의 놀이었다. 윤대감 묘가 남녕위 재사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주변에 돌로 축대를 쌓고 기와를 얹었다고 한다. 그 기와 속에 낮에는 박쥐가 들어가 있다가 밤에는 날아다녔는데, 날아다니는 박쥐를 잡는 것은 동네 아이들의 또 하나의 놀이였다고 한다.

생업과 시장

농업

강북구 우이동 도봉산 기슭에서 발원한 우이천은 예전에는 소근내라고도 불렀는데, 장위동과 노원구 경계를 지나 석관동을 거쳐 중랑천, 즉 한내에 흘러든다. 석관동은 중랑천이 중랑구와의 경계를 이루며 흐르고 있고, 중랑천의 지류인 우이천이 석관동 동북쪽을 흘러 지난다. 그래서 장위동, 석관동 곳곳에 우이천, 중랑천으로 흘러드는 시냇물이 얼기설기 흘러 지난다. 이는 논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 석관동에는 천장산, 장위동은 장위산 일부분이 위치해 있다. 예로부터 천장산 밑은 전곡田穀의 산지였다고 한다. 천장산에 의릉이 들어서면서 천장산 밑에서 살던 마을사람들은 밀려나 지금의 위치로 이주해 오게 되었고 이 마을은 돌곶이능말이라고 불렸다. 능말이라고 해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주업은 여전히 농업이었다. 이는 『승정원일기』 1725년(영조 1) 8월 27일(임진)[24]에서도 잘 나타난다.

>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이 보살펴야 할 백성이지만, 본주의 경우에는 능침이 있는 곳이니, 별도로 돌보아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제 막 산릉의 큰 역사를 겪었기에, 오늘 능행으로 인하여 교외에 나오게 되었으므로 본주의 연로한 백성들을 불러 대령하게 한 것이니, 민폐에 대해 진달할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진달하도록 승지는 말을 전하라."
>
> 하니, 백성들이 아뢰기를, "본주는 연이어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살아

갈 길이 없었는데, 올해는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농사가 다소 풍작이어서 살아갈 가망이 있을 듯합니다. 다만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군향미로 이전하는 수량이 제법 많으니, 지금 다소 풍작이 든 농작물을 북한산성에 죄다 봉납한다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읍에 봉류(捧留)하고서 그대로 군향미로 삼기를 바라니, 그렇게 한다면 온당하고 편리한 일이겠습니다. 병신년(1716, 숙종42) 이후로 각종 미납분이 해마다 많이 적체되고 있으니, 또한 바라건대 전부 다 탕감하여 본주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고 본주는 12능침이 봉안되어 있는 곳으로 땅도 넓고 사람도 많아 사체가 자별(自別)함이 다른 읍에 비할 바가 아니니, 또한 바라건대 독진(獨鎭)을 설치하고 과거를 설행하여 인재를 뽑는 규례도 수원(水原)이나 광주(廣州)의 예대로 특별히 거행해 주소서. 이것이 진실로 백성들의 바람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풍년이 들었다고 해도 농사를 지은 수확량의 대부분을 북한산성의 군향미로 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곳 사람들은 그리 풍요롭지 않았던 듯하다.

장위동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양주밥 먹고 고양굿 한다"는 말은 농토는 양주에 두었고 고양에서 거주하므로 식생활은 양주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장위리는 고양군에 속했고, 그 주변 지역인 망우리, 노원, 도봉, 우이 등 대부분 지역이 양주군에 속했던 지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농민이었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웃 마을까지 가서 땅을 부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특산물은 없고 주로 벼, 조, 수수,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장위동, 석관동 사람들의 주 업은 여전히 농사였다.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2년 장위리 논 132,150평, 밭 93,723평에서 윤용구 및 그의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은 논 30,854평 , 밭 53,672평으로 전체 장위리 논 면적의 1/4, 밭 면적의 1/2정도 차지한다. 석관리는 특히 논이 많았는데, 그 면적이 장위리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이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석관리에 대량의 전답을 점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논 80,115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석관리 전체 논 면적 261,529평의 1/3을 차지한다. 석관리 전체 밭 면적은 22,706평인데 그 중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밭은 6,338평이다.[25]

조선총독부 고양군 숭인면 석관리 지적도를 보면 지금의 석관동 주민센터 서남방향에 장위동에서 석관동으로 흘러드는 시냇물이 있었다. 현재는 복개되었지만, 대략 이 곳부터 지금의 지하철 6호선 석계역 방향, 즉 동북향으로 제방이 표시되어 있다. 이 제방은 강줄기를 따라 동북쪽으로 뻗어 중랑천에 이르면 다시 중랑천을 따라 북남방향으로 제방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당시 중랑천의 범람 방지와 논농사에 유리한 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덕수 씨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장위동, 석관동에서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뚝방 수리에 참여해야 했으며,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논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도축업

도축업은 식생활을 비롯한 기타 소비생활에서 필요한 고기肉, 기름脂, 뼈骨, 털毛, 가죽皮 등을 생산할 때 가장 우선 단계로서 동물을 도살, 해

체하는 업을 말한다.

조선 후기 미아삼거리에 있는 신근솔이라는 곳은 솔밭이 많아 풍치가 수려했기 때문에 당시 이곳에 주막이 밀집하여 있었다. 지방에서 소를 몰고 서울로 들어올 때에는 신근솔에서 숙박을 하고 소를 매어 놓았다가 장위동 노변 도살장에서 소를 매도한 다음 돌아갔는데 소장사들이 달밤에 도착하여 잔월殘月 아침에 흥정했기 때문에 월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26]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도살은 국가에서 허가된 곳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었고, 도살을 하는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하여 천민으로 살았다.

일제강점기에 도축업의 중심 재정원財政源인 도장屠場 경영은 관영과 사설이 있었으나 그 비중 및 양상은 일제에 의하여 수차례 변하였다. 1896년「포사규칙庖肆規則」은 농상공부 허가를 통하여 일반인의 사도私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1905년 9월『도수장병수육판매규칙屠獸場竝獸肉販賣規則』은 도장을 관설官設로 정하여 그 경영을 관에 제한하였고 수육판매업은 관청 신고제로 정하였다. 이때 일제는 도축업의 주요 재원인 도장 경영권을 종래 시도들로부터 완전히 박탈함과 동시에 도축 관련업의 모든 수취권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1909년 8월에는「도수규칙屠獸規則」을 통하여 허가에 의한 사설도장 운영을 하도록 다시 전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일제는 전국의 소규모 도장에 대하여 경영상 통일의 필요성과 위생 풍교시설 등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강매를 통한 관영화를 계속 강행하였다.[27]

『서울통계자료집(일제강점기편)』'경성부 부근읍면 일반경제 재산명세표'[28]를 보면 1933년 3월 말 현재 숭인면의 공용 및 공공용 재산부분에서 도장屠場 항목이 빠져 있다. 또 '경성부 부근읍면 1933년도 세입 세출 결산표'[29] 위생비 세출에서도 숭인면의 도장비屠場費 항목은 공란으로 남아있

8. 京城府 附近邑面 一般經濟 財産 明細表(계속)

(4) 崇仁面 (1933年 3月末 現在)

種類	摘要	區分	數量	價格	備考
公用 및 公共用 財産部分	面事務所	垈	204.00㎡	201.12圓	
		建物	39.00	2 000.00	
	種數倉庫	建物	21.00	840.00	
	墓地	墓地	55 364.00	1 500.00	
	土地	垈	154.00	344.00	
		田	485.00	244.00	
		雜種地	96.00	9.00	
		池沼	90.00	2.00	
		林野	52 590.00	2 583.00	
		墳墓地	29 523.00	295.00	
		土地	138 506.00	5 178.12	
	合計	建物	60.00	2 840.00	
		計	–	8 018.12	

『서울통계자료집(일제강점기)』(144쪽)

3. 京城府 附近邑面 1933年度 歲入 歲出 決算(계속)

(3) 歲出(經常部) (단위 : 圓)

區分 \ 邑面		臨江面	城北面	恩平面	崇仁面	麻島面	漢芝面	北面	東面	永登浦邑	陽東面	計
衛生費		7 591	289	1 102	296	1 076	3 946	1 527	51	1 490	240	17 608
	傳染病豫防費	361	140	85	203	89	278	90	31	291	25	1 593
	汚物掃除費	6 176	–	–	–	–	2 698	466	–	697	–	10 037
	墓地費	644	30	23	78	140	490	24	10	51	66	1 556
	共同井戸費	240	95	–	5	130	328	–	–	–	–	798
	共同便所費	50	–	–	–	–	20	–	–	–	–	70
	衛生諸費	120	24	–	10	65	89	10	10	–	10	338
	屠場費	–	–	994	–	599	–	934	–	357	136	3 020
	傳染病罹災救護費	–	–	–	–	53	43	3	–	–	3	102

『서울통계자료집(일제강점기)』(163쪽)

다. 이는 일제강점기 숭인면에 공설 도장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2018년 민속조사에서 장위동, 월곡동, 석계동 토박이들은 해방 전까지 장위동에서 미아사거리로 가는 길에 큰 도살장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도살장은 사설 도장일 가능성이 크다.

해방 후에도 도살장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9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출간한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명부』[30]에는 하월곡동 79번지에 사장 현종玄種 씨가 운영하는 미아리도살장이 등록되어있다. 장위동 토박이 우덕수 씨는 어려서 도살장에 많이 갔었다고 한다. 그 위치가 대략 예전 중외제약 근처, 즉 창문여고 맞은편이라고 하고, 근처에는 다른 도살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동일한 도살장일 가능성이 크다. 1961년에 마장동에 '동양 최대 규모'의 도축장이 개장하였는데[31], 그 후 이 미아리도살장은 마장동으로 이전해 갔고, 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도살장을 기반으로 한 아교공장, 피혁공장 등도 점차 근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공설이나 사설과는 별개로 장위동 · 석관동 지역에는 무허가 도살장

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 마을사람들은 그 당시 농사도 했고 또 암암리에 소도 잡아 팔았어요. 당시 단속이 심해서 한 곳에서 오래 하지를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했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쳐 들키면 잡혀 가서 벌금을 내곤 했었죠. 한번 소를 잡으려면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투입되었어요. 그렇게 소를 잡아 파는 사람이 무려 7~8명 정도 되었어요. 소는 주로 경기도 우시장에 가서 암소를 사요. 그러면 소를 끌어다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잡은 소는 주로 뼈째로 각을 떠서 바로 시내로 들어갔죠. 큰 시장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나온 가죽은 가죽공장에 팔았죠. 종암동에 가죽공장이 있었어요.[32]

미아리도살장 및 무허가 도살장이 있음으로 하여 장위동 근처에 마방을 운영하는 집도 있었고, 마방에서 야윈 소를 데려다가 먹여 살을 찌워 되파는 사람도 있었다. 또 도살장에서 나오는 가죽으로 생가죽장사를 하던 사람도 있었고, 가죽을 가공하는 피혁공장을 운영하는 집도 있었다고 한다. 소뼈를 끓여 접착제를 만드는 아교공장은 주로 타동 사람들이 했었는데 상월곡동 정보센터 쪽으로 한 집 있었다. 아교공장은 맥주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주로 종암동에 많았다고 한다. △△△씨는 생가죽장사로 돈을 번 유명한 장사꾼 중의 한명이다. 장위동, 월곡동, 석관동 일대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그 자손들이 아직도 장위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갖바치라고 하면 자손들이 듣기 거북해 한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알리기를 꺼려한다.

연탄가게 및 연탄수송업

예전에 나무를 연료로 하던 시절에는 동네사람들이 모두 동나무(동네나무) 하러 왔었다고 한다. 늘어진 나뭇가지나 떨어진 나뭇가지를 갈퀴로 긁어서 한 짐씩 이고 갔었다. 이고 간 나무는 주로 군불로 많이 땠었다고 한다.[33]

1960년대에 와서는 연탄이 주 연료로 떠오르면서 서민들의 연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석관동에는 정원, 태양, 한일, 한성, 삼천리, 칠표, 삼성(동원) 등 7개의 연탄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연탄과 관련된 연탄가게 및 연탄수송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게 되었다.

석관동에는 연탄공장뿐만 아니라 연탄 수송업, 연탄가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018년 돌곶이시장 근처에서 석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형 씨는 연탄수송업에 15년간 종사했었다고 한다. 연탄수송업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탄을 도매로 사다가 소매상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는 수송차량이 공장에 소속되어 있느냐 개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수형 씨는 개인 차량을 가지고 한일, 한성, 삼천리 연탄 수송업을 했었다. 한일연탄만 하더라도 수송차량이 200대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었다고 한다. 수송차도 차종의 발전에 따라 처음에는 한 대에 연탄 700~800장을 실었다가 그 후 십 여 년이 지나서는 1,600~2,000장 정도를 실었다. 차종도 삼발이, 타이타이, 복사 등의 기종으로 발전했다.

이수형 씨는 주로 복사차로 수송업에 종사했다고 한다. 복사차는 4톤 반 정도 되는 차로 연탄을 2,000장 정도 실을 수 있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 마을에 연탄가게만 5~6개 정도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 장사가 잘 안 되어 2,000장 실어다 줘도 만 오천 원, 이만 원 정도 남았다.

이렇게 하루에 8,000장 정도를 실어 날랐으니 하루에 4번 정도는 뛴 셈이다. 이수형 씨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어 그만두고 얼음 및 기름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수형씨는 연탄가게뿐만 아니라 개인집에도 배달해줬다고 하는데 100장 실어다 주고 머리를 수없이 조아려야 겨우 만원을 벌었으니 그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 기름가게를 차렸으나 석유보일러도 바로 가스로 교체되는 바람에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소일거리로 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다. 얼음공장은 제기동, 의정부 등지에 있어서 이곳에서 배달을 받아 인근에 팔았다.

시장, 시장사람들과 시장의 이용

석관동 사람들은 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청량리 시장을 다녔다고 한다. 주로 옷이나 광목을 사러 청량리 시장에 갔다고 하며, 광목을 사오면 물감을 들여 직접 옷을 해 입었다고 한다. 청량리시장은 상설시장으로 걸어서 한 시간 가량 걸렸으며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춘선 철길로 홍릉을 거쳐 장에 닿았다고 한다. 청량리시장에는 옷이나 광목을 사는 것 외에 주로 농사지은 농산품을 팔러 다녔다. 60년대 이후 장위동과 석관동 지역에는 시장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장위시장과 석관시장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점차 근처 시장을 이용했으며 시장에서는 주로 생필품, 부식을 샀다고 한다. 아래는 장위동과 석관동 지역에 있는 시장의 설립(허가) 시기를 기준으로 요약한 표[34]이다.

명칭	위치	설립(허가)시기	경영자	점포수	비고
장석(법인)시장	장위3동 60-1	1968.08			건물형
새석관시장	석관2동 338-18	1971.05			건물형
장위시장	장위2동 238-496	1972.07		82	건물형
번동시장	장위동 301	1972.09		38	건물형
석관(법인)시장	석관1동 270-1	1969.04		104	건물형
장위골목시장	장위2동 68-225	2005.01		115	골목형
석관황금시장	석관동 279-15	2006.01		70	골목형

위의 표와 장위동, 석관동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장위동에는 장석시장, 장위시장, 새장위시장, 장위전통시장, 번동시장, 장계시장, 장계골목시장 등 총 7개의 시장이 있었다.

장석(법인)시장은 1968년에 설립허가가 난 시장이다. 삼익아파트 입구 안에 있는 시장으로 장위4주택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철거되었다. 장위시장은 설립허가가 1972년에 났으나 토박이들은 장석시장보다 먼저 생긴 시장이 장위시장이라고 이야기 한다. 장위시장이 처음 설 때 줄타기 등 놀이꾼들도 불러 크게 놀았다고 한다. 장위시장은 지금의 장위전통시장 윗부분에 속하며, 코코마트 자리와 그 주변 골목에 섰던 시장이다. 지금은 코코마트가 서고, 골목시장은 장위전통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장위시장 맞은편에 새장위시장도 섰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장위동 301번지에 있던 번동시장은 이미 없어진 상태다. 이 표에는 없으나 마을주민들은 장계시장과 장계골목시장도 있었다고 말한다. 장곡초등학교 골목길에 형성된 장계골목시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장위5구역 자리, 즉 광운초등학교 못 가서 건너편 옛날 주택은행 아래에 장계시장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

진 상태다. 이렇게 보면 장위동에서 현재도 운영 중인 시장은 장위시장, 장위전통시장, 장계골목시장뿐이다.

장위골목시장은 현재 장위전통시장으로 바뀌었다, 장위시장과 같은 골목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따로 조직하여 2005년에 장위골목시장이라고 등록하면서 생겼다고 한다. 등록 당시 점포는 133개였다. 그 위쪽에 위치하면서 장위전통시장이란 초록색 천막을 걸지 않는 점포는 장위골목시장 등록에 동의하지 않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장위전통시장은 절반 가까이가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 이미 많은 상인들이 가게를 비운 상태다. 현재 재개발구역 안에 남아있는 20여개 점포는 10월말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 재개발로 인하여 196개였던 점포가 56개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충남전자를 운영 중인 허광수 사장도 올 10월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해서 가게 정리에 한창이다. 가게 한쪽 옆에는 단골들이 가져 온 수리할 가전제품들이 쌓여 있다. 이 가게가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듣고 수리할 가전제품들을 가져왔다고 한다. 충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공과대를 다닌 그는 가전제품 판매와 수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1967년에 장위시장에서 들어 올 때만 하더라도 장위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방고개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 사람들이 걸어서 이 시장골목을 지나다녔고, 또 대동극장이 있어 영화를 보려거나 버스를 타려는 번동 사람들이 이 골목시장으로 지나가곤 했었다. 그래서 그 때는 시장이 아주 잘 되었다. 처음 광명상사라는 상호로 시작한 그는 60년대에는 전기밥솥이 나오기 전이라 석유풍로가 잘 나갔다고 한다. 후지카 같은 상표는 3,000원 정도 했는데 그 당시로 놓고 말하면 비싼 가격이었다. 심지 한 장 껴주

는 데도 150원 씩 받았다. 지금도 가끔 석유풍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곰탕을 끓일 때 가스가 많이 나간다고 하여 석유풍로를 사 가는데 현재 석유풍로 가격은 7~8만 원정도 한다. 심지 한 장 가는데 1만 원정도 받는다.

장위전통시장은 상인회 회원이 91명, 임원이 12명이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갖고, 관리비조로 하루에 1,000원씩 낸다. 상인회에서는 시장에 대한 관리와 명절날 고객 맞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상인 15명이 장위전통시장 집수리봉사단을 조직하여 5년 동안 각 동마다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하나를 선정하여 수리를 했었다. 그러다가 봉사단 회원들이 이사 나가고 하면서 지금은 이미 끊긴 상태다.

석관동에는 새석관시장, 석관시장, 석관황금시장이 있다. 1971년에 설립허가가 난 새석관시장은 현재 1층에만 몇몇 가게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다. 석관시장은 1969년 설립허가를 받은 건물형 시장으로 1층에 탑마트가 들어와 있다. 이 두 시장은 주인이 바뀌고 마트가 들어서는 등의 원인으로 이미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석관황금시장은 석관동 279-15번지에 형성된 골목시장으로 70년대부터 형성되었다고 한다. 김치가게와 부동산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씨 부부 가게가 이 시장에서는 제일 오래된 가게다. 이곳에서 장사한지 45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 이 가게는 오래된 터줏대감답게 가게 옆에 간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있다. 사랑방처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곳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지금 이 가게 옆에는 돌곶이시장 공용화장실과 상가운영회 건물 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김동현 씨 부부가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부인만 김치를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당시 김동현 씨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몇 년 후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 자격증을 얻어

부동산을 운영하게 되었다.

1975년 즈음, 돌곶이시장에는 몇몇 집이 골목에서 야채 등을 팔고 있었고 지금의 규모처럼 형성되지는 않았었다. 그 후 많은 점포들이 들어오고 하여 현재는 80여 개의 점포로 발전하였다. 그 중 가공식품 점포가 22개, 음식점이 13개, 농수축산물 판매점이 18개로 절반 이상이 먹거리 관련 점포이다. 2006년에 명칭을 석관황금시장으로 바꾸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골목시장 살리기에 힘을 쏟았다. 2016년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조직한 상인대학을 40여 명이 졸업하였고, 2017년에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시장 명칭을 '돌곶이시장'으로 변경하여 지역과 밀착된 시장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였다. 10년간 초기 상인회 회장을 지낸 김동현 씨는 돌곶이시장이 초창기에는 건물도 없이 파라솔 형태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햇빛 가리개 작업까지 하여 많이 깔끔해진 상태라고 한다. 초창기에는 상인회 회비로 하루에 300~500원 정도 냈었다고 하며, 지금은 매월 3만원씩 낸다.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를 가며 상인회 회원 중 경조사 시 화환도 보내준다.

(류영희)

〈제보자〉

강명복(석관동 토박이, 석관동 도당제추진위원회 총무)

길희봉(장위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김동현(돌곶이시장 상인)

박필규(돌곶이시장 상인회 회장)

우덕수(장위동 토박이. 장위동에서 7대째 거주, 활량리 향우회 총무)

허광수(석관전통시장 상인. 충남전자 사장)

미주

1 1955년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의 행정 동제 실시로 행정동은 장석동, 법정동은 장위, 석관동으로 이원화 되었으며, 1963년 구청별 관할구역 조성으로 장석동을 장위동과 석관동으로 분동하였다. 1970년 5월18일 장위동이 제1, 2동으로 분동, 다시 1977년 9월 1일(시조례 제1181호) 장위 제3동이 신설되었다. 석관동은 1975년에는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석관 제1, 2동으로 분동하여 현재의 석관 제1동으로 칭하게 되었다가 2007년 12월 30일 석관동으로 통합되었다. 이렇듯 장위동, 석관동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된 것은 1949년 이후다.

2 지금의 김진홍가를 마을사람들은 '남녕궁'이라고 불렀다.

3 윤대감은 마을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으로 윤의선의 묘인지 윤용구의 묘인지는 확실치 않다.

4 장위리 자연마을에 관련한 내용은 김일림, 「성북구」, 『서울문화』 5집, 서울문화사학회, 1999, 149~151쪽 참고.

5 총독부기록물, 941-952쪽,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Up.do?totalSearchType=1&upside_query=%EC%9E%A5%EC%9C%84%EB%A6%AC

6 윤헌영(1896~1946)의 생부는 윤용구이다. 즉 윤용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윤용구의 형인 윤정구(1841~1903)의 양자로 갔다. 『해평 윤씨대동보』 3권 141쪽, 510쪽.

7 『해평 윤씨대동보』 3권 141쪽, 510쪽 참고.

8 辛亥譜制定行列字(自24世至33世)-『해평 윤씨대동보』首卷 568~569쪽.

9 성북문화원, 『성북구 문화재지역 구술자료집-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2015, 90쪽.

10 [네이버 지식백과] 양자 [養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0578&cid=46635&categoryId=46635

11 윤용구(1853~1939), 생부 회선(會善).

12 김일림, 위의 논문, 1999, 143쪽 인용.

13 그러나 일제강점기 1912년 총독부토지조사부에서는 여흥민씨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여흥민씨 집성촌에 관련해서는 추후 검증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14 조선총독부 편, 『고양군 숭인면 장위리 토지조사부』, 국가기록원, 1912, 1133~1149쪽.

15 창덕궁 소유의 토지가 분묘지 14,879평, 대지 1,679평, 밭 384평; 국유지는 대지 507평,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지로 대지 251평, 밭 6,338평, 논 80,115평; 석관리

마을 소유지 논 1,855평, 대지 2,011평, 못과 늪(池沼) 90평, 임야 40평이 있었다.

16 1912년『고양군 숭인면 석관리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토지 소유자는 정씨(정순원, 정원성, 정도성, 정운성, 정인수), 최씨(최윤선, 최광윤), 도씨(도소사), 전씨(전소사, 전창진, 전순규), 한씨(한광현), 김씨(김영작, 김현준, 김식봉, 김영조, 김윤여), 박씨(박치관), 손씨(손영화), 유씨(유진홍) 등이다.

17 예전 창고 및 경로당으로 사용.

18 이성희,「도시 여성 친목계 연구: 장위 재개발 지역 여성 친목계를 중심으로」,『비교민속학』제45집, 2011, 277~288쪽.

19 정승모,「석관 제3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민속조사보고서」, 2008.

20 2018『「성북구지」발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로 미 출판물임.

21 2018년 4월 12일 현지 조사. 제보자: 석관동 강명복 씨 구술 (2018년 조사, 면담자: 류영희).

22 1993『성북구지』, 2005『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23 국립민속박물관,「제웅치기」,『한국세시풍속사전 · 정월편』, 2014, 183쪽 인용.

24 국역 출처 : 한국고전종합DB 승정원일기.

25 논과 밭의 숫자는 1912년 조선총독부 자료『고양군 숭인면 석관리 토지조사부』와『고양군 숭인면 장위리 토지조사부』를 통계 낸 숫자임.

26 성북문화원 편,『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205쪽.

27 조미은,「朝鮮衡平社 經濟活動 硏究」『성신사학』제12.13합집, 1995, 99~130쪽.

28 서울시사편찬위원회,『서울통계자료집(일제강점기편)』, 1993, 163쪽.

2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3, 144쪽.

30「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31『마장동』, 서울역사박물관, 2013.

32 석관동 강명복 씨 구술. (2018년 조사, 면담자: 류영희)

33 석관동 강명복 씨 구술. (2018년 조사, 면담자: 류영희)

3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의 시장』,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7,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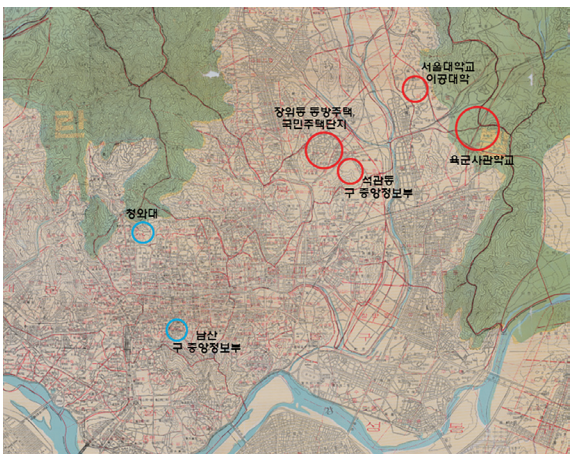
7장 | 장위동 · 석관동의 건축이야기



장위동 · 석관동의 건축이야기

장위동과 석관동은 1960년대 이후 도심의 본격적인 확장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주택단지의 건설, 국가권력의 상징이었던 구 중앙정보부가 자리잡기 시작했던 지역이다. 중랑천의 동쪽으로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이공대학(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 자리잡고 두 지역은 경춘선과 화랑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다.

석관동 중앙정보부는 청와대와 가까운 남산에 신청사가 지어지며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국가지정문화재 의릉 권역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개정서울특별시전도(1974)에 표시한 1960~70년대의 주요 권력기관과 장위,석관의 장소

수십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소규모 밀집 주택 단지는 재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있고, 의릉은 지속적인 복원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 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동네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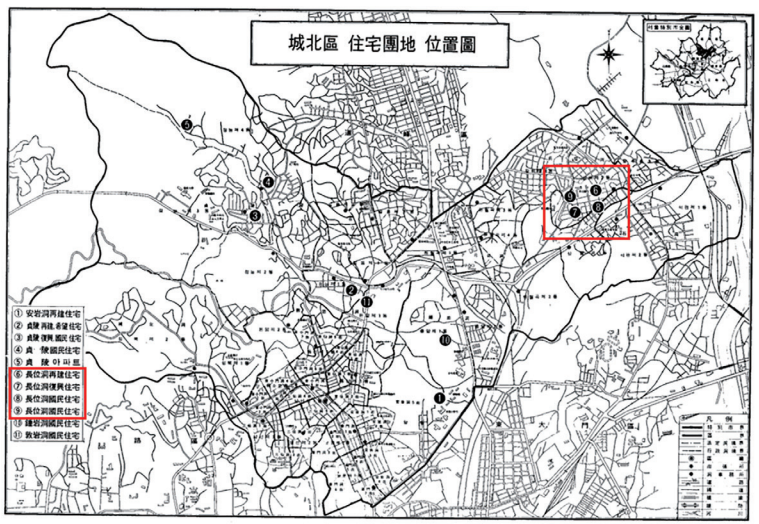
장위동

국민주택단지

대한주택공사(1962년 설립)가 발행한『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의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는 네 곳의 재건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단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춘선이 청량리~성북~신공덕~화랑대를 거쳐 춘천방향으로 향하는 철도 노선이었고, 장위동은 성북역 근거리에 있었기에, 다른 외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이 유리한 지역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신공덕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가까웠고, 화랑대역은 육군사관학교 앞이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서울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었고, 한



성북구 장위동의 주택 단지 네 곳의 위치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83쪽)

양도성 외곽으로 꾸준히 주거지역이 확장되어가고 있었다. 각 주택의 명칭은 자금의 조달 방식에 따라 불리던 사업의 명칭에서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외국 원조주택이 지어지던 당시 3종 세트로 흔히 묶여 불리던 주택이 있었으니 재건주택, 희망주택, 부흥주택이 그것이다. 재건주택 역시 원조자금이 바탕이 되었지만, 직접 원조 대신에 입주자가 공사비의 20% 정도를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는 5~1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소 다르다.
>
> 희망주택 역시 9평의 꿈을 부추겼다. 집 지을 땅값이며 공사비를 모두 입주자가 부담하되 자재는 대한주택영단에서 배정해 공급한 분양주택이 곧 희망주택이다.
>
> 부흥주택이란 산업부흥국채를 재원으로 시행되는 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 붙은 이름이다. … 주로 7회와 8회에 발행된 산업부흥국채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삼아 공급한 주택을 특별히 '부흥주택'이라 부른다.
>
> —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박물지』, 도서출판 집, 2017, 78~79쪽.

1956년까지 재건주택, 부흥주택, 희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약 3,000여 호에 이르는 주택이 공공 분야 주도로 공급되었다.

재건주택은 정부계획에 의거해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이 원조하는 자재 및 자금으로 건설 · 관리하는 주택을 말하며, 부흥주택 · 국민주택은 정부시책으로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 또는 귀속재산처리적금 중 주택자금 융자에 의해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이다. 또 희망주택은 대

지와 공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되 자재에 한하여 영단에서 배정,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372~373쪽.

월곡동 일부가 주택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장위동에는 1958년에 부흥주택과 재건주택, 1962년부터 1964년까지 국민주택 사업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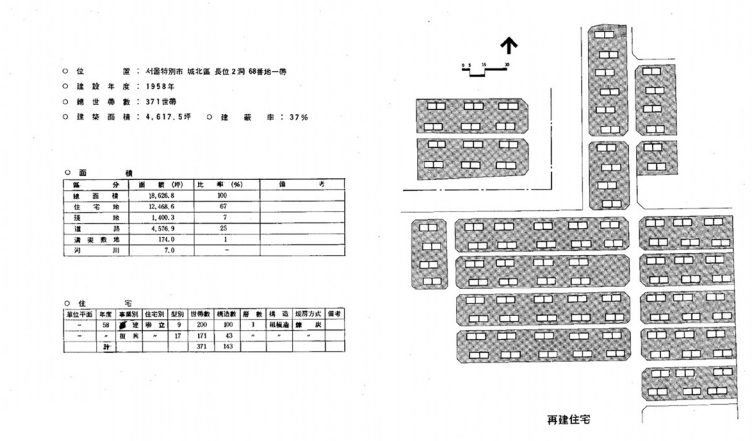
지역별 주택건설실적(『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310~311쪽)

지역명	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면적(평)	연면적(평)	주택별	형별	구조	동수	세대수	비고
장위동(월곡동)	부흥	58	18,627	4,618	연립	17	조적조	43	171	
장위동(월곡동)	재건	58			연립	9	조적조	100	200	
장위동	국민	62	7,243	1,205	단위	8,10,15	조적조	108	108	
장위동	국민	63,64	23,166	1,615	단위	11,12,15,17	조적조	110	110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에는 1958년 성북구 장위2동 68번지 일대에 총 371세대의 주택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재건주택은 9평형 200세대 100개 동이 지어져 2세대가 1개동을 사용하는 2호 연립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부흥주택은 18개 유형 171세대 43개 동이 지어져 4세대가 1개 동을 이루는 4호 연립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부흥주택과 재건주택의 구역은 현재의 위성지도에서도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의 총람에 실린 항공사진을 보면, 각 주택의 형태와 단지의 규모를 짐작하기가 쉽다.

장위동 부흥주택은 단지의 조성과 연립 주택의 배치, 재료의 사용 등



○ 位　　置：서울特別市 城北區 長位2洞 68番地一帶
○ 建 設 年 度：1958年
○ 總 世 帶 數：371世帶
○ 建 築 面 積：4,617.5坪　○ 建　蔽　率：37%

○ 面　　積

區　分	面　積(坪)	比　率(%)	備　考
總 面 積	15,626.8	100	
住 宅 地	10,448.6	67	
隣 地	1,400.3	7	
道 路	4,576.9	25	
遊 樂 敷 地	174.0	1	
河 川	7.0	−	

○ 住　　宅

單位平面	年度	事業別	住宅別	型別	世帶數	構造數	層　數	構　造	規劃方式	備考
−	58	國 庫	單 立	9	200	100	3	鐵筋混	鐵　筋	
−	〃	自 共	〃	17	171	63	〃	〃	〃	
	計				371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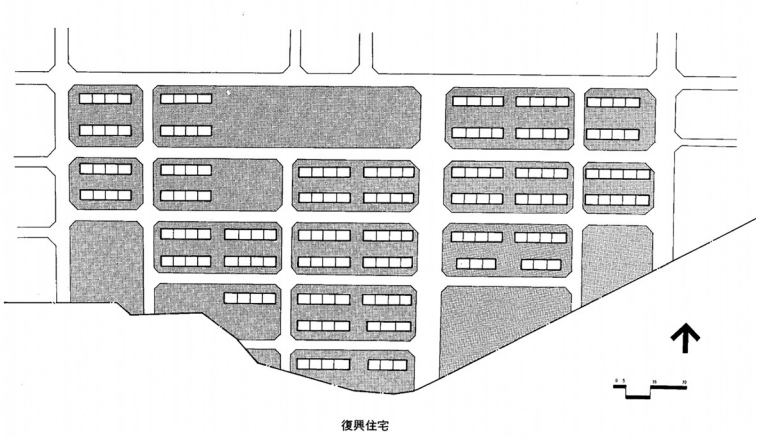
再建住宅

장위동 재건주택 개요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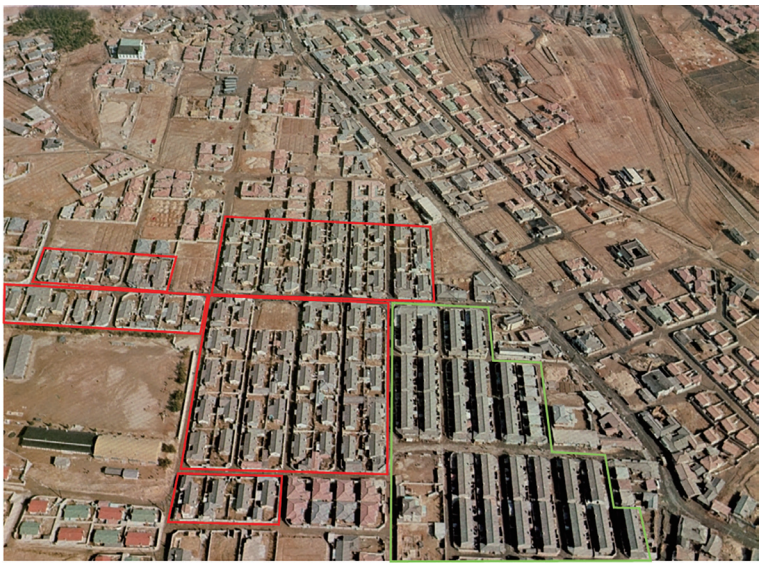
이 1957년 지어진 홍릉의 부흥주택과 매우 유사하다. 1950년대 말은 전후 복구 및 재건의 시기로, 건설 재료의 수급이 쉽지 않았고, 원조를 통한 자금과 재료의 조달을 통해 대량으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지어졌기에, 신축 이후 수십 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증축과 개축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서울 동북부에 조성된 부흥주택은 외벽의 마감과 동 배치와 규모 등 대량 생산 주택의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총람에 1958년에 지어진 부흥주택의 평면은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단위 주택단지의 경우 비슷한 시기의 다른 지역에도 다수의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있어, 그와 관련된 기록물을 통해 건축물 내부 공간 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홍릉의 부흥주택은 1957년 원조를 받아 지어졌다. 이 단지는 남북으로 형성된 대로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4호 연립으로 길게 만들어졌다. 확



장위동 부흥주택 개요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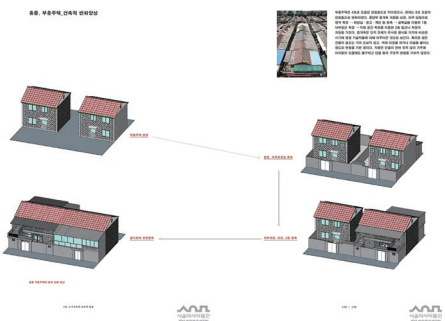
1979년 5월 발행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94쪽에 수록된 건설당시 항공사진에 재건주택(붉은색)과 부흥주택(초록색) 구역을 표시

장과 증축을 통해 연립동 사이의 길까지 연결되어 8호 연립의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 건물 정면에 대문을 두고 양쪽으로 화장실, 창고, 계단을 설치하여 외관상 벽이 형성되었으며, 2층 대부분은 1층 지붕 부분을 확장해 발코니 형태로 사용되고, 셋방을 두는 경우가 많아 복도와 공용공간을 마련했다. 측면은 박공 형태를 유지하며 측면으로 대문을 설치하였으며, 외벽은 백회에 돌을 박아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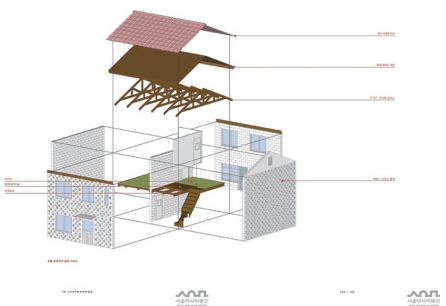
— 서울역사박물관, 『2012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청량리-일탈과 일상』, 2012, 147, 153쪽.

홍릉 부흥주택의 원형 구성도와 건축적 변화 양상을 참고로 장위동의 부흥주택 구역을 살펴보면, 유사한 형태와 재료가 사용된 주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장위동에 1958년에 부흥주택과 재건주택이 들어서고, 이 구역의 남쪽과 서쪽으로 국민주택 단지가 추가로 들어섰다.

돌곶이역 교차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화랑로는 1976년 6월 26일 방



홍릉 부흥주택의 원형 구성도 (서울역사박물관, 2012.12, 『2012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청량리-일탈과 일상』, 154~155쪽)



홍릉 부흥주택의 건축적 변화양상 (서울역사박물관, 2012.12, 『2012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청량리-일탈과 일상』, 158~159쪽)

사2호선의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이 길은 조선시대 이후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가로京元街路로 혜화문 밖에서 의정부와 춘천으로 연결되던 길이었다. 노원구 공릉동에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인 화랑대花郎臺에서 도로의 이름이 붙여졌다.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화랑로와 인접한 북쪽에서 장위초등학교(1946년 분교로 개교, 1949년 국민학교로 승격)의 남쪽까지 전후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주택단지 조성 이후 1972년에 단지의 서쪽에 월곡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부흥주택, 재건주택, 국민주택 단지는 장위초등학교와 월곡초등학교 사이에서 화랑로 북쪽까지 넓은 구역에 단지 구획을 가지고 있다. 주거지역에는 골목형 시장인 장위골목시장이 부흥주택과 재건주택 단지에 붙어 형성되었고, 1972년에는 건물형 장위시장이 개설되었다.

1962년부터 지어진 국민주택은 장위동의 남쪽 경계인 화랑로에 인접하여 단지가 형성되었고, 1963년에 들어선 국민주택은 언덕과 경사지에 자리잡았다. 부흥주택과 재건주택은 연립형이고, 국민주택은 단독형으



장위동에 남아있는 1958년 부흥주택



장위동에 남아있는 1958년 부흥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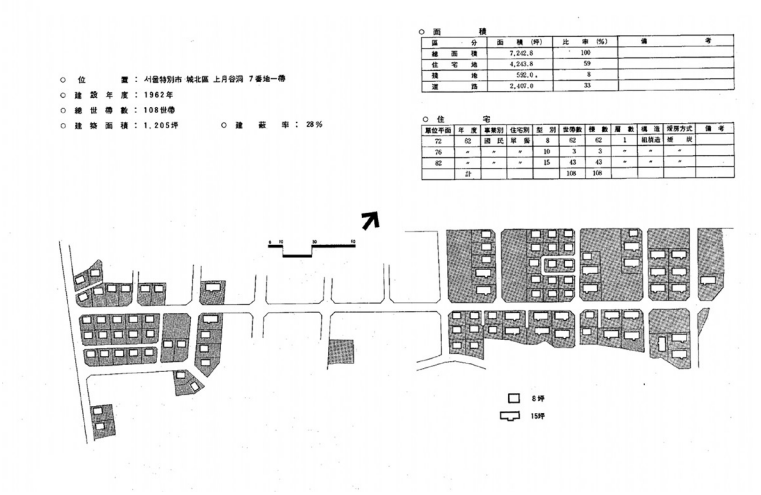
로 조성되었는데, 개별 필지와 건축물이 대부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남아 있는 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연립형 부흥주택과 재건주택 지역은 2019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골목형 시장 주변으로 철거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국민주택단지 조성 지역에서 많은 건축물이 다세대나 원룸형으로 바뀌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층 주택으로 외벽과 지붕을 개량하면서 주거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곳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총람에 각 평형의 평면들이 수록되어 있어, 대량으로 지어진 주택단지의 공간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방이 두 개



2018년 항공사진에 1958년 재건주택과 부흥주택, 1962년, 1963-64년 국민주택의 단지 구역을 각각 표시함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에 보고된 해당 대지에 건물이 올려진 곳을 2018년 항공사진에 맞추어 추정)



○ 位　　置 : 서울특별시 城北區 上月谷洞 7番地一帶
○ 建 設 年 度 : 1962年
○ 總 世 帶 數 : 108世帶
○ 建 築 面 積 : 1,205坪　　○ 建　蔽　率 : 28%

○ 面　　積

區　分	面　積 (坪)	比　率 (%)	備　考
總 面 積	7,242.8	100	
住 宅 地	4,243.8	59	
鐵　地	592.0	8	
道　路	2,407.0	33	

○ 住　　宅

屋位平面	年　度	事業別	住宅別	型　別	世帶數	棟　數	層　數	構　造	煖房方式	備　考
72	62	國 民	單 獨	8	62	62	1	組積造	煉 炭	
76	〃	〃	〃	10	3	3	〃	〃	〃	
82	〃	〃	〃	15	43	43	〃	〃	〃	
	計				10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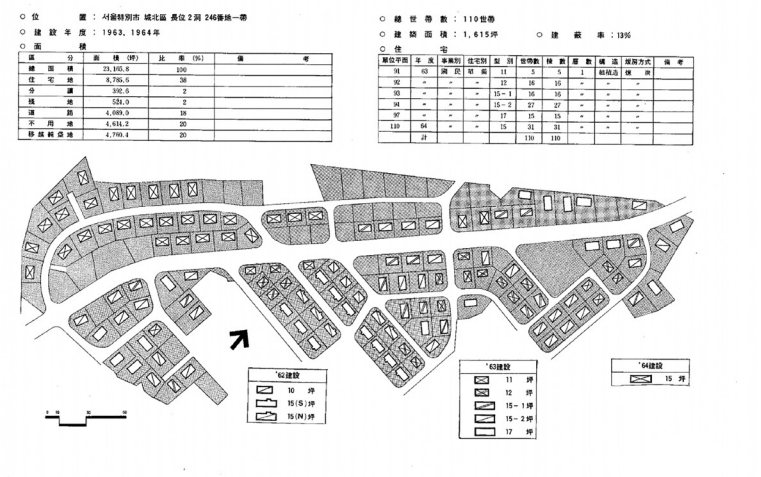
8坪
15坪

상월곡동 7번지 일대 국민주택 개요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96쪽)
(※이 구역은 서쪽은 상월곡동, 동쪽은 장위동에 속해있어, 총람에는 '장위동 국민주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임)

이상이며, 욕실의 설치와 화장실을 실내로 들여온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엌은 재래식이어서 거실과 연결되지 않고 별도의 실로 구성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주택개량 사업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위생을 도시 인프라와 생활환경 등과 함께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택은 블록구조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졌다. 단열 등의 효과와 지붕 개량 등을 하면서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은 거의 없으나, 현관과 창호, 집의 규모와 마당 등 단독형 주택으로 지어졌던 특징이 일부 남아있는 주택에서 확인된다.

장위동 국민주택 단지 구역에서 원형에 가깝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몇 개의 주택은 지역의 도시발전사와 주택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역



장위2동 246번지 일대 국민주택 개요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97쪽)

사적 증거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량으로 지어진 주택단지는 재료와 시공방법에 있어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1950년대는 전후복구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로, 주택 공급을 위한 재료와 시공방법의 개발과 적용에서 고군분투했던 대한주택영단(현 LH)의 노력도 엿볼 수 있다.

1958년 이후부터 시멘트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영단(대한주택영단)은 흙벽돌 대신에 최초로 시멘트블럭을 사용, 정릉에 2층 연립주택을 건설하였으며, 그 후 우이동 국민주택 건설시에는 보통블럭보다 견고한 증기압축식 블럭을 사용했다.

영단은 또한 일부 국민주택 지붕은 시멘트기와 대신에 석면슬레이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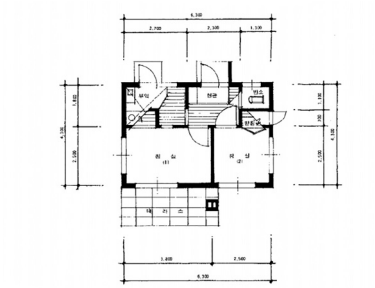
장위동에 남아있는 1958년 주택
블록구조, 68.3㎡, 기와, 시멘트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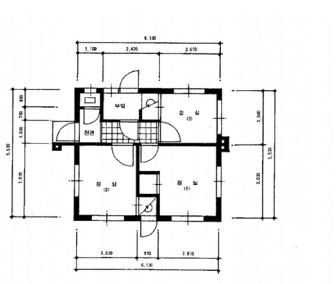
장위동에 남아있는 1962년 국민주택
벽돌구조, 61.09㎡, 기와, 시멘트기와

사용했으며 이보다 앞서 내벽에는 석탄가루를 섞어 만든 아스벽돌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때에 건설된 주택의 외부 마감은 시멘트 몰탈을 바른 위에 안료를 섞은 시리콘 방수액으로 뿜칠했다. 그리고…(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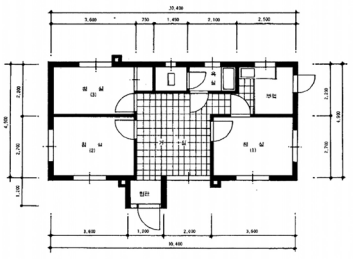
또한 건물의 외관에 있어 외벽도 시멘트 몰탈 뿜칠과 적동와를 조화시켰고 지붕재료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양산이 가능한 재료로 한국슬레이트에서 개발 생산한 슬레이트기와를 사용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붕 구배를 완만하게 할 수 있었고 모양도 현대적인 감각을 내게 되어 재래 것



1962년 국민주택 8형 평면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35쪽)



1962년 국민주택 10형 평면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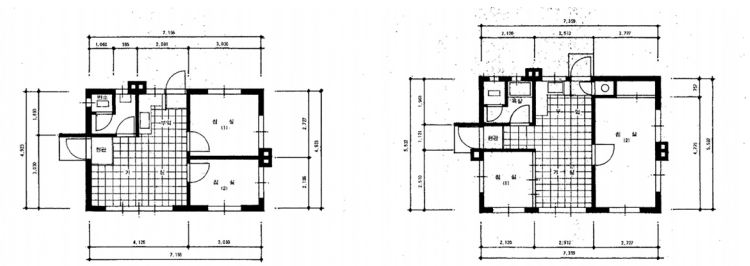


1962년 국민주택 15형 평면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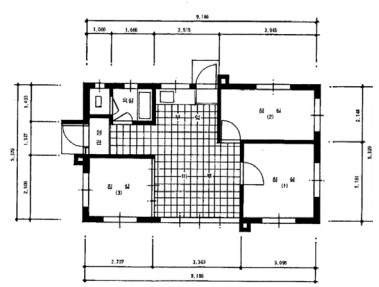
장위동에 남아있는 15형 국민주택(52.53㎡)

보다 세련되었고 건물 모양도 요철로 다양하게 했다. 국민주택은 이밖에도 많은 새 재료를 사용했는데 새로운 재료로는 1958년 정릉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온돌석 대신 최초로 신안재료인 온돌판(시멘트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이동 국민주택에서는 마루천정을 문화벽으로 시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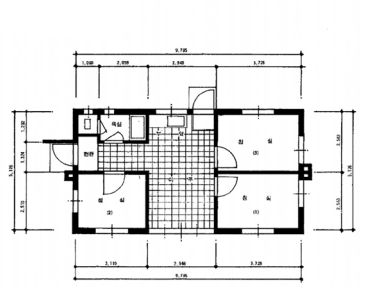
(중략) 국민주택은 재료 시공면에서도 커다란 혁신이 있었지만 설계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진보가 있었다. 평면상으로 볼 때 넓은 마루방을 리빙룸으로 만들어 주택의 생활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했고 또한 해방후 처음으로 욕실을 설치하였으나 침식분리는 이루어지지



1963년 국민주택 11형(왼쪽)과 12형(오른쪽) 평면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52쪽)



1963년 국민주택 15형 평면1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56쪽)



1963년 국민주택 15형 평면2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66쪽)

않았고 부엌도 한 단 떨어뜨린 재래식(부뚜막식)이었다. 이러한 부엌은 주택개량상으로 봐서는 일보후퇴를 의미했으나 그때만 해도 중류생활의 주부들은 그것을 원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주택은 평면에 많은 연구를 한 주택이었으며 특히 1961년도에 답십리에 건설한 9평 주택은 좁은 공간을 가장 유효하게 처리한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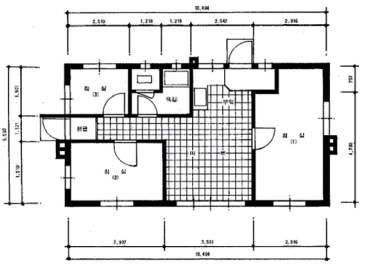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357~3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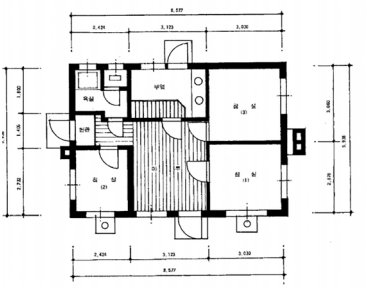
총람에 수록된 국민주택 사진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54쪽)



상월곡동(장위동 경계부)에 남아있는 '장위동 국민주택' (1962)



1963년 국민주택 17형 평면(『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56쪽)



1964년 국민주택 15형 평면(『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1954-1970)』, 266쪽)

동방주택단지

장위동 동방주택단지는 2000년대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장위13구역 일대에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동방주택단지 조성에 관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은 8장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형성'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동방주택단지의 물리적인 변화와 도시, 건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57년에 창립하여 1963년 삼성그룹에 인수되었고 1989년 삼성생명이 되었다.

강의수(姜義秀) 등 7인 발기로 창립(1957. 4. 24)

출범 1년 만에 생명보험 업계 1위에 오름

강의수 초대 사장 지병으로 별세(1963. 1)

동방생명보험 삼성그룹에 인수됨(1963. 7. 13) (동방생명보험 소유의 부동산도 함께 인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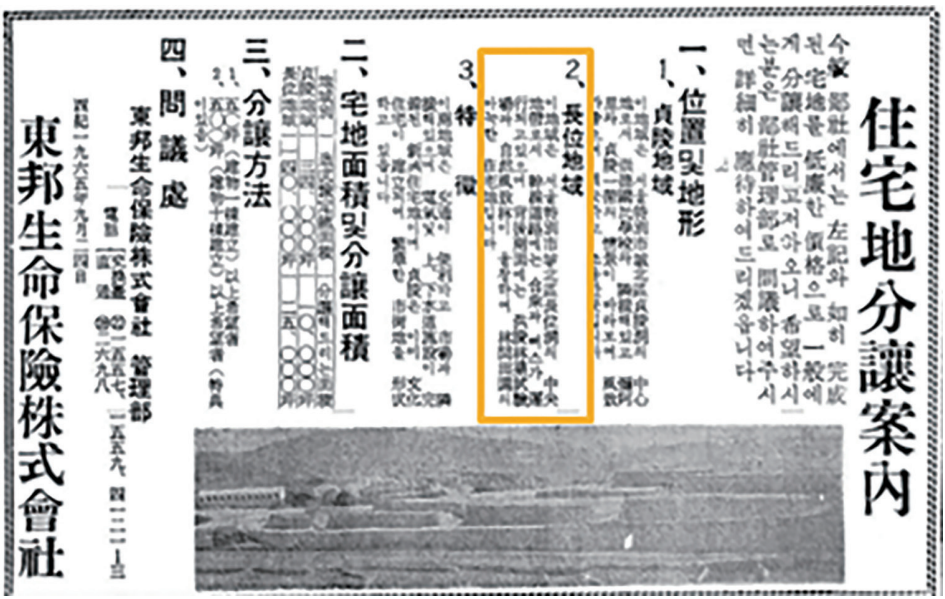
'삼성생명'으로 상호 변경(1989. 7)

—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 연혁

동방생명보험은 보유한 토지에 1964년부터 택지 개발을 진행하는데, 1965년 주택지 분양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의 주소지인 장위동 230-49번지 일대의 1968년도 폐쇄지적도에서 동방주택단지 내 지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폐쇄토지대장에서 1969년 1월 17일 230-1번지가 작은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소유자가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였음을 알 수 있다.

동방주택단지 전체의 정확한 구역 경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1960년 동방생명 대지 사건의 신문 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107,940평의 면적은 약 35만 평방미터로 32만 평방미터에 가까운 장위13구역과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장위1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장위로의 북쪽 구역이 동


住宅地分譲案内

今般 鄙社에서는 左記와 如히 完成된 宅地를 低廉한 價格으로 一般에 分譲해 드리고저 하오니 希望하시는 분은 鄙社管理部로 問議하여 주시면 詳細히 應待하여 드리겠읍니다

一、位置및地形

1、貞陵地域

2、長位地域

3、特徴

二、宅地面積및分譲面積

三、分譲方法

四、問議處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管理部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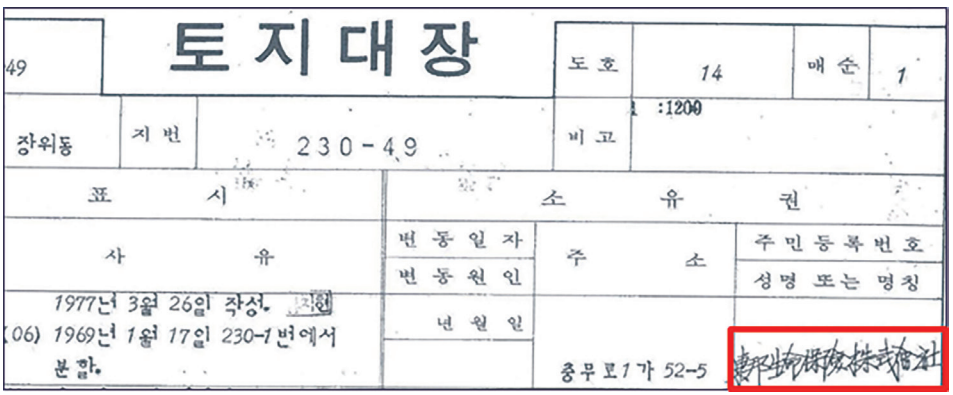
장위지역 주택지분양안내 (1965년 9월 24일 동아일보)

방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구역에 있는 '동방어린이공원'과 '동방주택' 정류장을 통해서도 그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지적의 변화를 통해 동방주택단지 구역을 살펴보면, 1966년 지적도와 1969년 지적도에서 동방생명이 구입한 장위동 산3-1번지의 변화에서 산이 모두 택지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6년 지적도에 장위



장위동 230-49번지 일대 지적도(1968년)와 항공사진(1972년)



49 토지대장 도호 14 매순 1

장위동 지번 230-49 비고 :1209

표시 소유권

사유 변동일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1977년 3월 26일 작성. 지원

(06) 1969년 1월 17일 230-1번에서 분할. 년월일 중무로1가 52-5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장위동 230-49번지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소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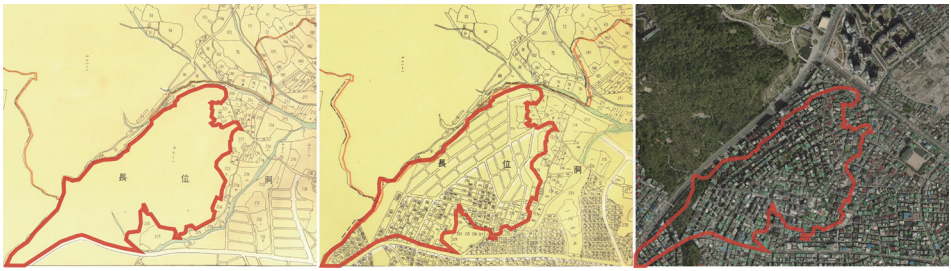
동 산3-1번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1969년 지적도에서는 해당 지번은 작은 택지로 분할되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택지 조성 이후 도로의 개설과 하천의 복개, 경계부 필지 정리 등이 시행되었을 것이고,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구역의 정확한 경계는 소유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향후 행정의 협조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1966년 지적도에 보이는 장위동 산3-1번지의 경계를 1969년 지적도와 2018년 항공사진에 맞춰보며, 현재 장위13구역에서 동방주택 단지의 경계를 가늠해보는 수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동방주택단지는 주거지역으로 주거를 지원할 근린생활시설도 필요하기에, 장위동을 동서로 크게 가로지르는 장위로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장위1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지어진 저층의 상가 건물군이 모여있다. 이 건축물들은 1층의 점포와 함께 소규모 공장과 업무 기능이 함께 들어서 있다. 단독주택과 달리 가로 장방형에 수직과 수평이 강조된 입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지어질 당시와 변함없이 시선이 높지 않은 경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위13구역의 위치

아직 1969년 이후 1970년대 초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남아 있는데, 2층의 발코니를 두고 난간이나 대문에 장식을 하기도 했으며, 마당이 큰 집들은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



1966년 지적도의 장위동 산3-1번지 경계를 1969년 지적도와 2018년 항공사진에 적용



장위로에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지어진 상가 건축물군(사진 : 카카오맵로드뷰)

목이 많이 성장해서, 이 또한 동네에서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 골목 풍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주택단지들이 인구증가와 주거난 해결을 위해 조성되고 단독형 주택들이 지어지긴 했으나, 장위동에 지어진 국민주택의 면적이 17평형이 최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동방주택단지 내 주택은 규모와 형태 등이 당시로서는 고급주택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가구의 구성과 주거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동방주택단지의 단독주택



1969년 사용승인 주택



1971년 사용승인 주택



1972년 사용승인 주택(2017년 멸실)



1973년 사용승인 주택



위 사진에서 보여준 1969년에서 1973년까지 지어진 주택들의 위치

들은 저층 경관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장위동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은 1960년대 말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분양을 한 단독주택 단지에 1970년에 지어져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1986년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어휘가 더해져 리모델링이 된 후, 2016년 장위도시재생구역 내의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매입되었다. 이후 2017년 활용계획 연구를 거쳐 보존 가치가 제안되어 서울미래유산이 되었다. 주택에서 공공시설로 용도가 바뀌면서 간단한 개보수를 거쳐 2018년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다.

1970년 폐쇄건축물대장의 건축개요와 2017년 현황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2018년 활용과정 이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건축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축		1970년 12월 17일	동방생명보험 소유
소유권 이전		1972년 6월 19일	유진쾌
연 면 적	지하층	7.04평㎡	주택
	1층	36.50평㎡	주택(차고5.76평 별도 18.91㎡별도)
	2층	36.50평㎡	주택
	소 계	80.04평㎡	과세 평수(폐쇄건축물대장 기준)
구 조 형 식		연와조 + 평옥개	벽돌조, 평지붕
구 조 형 식 표 기		연와조, 스라브	1983년 1월 1일 ㎡로 이기

1970년 신축 이후 1986년 리모델링 이전까지 큰 공간적 변화는 없었다. 리모델링을 위해 1985년에 작성된 실측 평면도상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의 면적과 동일하고, 1972년 항공사진의 건물과 마당의 모습도 1985년 실측 배치도와 일치했다. 다만, 주택 우측 인접 도로에 주차장 크기의 포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건립 이후 실질적인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이 위치한 장위동 일대는 1963년 동방생명보험이 사업용 택지로 10만여 평을 개발한 이래 1970년대 중반까지 택지 분양이 이루어졌고, 이 주택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2017년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개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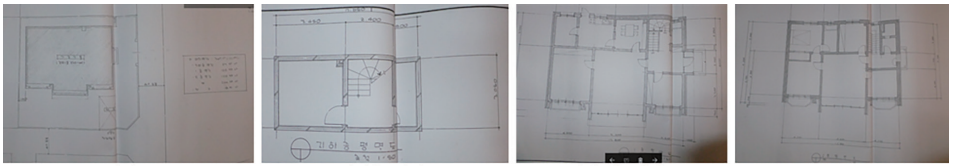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건축 개요(2017년 건축물관리대장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367.00㎡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120.66㎡	건축물대장 기준
연면적	지하층	29.27㎡	주택
	1층	120.66㎡	주택(차고18.91㎡별도)
	2층	120.66㎡	주택
	소 계	289.50㎡	연면적(건축물관리대장 기준)
구조형식		연와조 + 슬라브(지붕)	개수도면 있음
층 수		지하 1층 ~ 지상 2층	1986년 11월 23일 개수(머릿돌 기준)

남향으로 경사진 자연 지형에 맞추어 택지가 조성되었는데, 주택이 위치한 장위로21나길은 경사가 급한 서울의 구릉지 거주지의 전형적인 골목 모습이다. 주택의 북측과 동측의 길 건너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 건물이 위치한 지역보다 향후 낮은 밀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건물이 속한 블럭의 남측 도로에 면한 대지는 고밀도의 다세대주택 골목으로 변한 상태이다.

주택의 원형을 찾아보기 위하여,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 건축물 현황 도면을 분석해보면, 기존배치도를 통해 남측 차고의 위치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대문 옆 주차장의 경우 2017년에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층 평면도의 경우 3.5m×7.65m 크기로 계단실에서 내려와서 양측으로 실이 구성된 것이 보인다. 지상1층 평면도에서는 동측 진입 현관을 통해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방이 현관 전실에 면해있고, 현관 전실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면하여 1층 공용화장실 입구가 있다. 현관 전실을 통과하면 거실에 큰 방이 면하여 있으며, 식사실이 후면에 면한 공간 배치로 식사실을 통하여 부엌과 찬모방으로 추측되는 작은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상2층에는 욕실과 계단 전실을 통과하면, 1층과 같은 위치에 거실이 있고, 거실의 동측과 북측 면에 작은 방이 배치되었으며, 거실 서측은 안방 영역으로 안방에는 욕실이 붙어있고 남측실이 전실로 구성되어 있다.

1985년 8월 작성되어 1986년의 개수공사에 적용된 청사진 도면을 통해 1970년 사용승인 받은 당시의 건물의 구조를 추정하였다. 개수도면에는 기존배치도, 기존 지하층 평면도, 기존 지상1층 평면도, 기존 지상2층 평면도, 입면도가 존재하고, 배치도에 명기된 프로젝트의 제목은 '장위동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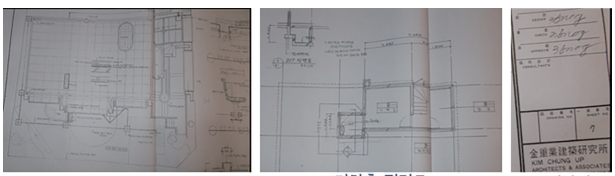
배치도 지하층 평면도 지상1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1986년 리모델링 전 기존 건축물 도면 현황

씨댁 개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도면에 명기된 서명을 통해서 설계, 심사, 승인의 과정에 주된 역할을 한 직원이 있었음을 추정했다.

2017년 조사 이후, 2019년에 이 리모델링에 참여한 사람은 정기영, 현태현, 안성일 세 사람으로, 수선작업에 참여했던 정기영은 김중업의 작품으로 알려진 박시우주택(1983)에도 참여했음이 알려졌다. (류근수, 성북도큐멘타 6 〈공공화원〉, 성북문화재단, 2019.12., 66쪽)

도면을 통해 분석을 해보면, 1986년 리모델링에서는 남측 차고의 위치가 현재의 동측 대문 옆에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변경되었고, 옥상 물탱크, 보일러용 굴뚝, 벽난로 굴뚝이 신설되면서 주택 신축 15년이 지난 후 낡은 설비의 교체를 위한 목적과 새로운 소유주의 요구에 맞추어 공간의 구조를 변경하는 개수공사가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층 평면도에는 신설된 피트(PIT, 지하 창고·보일러실 설치 등을 위해 지반을 파내 주위를 콘크리트 등으로 굳힌 부분)가 보이고, 보일러 기계실의 공사를 위해 기존



배치도 지하층 평면도 도면양식

1985년 8월 작성 개수도면



우측면의 주차장



거실과 연결된 응접실



현관홀 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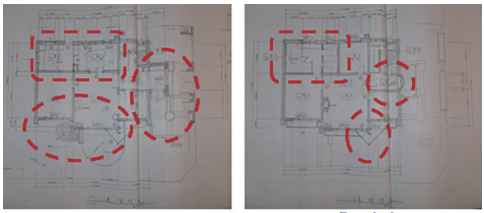
수공간

기계실의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창고는 기존대로 유지했는데, 기존 차고를 존치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공간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1층은 현관부분에 전실이 만들어지면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진입 동선이 길어지고 현관홀에 벽감이 신설되었다. 계단실에 면한 방이 응접실로 변경되면서 거실로 개방되었고 거실 출입문이 두 짝으로 확대었다. 1층 식당은 공간이 확장되었고 부엌에 붙은 작은 방을 없애고 확장하면서 식당과의 사이에 배관 덕트를 설치하였으며, 거실에 벽난로가 설치되고, 거실 전면 마당에 연못과 온실이 설치되었다. 1층 안방의 공간변화는 없었다.

2층의 계단홀은 재료가감표 기준으로 한식마루에 지정색 전타일 벽면으로 1층의 계단실 및 현관홀과 유사한 마감을 했다. 안방의 전실이 침실로 변경되고 욕실과 드레스룸이 당시 유행한 프랑스식 욕실로 변경된다. 거실의 벽난로가 신설되었고 거실의 발코니가 신설되면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세로로 긴 창이 동서측에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관과 입면에서는 옥상 물탱크의 삼각전타일과 외벽면의 지정색 전타일 마감으로 처리되었고, 알루미늄바를 사용한 온실에 5mm유리가 복층유리를 대체하게 되며, 우측면의 스테인드글라스와 동판으로 처리한 2층 창이 신설되었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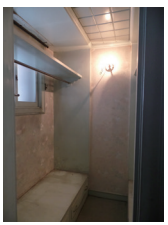
개수 도면을 통해 확인된 원형에서 변화된 부분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은 주택지의 경관, 1960년대 신축 단독 주택의 특성과 김중업건축연구소의 리모델링 작업이 더해져 역사적 변화에 대한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1960년대 주택지 대량공급시기의 전형적인 택지에 건축되어, 장위동의 주택지 경관 속에서 1970년의 건축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 신축 시 일반주택보다 규모가 큰 고급주택으로 지어졌다. 2층의 평지붕으로 건축되어 1970년 초기의 모던한 주택으로 1980년대 김중업건축연구소의 리모델링 후에도 건물의 구조는 변형되지 않고 계단실과 안방 부분의 주거공간이 유지된 부분이 상당수 남아 있다. 리모델링은 1985년 소유주가 김중업건축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적 요소가 기존주택에 더해졌고, 리모델링 후에도 실내공간과 외형의 변형이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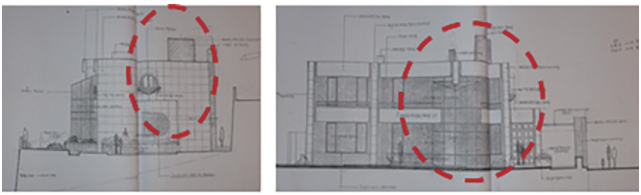
1층에 신설된 벽난로



2층 욕실 드레스룸



2층에 신설된 측면 세로창과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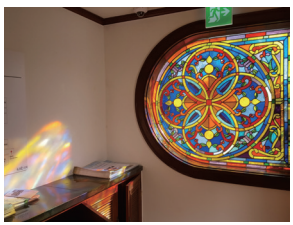
개수 도면을 통해 확인된 원형에서 변화된 부분

화되었다.

또한 김중업건축연구소 주택건축의 특징적 요소인 마당의 수공간과 외부온실, 삼각타일 마감이 사용되었으며, 기존 주택의 공간을 현관 진입에서부터 응접실에 오픈된 거실로 확장하고 거실 벽난로와 온실을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수직으로 설치하였으며, 기존 주택의 채광을 개선하기 위해 스테인드글라스를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삼각전타일의 사용은 김중업의 작품 중 남아있는 건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여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 리모델링 되던 1980년대 중반의 중요한 건축 요소라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1960년 이후 공급된 서울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주택은 1970년 초기의 고급주택의 규모와 공간구조를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우측면 스테인드글라스



옥상 물탱크 전타일과 2층 우측면 창



온실 프레임과 유리

1980년대 중반의 고급주거의 마감과 공간변화, 건축가의 어휘가 적용되어 고쳐진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건축가 김중업

건축가 김중업은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1939년 요코하마고등공업학교横浜高等工業学校(현 요코하마 국립대학) 건축학과를 다녔다. 광복 이후 1947년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교수를 지내며, 1952년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건축가 대표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근대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 사무소에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된다. 1956년 파리에서 귀국하여 종로구 관훈동에 김중업건축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국내 건축활동을 시작한다. 1966년에는 성북동 95번지에 자택 겸 아틀리에를 운영하게 되는데, 건축작품전과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치면서 당대의 건축가로 입지를 다졌다. 88올림픽 평화의 문이 김중업의 공식적인 마지막 작품이며 1988년에 별세하였다.

서강대학교 본관(1958), 유유산업 안양공장(1959), 주한프랑스대사



성북동 이병목 주택(1984)



연희동 장석웅 주택(1984)



관(1960), UN묘지 채플(1963), 제주대학교 본관(1964), 서산부인과병원(1965), 국제화재해상보험 사옥(1968), 31빌딩(1969) 등이 1960년대까지의 주요한 작품이다.

종로구와 성북구에 머물던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주택 작품 중, 석관동 한씨 주택(1956-1964), 성북동 김광섭 주택(1961), 성북동 전성우 주택(1967), 동선동 윤주탁 주택(1967), 성북동 미국 F.N.C.B 지배인 주택(1967)이 성북구에 지어졌고, 1970년대 국외 추방 시기를 지나 귀국 후 성북동 이병목 주택(1982)을 설계하였다. 김중업은 성북구에도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때 자택도 위치해 있었던 만큼, 향후 건축가의 행적과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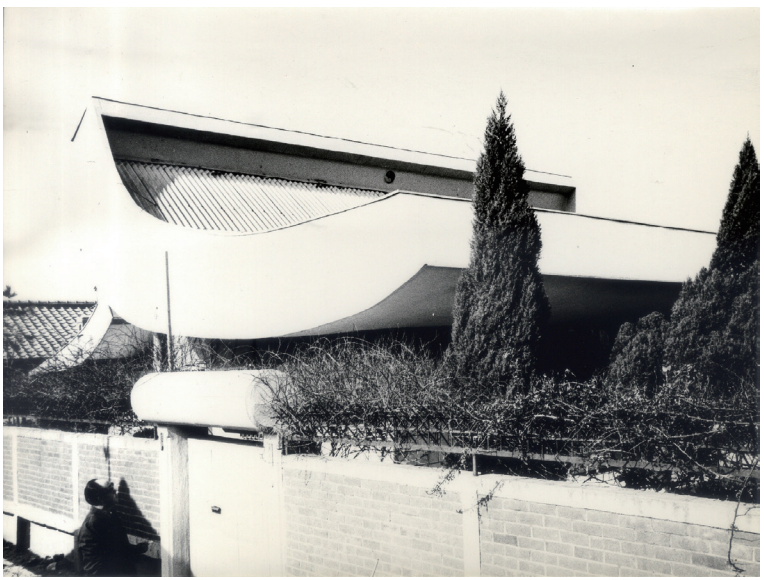
김중업이 1958년에 설계하여 1964년 준공된 작품으로 알려진 '人'자의 집은 건축가 김중업의 초기 주택 작품 중 하나이다. 석관동 한창우 주택으로도 명칭된 이 집은 위치가 분명하지 않았으나, 장위동(월곡) 국민주택단지의 자료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였다.

김중업의 초기 건축작품에서 지붕의 조형이 강조되는데, 그의 대표작인 '주한프랑스대사관'과 함께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붕의 조형으로 표현하는데에 공을 들인 작품이 바로 이 집이다. 육중하게 느껴지면서도 날렵하게 하늘을 향해 치솟은 지붕의 곡면이 매우 인상적이고, 서로 다른 지붕면이 맞닿은 곳에는 천창을 설치하여 채광의 기능과 함께 실내에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가라고 알려진 건축주의 주택을 지으면서도, 김중업은 당시 본인의 건축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人' 자의 집 서울, 1958

Mr. Han's Residence, Seoul

젊고 꿈많은 작곡가의 창작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일이었다. 작은 공간 속에 다채로움을 담고 부드러운 입김이 감돌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예산도 넉넉할 리 없고 대지조건도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교양이 배어 밉지 않은 집. 계절에 따라 표정이 바뀌고, 사는 이의 정감이 흠벅 담겨져야 했다. 지붕을 치켜올려 비바람을 막고 우리 전통의 정감어린 선을 강조하였다. 앞뒤에 놓인 구부러진 곡면지붕 사이를 띄워 환희의 햇살이 부엌과 화장실에 아른거리고, 밤에는 달과 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자연과의 의외의 만남이 집안에서



'석관동 한씨 주택' 자료 사진(출처 : 김중업건축박물관 아카이브 KCU001446)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낭만적인 풍경인가. 우연치 않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간, 내 젊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애착가는 작품이다.

"집은 노래 불러야 한다.
집이 매력에 넘치는 것은 우리들의 희열 속에 끌어올리기 때문이요,
쓸모를 넘어 영속하여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김중업, 『건축과의 빛과 그림자』, 열화당, 1984, 36~39쪽.

이 집이 있던 위치는 1962년 조성된 장위동 국민주택단지의 서쪽 월곡동 구역과 동쪽 장위동 구역의 사이에 있었다. 이미 작은 필지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대지의 경계선에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서 꽉 찬 집을 설계해야 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옥은 장방형의 긴 쪽이 정면이 되고, 측면에 지붕의 모임 형태가 보이게 되는데, 이 집의 대지는 긴 쪽이 남쪽을 향하고 있었고, 조형성이 강조된 지붕을 설계하는 데에 좁은 대지가 큰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주택이 확인되는 항공사진은 1982년도에 촬영된 것이고, 현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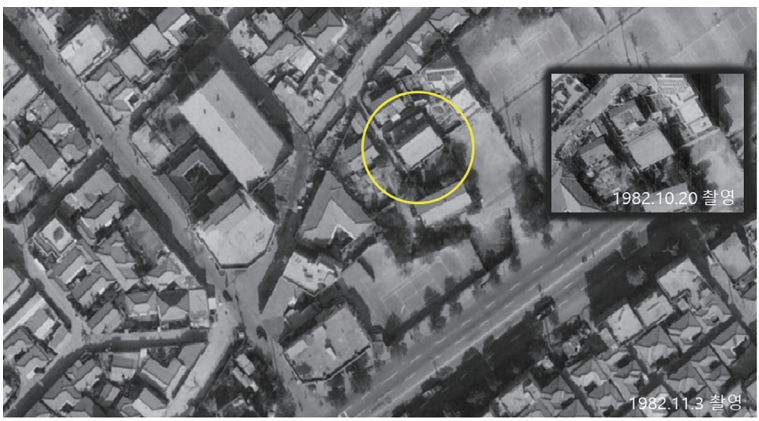
장위동 국민주택 1978년 현황 사진에서 확인되는 '석관동 한씨 주택' (사진출처 :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54-1970)」, 95쪽)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공영주차장이 있는 위치로 성북구 장위동 65-154 번지이다.

1997년과 1998년의 항공사진 비교를 통해 1998년의 주변 건물과 땅의 모습이 2019년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택이 석관동으로 알려진 이유를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주택의 남쪽의 화랑로를 경계로 북쪽은 장위동, 남쪽은 석관동으로 인접하여 있기에 석관동으로 불리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김중업 다이얼로그' 전은 김중업 사후 30주기에 열린 전시로, 이 주택에 대한 설명에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김중업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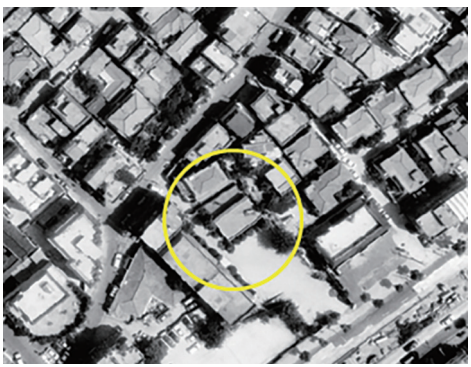
건축가 김중업 '석관동 한씨 주택'의 위치 (1982년 항공사진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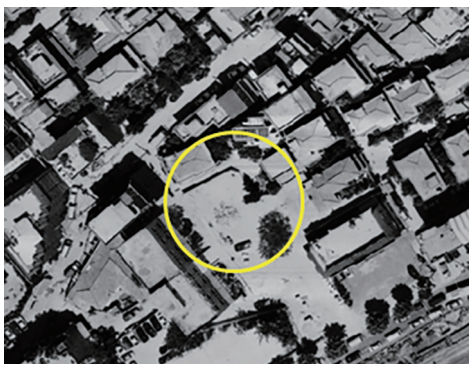
건축가 김중업 '석관동 한씨 주택'의 위치 (2018년 항공사진에서 위치 확인)

석관동 한씨 주택은 서울시 노원구 소재의 주택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41.90㎡ 규모의 벽돌조 주택이다. 독특한 형태의 지붕이 특징적인 '人'자 집은 한 작곡가의 의뢰로 지어진 단층구조의 주택이다.

1958년 설계하여 1964년 준공했다. 당시 김중업은 지붕의 조형적 의미에 대하여 많은 고민한 끝에 우리 전통의 '선'을 강조하고자 지붕을 '人'자



건축가 김중업 '석관동 한씨 주택'의 위치(1997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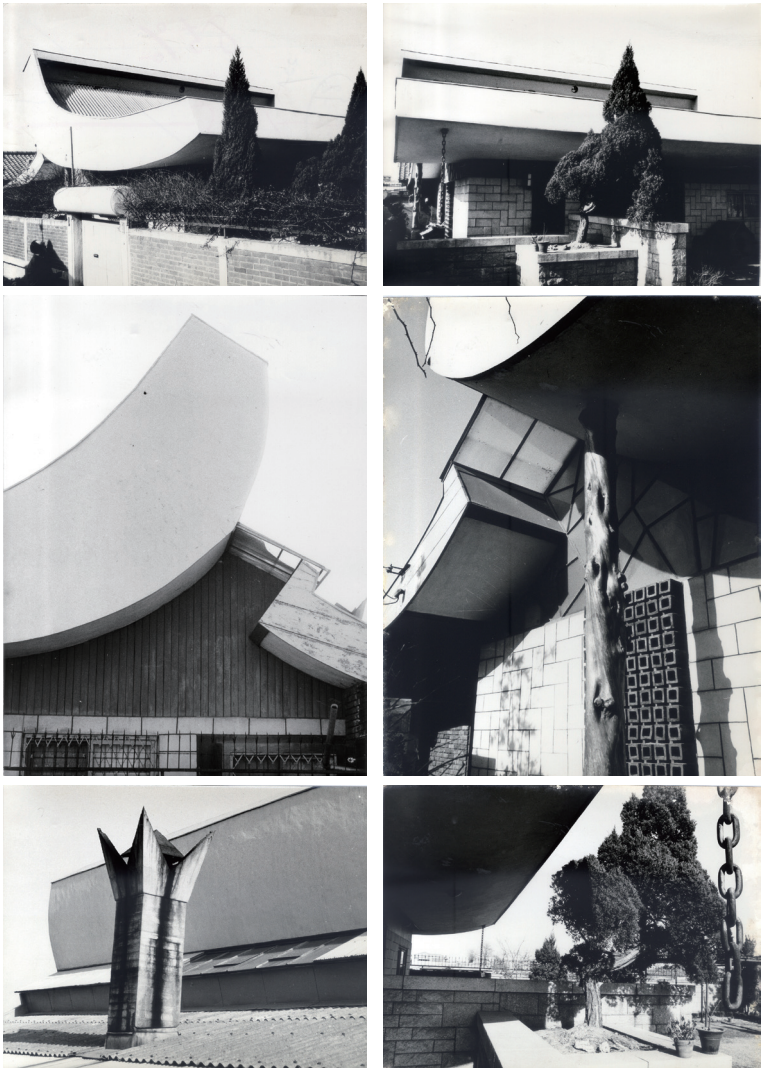


건축가 김중업 '석관동 한씨 주택'의 위치(1998년 항공사진)

의 형태로 올리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으로 설계했다.
김중업은 "작은 공간 속에 다채로움을 담고 있는 이곳에 계절에 따라 표정이 바뀌고, 사는 이의 정감이 흠뻑 담겨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중업은 이 집에 대해 "자연과의 의외의 만남이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낭만적인 풍경인가"라고 회상하며 "우연치 않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자신의 젊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애착가는 작품이다."라고 언급했다.

— 국립현대미술관 '김중업 다이얼로그'전 전시설명문

'석관동 한씨 주택'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의 지붕 형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조형성을 강조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건축 어휘의 상징성을 다양한 곳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한 작품이다. 벽난로의 굴뚝, 향후 김중업 건축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빗물체인,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던 좁은 대지 안에서의 조경 등이 반영된 주택 작품이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기록을 잘 남겨 당대의 유명 건축가가 지역에 남긴 역할과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석관동 한씨 주택’ 사진(출처 : 김중업건축박물관 아카이브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KCU001438,110436,001440,001447,001437,001442)

석관동

중앙정보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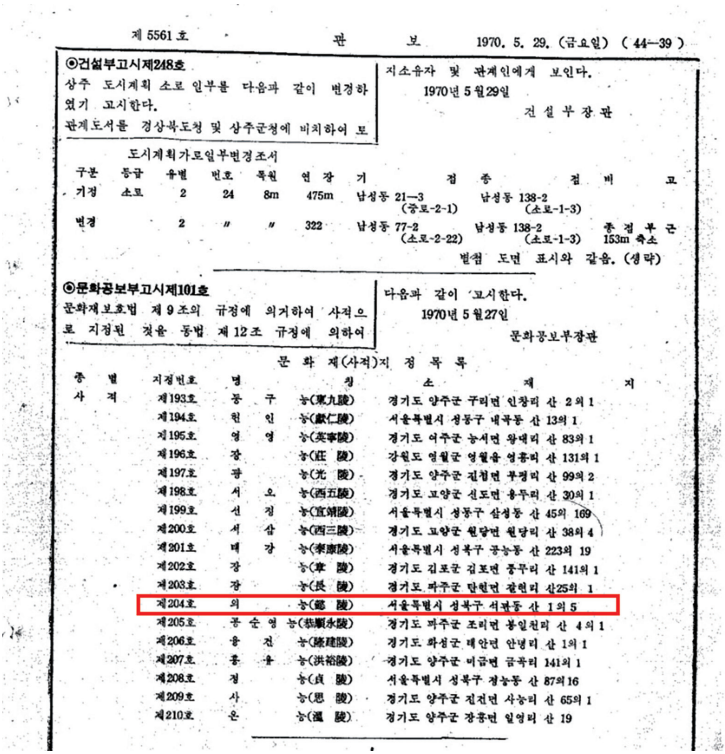
의릉과 중앙정보부

석관동 의릉 부지에 중앙정보부 청사가 들어서며, 의릉의 모습은 많이 훼손이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 5월 26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4호로 지정되고 5월 27일에 고시된다. 1970년에도 의릉 권역이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18개의 능을 한꺼번에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함께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릉이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와 서쪽의 천장산 자락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왔다.

의릉은 1960년대 초 당시 중앙정보부가 능역 내에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철저히 봉쇄된 구역이었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하였다. 이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1982년 항공사진(왼쪽)과 2018년 항공사진(오른쪽) 비교



제 5561 호　　관　　보　　1970. 5. 29. (금요일) (44—39)

◎건설부고시제248호

상주 도시계획 소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경상북도청 및 상주군청에 비치하여 보

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0년 5월29일

건 설 부 장 관

도시계획가로일부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경	소로	2	24	8m	475m	남성동 21—3 (중로-2-1)	남성동 138-2 (소로-1-3)	
변경		2	〃	〃	322	남성동 77-2 (소로-2-22)	남성동 138-2 (소로-1-3)	종점부근 153m 축소

빌점 도면 표시와 같음. (생략)

◎문화공보부고시제101호

문화재보호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동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0년 5월27일

문화공보부장관

문 화 재(사적)지 정 목 록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사 적	제193호	동 구 능(東九陵)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 산 2의 1
	제194호	헌 인 능(獻仁陵)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곡동 산 13의 1
	제195호	영 영 능(英寧陵)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의 1
	제196호	장 능(莊 陵)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 131의 1
	제197호	광 능(光 陵)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산 99의 2
	제198호	서 오 능(西五陵)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산 30의 1
	제199호	선 정 능(宣靖陵)	서울특별시 성동구 삼성동 산 45의 169
	제200호	서 삼 능(西三陵)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산 38의 4
	제201호	태 강 능(泰康陵)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능동 산 223의 19
	제202호	장 능(章 陵)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풍무리 산 141의 1
	제203호	장 능(長 陵)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 산25의 1
	제204호	의 능(懿 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산 1의 5
	제205호	공 순 영 능(恭順永陵)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산 4의 1
	제206호	융 건 능(隆建陵)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 산 1의 1
	제207호	홍 유 능(洪裕陵)	경기도 양주군 비금면 금곡리 141의 1
	제208호	정 능(貞 陵)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능동 산 87의16
	제209호	사 능(思 陵)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사능리 산 65의 1
	제210호	온 능(溫 陵)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산 19

1970년 5월 29일 관보 제5561호에 고시된 의릉 사적 지정

바뀌고 1995년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1996년에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되었고,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외래수종 제거, 전통수종 식재, 인공연못 성토, 금천교 복원 등 기초적인 의릉 능제복원 정비공사를 마쳤다. (조선왕릉 의릉 이야기, https://royaltombs.cha.go.kr/tombs/selectTombInfoList.do?tombseq=134&mn=RT_01_07_01)

2003년 7월 19일부터 10월 10일에 현장조사가 마무리되어 2004년에 발간된『의릉 복원정비지역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릉 권역에 대한 조사 배경 및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의릉은 1970년 5월 26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204호로 지정되었으나, 1962년 이미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이 자리잡고 주변으로 관련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일부 지형들이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연못 또한 중앙정보부 관리 시절에 조성된 것이며, 다행히 1995년 9월에 중앙정보부의 새로운 통합신청사가 내곡동에 준공되면서 1995년 11월 2일 부지에 대한 1차 반환이 이루어졌고, 점차적으로 2002년까지 총 4차에 걸쳐 반환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경역(境域)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지 및 건물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관리 하에 놓임에 따라 완전한 반환은 이루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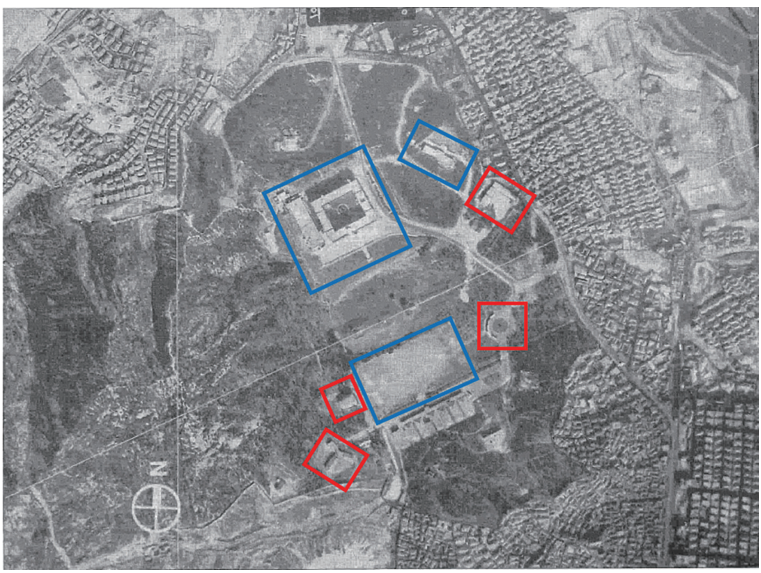
『의릉 복원정비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의릉의 일부 경역에 대하여 원래 능제(陵制)에 맞게 복원정비하고자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앞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사를 본 연구소에 의뢰하게 되었다.(문화재청 ·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4,『의릉 복원정비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석관동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는 1961년 5월 16일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창설한 국가정보기관이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은 중앙정보부 청사의 후보지 중에서 의릉을 정했다고 하며 본 청사를 비롯한 주요 건물들은 1962년부터 자리잡게 된다. 1968년 항공사진을 보면, 전체 부지에서 본관(멸실)과 운동장(멸실), 강당(현존), 현 미술원 전문사동, 현 무대제작 실습장 및 회전교차로 등 몇 개의 건물과 도로구조가 완성되었고 천장산 주변으로 담장이 둘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정보기관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현대사의 기억으로 언급되는 중앙정보부는 남산에 분청을 열게 된다. 남산에 중앙정보부 분청이 세워



1968년 의릉 일대 항공사진에 현존(빨간색), 멸실(파란색) 표시. (출처 : 문화재청 ·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4, 『의릉 복원정비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55쪽)

지면서, 고문으로 유명했던 남산 분청은 주로 국내 분야를 담당했고, 석관동 본청은 해외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남산의 중앙정보부는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며 남산의 북사면에 자리한 많은 건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남아 서울유스호스텔, 서울소방재난본부, 문학의 집 서울 등으로 사용되었다.

석관동 중앙정보부에서는 국내외 전 분야에 다양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졌는데, 1964년에는 이집트에서 볍씨를 훔쳐왔고, 1966년 북한이 잉글랜드월드컵 8강에 진출하자 당시 부훈이었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이름을 딴 '양지축구단'을 창단했다고 한다. 이 축구단 선수들은 군복무를 대신하면서 실업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등 특급대우를 받았고, 바로 이 석관동 중앙정보부 내 잔디구장에서 맹훈련을 했다고 전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저 캄캄한 '양지'의 꿈 석관동 중앙정보부 옛 청사」, 『희망세상』, 2008, 124쪽)

공개된 정보가 없어, 석관동 중앙정보부의 많은 건물들이 어느 해에 단계적으로 건립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968년과 1982년의 서울시 항공사진을 통해 14년의 시간 동안 중앙정보부 내의 시설 건립 현황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또한 중앙정보부의 건물이 설계작품 이력으로 기록된 건축가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 본관은 건축가 나상진의 작품 목록에 올라와 있다. 나상진은 국내파 건축가 중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사람으로, 군 관련 인물들과의 교류나 행정 관청과의 관계를 통하여 공공청사 분야에 상당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군사정권에서는 공공청사나 보안시설들을 공개적으로 매체에 소개하기 어려웠기에, 향후 기록이나 연구를 통해 그 작품들을 주목



1982년 2차 항공사진(출처 : 서울시 항공사진)

하거나 추적하기에 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공공청사에서 보여준 중정中庭형식의 건축계획은 건축가 사후에도 두드러져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상진(1923-1973)은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화가로 알려진 부친의 영향으로 예술적 감각을 익혔으리라 짐작이 되며, 1940년 전주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 1945년까지 일본회사 카지마쿠미에서 일한다. 광복과 전쟁을 거쳐 1952년부터 독자적인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나상진은 연합참모본부와 관계된 일을 여러가지 진행하다가 1960년대 5.16 군사혁명 이후 정부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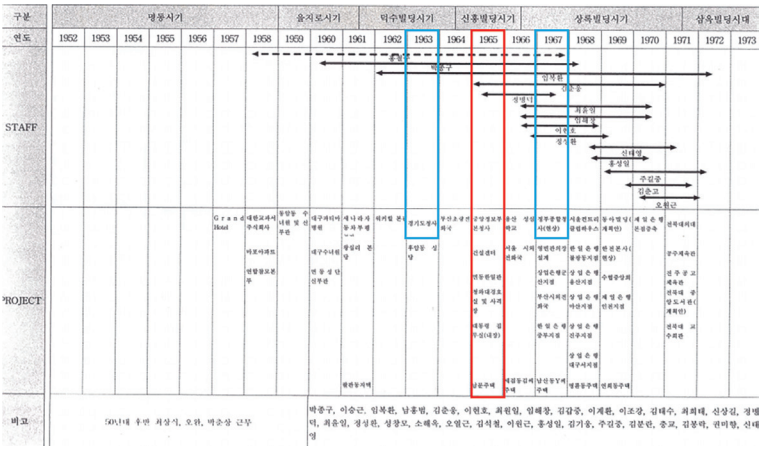
밀실정치의 공간으로 사용되던 안가를 상당수 설계하였으나, 정부 관련 시설은 보안상의 이유로 발표하지 못한 작품이 많다. 상대적으로 당시의 다른 건축가들보다 현대인들에게 인지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는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현대건축』이라는 협회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으나, 1973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이후 나상진설계사무소는 해체되었고 당시의 직원들도 각기 흩어지면서 나상진의 작품에 관한 많은 자료들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이행철, 「건축가 나상진과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0~21쪽.

나상진설계사무소 연표에 따르면, 나상진은 1965년 중앙정보부 본청사를 작품 이력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작품을 밝히기 어려웠으나, 설계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과 이후 근현대건축 연구자들의 작업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나상진은 1965년 중앙정보부 본청사를 설계하기에 앞서, 1963년 경기도청사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중앙정보부 본청사를 나상진의 건축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2년의 시차를 두고 설계된 두 건물은 모두 1960년대 관공서 청사로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중정형식의 평면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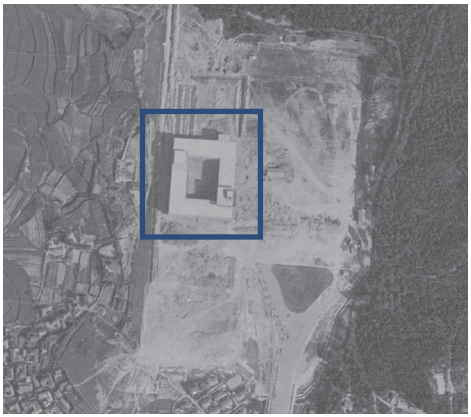
경기도청사는 건축가 김희춘과 나상진이 공동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중정형의 사무실은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며, 기존의 중복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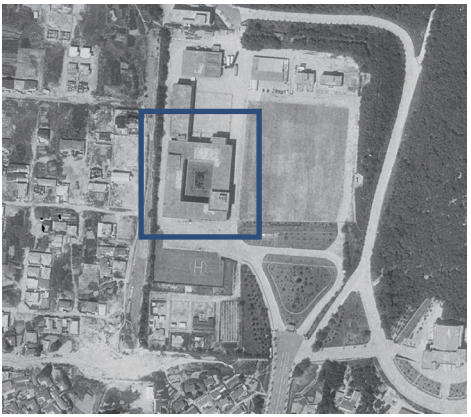


나상진설계사무소 연표 (출처 : 이행철, 2001, 앞의 논문)

건물에서는 사무공간 별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다른데 비해 중정형 평면은 사무공간과 복도를 통해 항상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중앙정보부 본관은 현재 사라져 항공사진과 멸실 전 사진자료를 통해 중정형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국가정보대학원 건물에서도 중정형이 적용된 것으로 미루어, 본관 외의 건물도 나상진이 설계하였거나, 기존 본관의 건물을 참고하여 이후 지어진 건물에 계획 형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66년 경기도청사(좌), 1974년 경기도청사(우) (출처 : 수원시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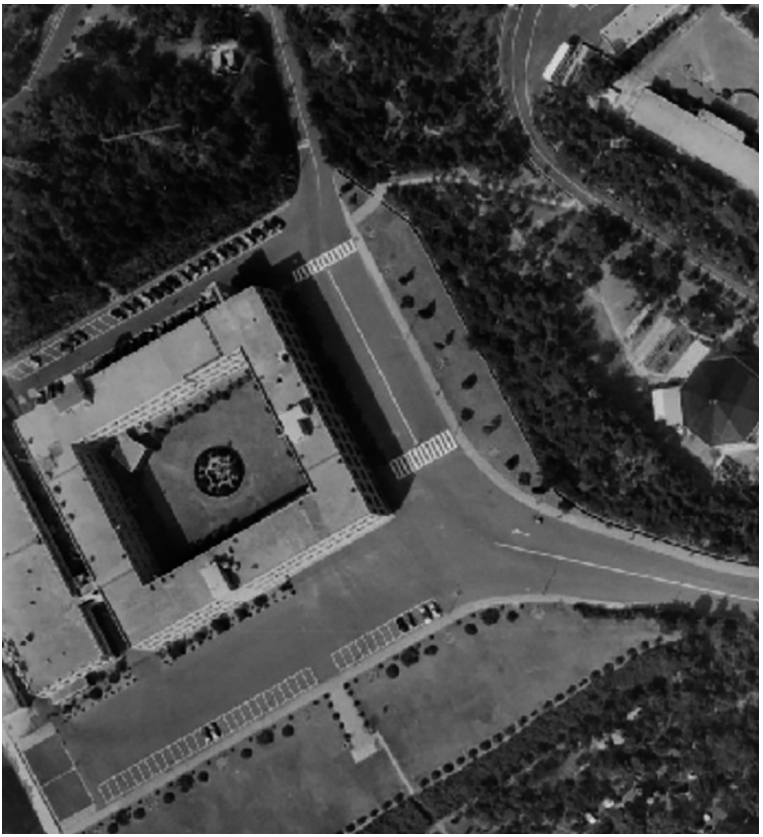


1967년 경기도청 이전 기념식 사진 (좌, 출처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이병희 유족 시민자료), 1969년 경기도청사 내부 복도 (우,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2018년 경기도청사(좌, 출처 : 수원시 항공사진), 동쪽에서 본 경기도청사 전경(우,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구 중앙정보부 본관 부분 1982년 항공사진





멸실된 중앙정보부 본관의 중정형식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8, 「저 캄캄한 '양지'의 꿈 석관동 중앙정부 옛 청사」, 『희망세상』, 15, 17쪽)



1982년 항공사진



구 국가정보대학원 건물의 중정

중앙정보부 강당

1982년 항공사진을 보면, 본관 남쪽에 의릉의 봉분이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운동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운동장의 바로 서쪽으로 낮은 건물이 보이는데 석관동 중앙정보부가 기억되는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가 이루어진 강당과 회의실이 그곳이다. 이 강당은 2004년 등록문화재 제92호로 등록이 되었다.

등록문화재 제92호 '서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2004.9.4 등록)은 업무시설로 강당과 회의실 두 개의 건조물이 연결되어 있다. 강당 부분은 2층, 연면적 466.28㎡ 규모이고, 회의실 부분은 2층, 연면적 234.7㎡ 규모를 가지고 있다.

1962년 지어진 강당과 10년 뒤 지어진 회의실로서, 1972년 중앙정보부장



1982년 항공사진(왼쪽)과 2018년 항공사진(오른쪽) 비교



1982년 항공사진(왼쪽)과 2018년 항공사진(오른쪽) 비교

인 이후락이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따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장소다. 건물은 당시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심미성 높은 건물을 설계하던 건축가 나상진(1923~1973)에 의해 설계되었다.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강당과 회의실의 정면



강당의 측면

강당은 정면 1층에 주출입구를 두고, 정면 양측면의 측면벽에 접혀 들어가는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으며, 회의실 역시 2층의 정면이 측면에 접혀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강당의 측면은 상어의 아가미를 연상시키듯 정면 쪽으로 세로로 긴 벽체가 서 있고, 창을 내면서 측면 벽에서 돌출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강당 내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의 벽체와 로비 데스크 등에 곡선을 사용하여 관공서 건물의 내부 디자인으로 보기에는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보부의 내부, 외부 행사를 치러내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용도의 건물에서는 느낄







강당 내부 로비의 곡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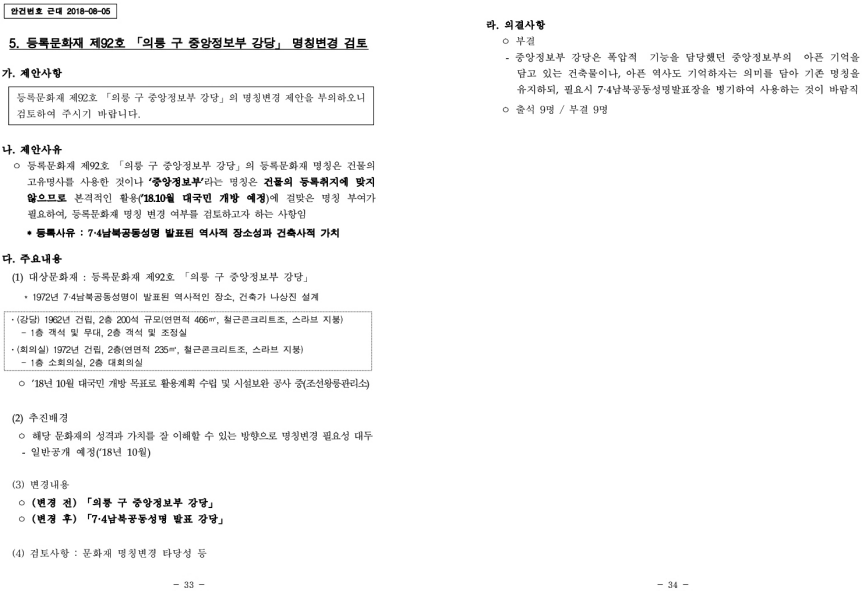
회의실동 내부와 뒷면 출입구

수 없는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요소로 사용하기 위한 처리 방식으로 생각된다. 강당 내부가 개보수 되면서 정확한 원형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조정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로비 데스크는 강당을 들어섰을 때 중요한 인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회의실동의 전면부는 1층과 2층의 면적이 다르고 강당과 마찬가지로 2층의 정면의 양쪽 부분이 벽면으로 접혀 들어간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회의실동 1층은 2019년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나 로비와 내부 공간 사이의 칸막이벽은 격자형 나무 프레임에 유리를 끼워 넣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2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붉은색 카페트가 깔려있어, 2층 본 회의실의 격식을 갖추기 위한 마감으로 사용되었다. 회의실동 뒷문에는 두꺼운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 배수를 유도하는 빗물체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회의실의 정면뿐 아니라 후면도 기능적으로 자주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2018년 8월 28일에 열린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에서는 등록문화재 제92호「서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명칭변경 검토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안사유에는 “건물의 고유명사를 사용한 것이나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은 건물의 등록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활용('18.10월 대국민 개방 예정)에 걸맞은 명칭 부여가 필요하며,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과 함께 “*등록사유 : 7·4남북공동성명 발표된 역사적 장소성과 건축사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문화재의 성격과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칭변경 필요성 대두 - 일반공개 예정('18년 10월)”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에서「7·4남북공동성명 발표 강당」으로



안건번호 근대 2018-08-05

5.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명칭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의 명칭변경 제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의 등록문화재 명칭은 건물의 고유명사를 사용한 것이나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은 **건물의 등록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활용**('18.10월 대국민 개방 예정)**에 걸맞은 명칭 부여가 필요하여,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등록사유 : 7·4남북공동성명 발표된 역사적 장소성과 건축사적 가치**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역사적인 장소, 건축가 나상진 설계

· (강당) 1962년 건립, 2층 200석 규모(연면적 466㎡,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 1층 객석 및 무대, 2층 객석 및 조정실
· (회의실) 1972년 건립, 2층(연면적 235㎡,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 1층 소회의실, 2층 대회의실

○ '18년 10월 대국민 개방 목표로 활용계획 수립 및 시설보완 공사 중(조선왕릉관리소)

(2) 추진배경

○ 해당 문화재의 성격과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칭변경 필요성 대두
- 일반공개 예정('18년 10월)

(3) 변경내용

○ **(변경 전)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 **(변경 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강당」**

(4) 검토사항 : 문화재 명칭변경 타당성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중앙정보부 강당은 폭압적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의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나, 아픈 역사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기존 명칭을 유지하되, 필요시 7·4남북공동성명발표장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출석 9명 / 부결 9명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자료(2018.8.28)

변경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중앙정보부 강당은 폭압적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의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나, 아픈 역사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기존 명칭을 유지하되, 필요시 7·4 남북공동성명발표장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출석 문화재위원 전원 일치 의결로 부결되었다.

이를 통해, 소위 '부정적 유산'에 대한 것을 감추지 않고, 명칭에서도 그대로 드러내어 살아있는 현대사의 현장 유산으로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구 중앙정보부)는 내곡동으로 이전하였고, 석관동과 남산의 기존 시설들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까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1990년대 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치되며, 서초동과 국립극장에 일부 학과들이 분산되어 있다가, 1996년 석관동 안전기획부(구 중



1982년 항공사진(왼쪽)과 2018년 항공사진(오른쪽) 비교.
운동장 남쪽의 중정을 가진 긴 장방형의 건물이 국가정보대학원으로 사용하던 건물.

앙정보부) 건물에 정착을 하게 된다.

구 중앙정보부 본관은 일부 학과(영상원, 연극원)가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의릉 복원 계획에 따라 2008년에 철거되면서, 북쪽의



2018년 서울시 항공사진(위)과 1996년 서울시 2차 항공사진(아래)의 비교를 통해,
중앙정보부의 사라진 시설은 1996년 항공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함

수송대 자리에 새로 신축한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고, 미술원과 전통예술원은 국가정보대학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본부가 있는 북쪽과 미술원이 있는 남쪽의 사이에 의릉이 자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과 재건, 성장기를 거치며, 과거의 유산과 근현대 유산이 같은 공간 안에 병치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 태릉선수촌의 남겨진 시설 또한 조선왕릉 보호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근현대 체육시설로의 가치가 있어 세계유산 조선왕릉 구역 내에서 어떻게 존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의릉이 중앙정보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 훼손되기도 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의릉이 조선왕릉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보존관리 영역이 크게 부각되었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의릉 복원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시대와 현대도시에서의 현재 의릉 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주변(출처 : 서울특별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http://3dgis.seoul.go.kr/)



남아있는 옛 중앙정보부의 시설들

같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재로서 조선왕릉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대사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옛 중앙정보부의 흔적 또한 현대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의릉 구역의 복원·정비 계획이 진행되면서, 구 중앙정보부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속적으로 이전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의 보존이 우선시되면서도, 현대사의 현장을 증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물인 구 중앙정보부의 시설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남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석관동 단독주택

주택 '가'

화랑로와 의릉-천장산 사이, 새석관시장 뒤편으로도 저층주거지가 있다. 의릉 권역에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영향인지 이 구역의 항공사진은 1982년에 촬영된 사진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 주거지의 북쪽은 화랑로에 면하고 남쪽으로는 옛 중앙정보부와 면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이 구역에 지어진 주택 '가'를 살펴본다.



주택 '가'의 위치(1982년 항공사진)



주택 '가'의 위치(2018년 항공사진)

이 주택은 단층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66.12㎡(약 20평)이며, 1961년 1월 10일에 사용승인을 얻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시멘트벽돌에 기와가 올려진 형태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2019년의 모습을 보면 외관에 나무판을 붙이고 건물 양측면의 한쪽 경사지붕 아래를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붕의 가운데 북쪽 방향으로 돌출창이 나있는 것으로 보아, 맞배지



주택 '가' 북동쪽의 대문과 담장, 마당의 수목



주택 '가' 건물 후면의 상부 돌출창과 바뀐 지붕재료

붕의 상부 공간을 일부 다락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정보와 배치를 통해 원형을 추정해보면, 1960년대 초반 시멘트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목재를 사용하여 지붕틀을 구성한 후, 맞배지붕 형식에 시멘트기와를 올렸다. 본 건물은 남동쪽으로 건물의 긴 면이 향하고, 대지의 경계에 세워진 담장의 북동쪽으로 대문이 나있다. 간략한 건축물의 구조에 비해 대문은 두 곳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대문을 들어서면 앞마당을 끼고 측면의 현관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1960년대의 원형에서 바뀌었음을 마감 재료와 공간의 확장에서 알 수 있어, 향후 면밀한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주택 '나'와 '다'

석관동에는 몇 곳의 시장이 있는데, 그중 골목으로 형성된 곳이 돌곶이시장이다. 돌곶이시장의 골목은 서울시 항공사진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가장 오래된 시기인 1972년에도 형성되어 있다. 주택지 건축물들의 사용승인일과 항공사진을 통해, 시장 골목의 형성이 1970년대 초에 본격화되었



건물군 1층에 형성된 시장 점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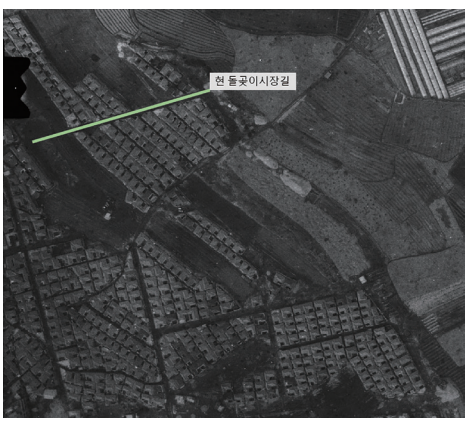
골목형 돌곶이시장

다고 보인다.

돌곶이시장 주변으로 1970년부터 1973년 사이에 작은 마당을 가진 'ㄱ'자형 주택들이 대거 지어졌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큰 골목들에 의해 구획된 면 안에는 작은 규모의 유사한 형태의 집들이 작은 필지에 겹겹이 배치되어 지어진 모습이다. 2019년 현재에도 큰 골목과 주택 사이의 작은 골목의 형태는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돌곶이시장 골목의 바로 남쪽에 면한 주택 '나'의 경우 1972년 7월 13일 사용승인을 얻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둔 주택은 시멘트벽돌과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혼합되어 지어졌고,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1층 8.07㎡(1층 면적의 약 14%)의 공간도 있다. 당시의 많은 주택 지붕은 대부분 시멘트기와를 올려 마감을 하였다.

1972년과 1973년 항공사진의 비교를 통해 주택 '나'보다 먼저 지어진 주택 '다'를 살펴봤다. 주택 '다' 역시 벽돌로 지어졌는데, 주택 '나'와 마찬가



1972년 항공사진에서 본 돌곶이시장 위치



주택 '나'와 '다'의 위치(1973년 항공사진)



주택 '나'가 위치한 1970년대 초반 주택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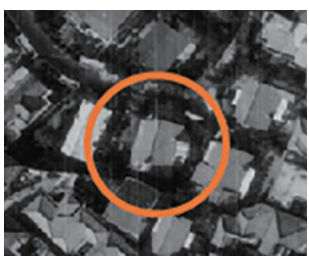
주택 '나'와 '다'의 위치(2018년 항공사진)

지로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 1층 12.4㎡(1층 면적의 약 19%)의 공간이 있다. 주택 '나'와 '다'를 통해 지하 공간을 살펴보면 1970년 건축법과 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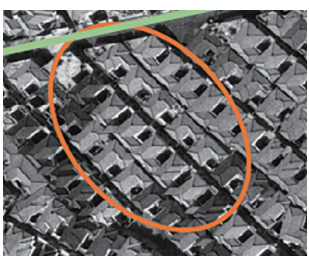
1970년 정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등의 주택 신축시 의무적으로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전시에 방공호나 진지 등 군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반공이데올로기가 한창이었던 시절에 시행된 건축 규제였다. 이 당시 만들어진 지하실은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대부분 창고 등의 비주거실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1980년대 들어 서울로의 유입인구 급증에 지하에 설비를 갖추면서 소위 '셋방'이 생기게 되었다. 지하 방공호의 주거실 사용은 불법이었지만, 당시 부족한 주택 공급에 행정에서 묵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하실의 열악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4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층 일부를 지상으로 올려 채광이나 환기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반지하의 시작이 된 것이다. 군사목

적 지하공간 설치 의무는 1989년 삭제되었지만, 이후 건축기준 완화와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설비 등을 의무화하면서 반지하 규정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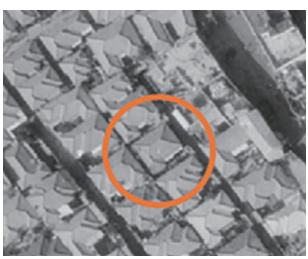
돌곶이시장 주변 대부분의 주택들이 20평 내외의 규모를 가진 단층 주택으로 지어졌다. 좁은 대지에 크지 않은 마당을 가지며 실 주거 공간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한 주택으로, 골목에는 대문을 돋보이게 세우거나 입면에 벽돌 외 돌붙임 마감을 하는 등 외관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1970년대 초반 신축 주택의 멋을 부리기도 했다.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으나, 골목의 형태와 필지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울 동북부 주거 확장 시기의 주거지역 도시구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반공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군사목적의 지하공간이 탄생한 1970년대의 시대상을 간직하고 있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택 '가'



주택 '나'와 '다'의 위치



주택 '라'

주택 '라'

의릉으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남북으로 연결된 화랑로32길의 북쪽 끝은 화랑로에 닿는다. 화랑로32길 양쪽으로는 2층 높이의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그 뒤편으로 저층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주택 '가' 보다는 좀 더 늦게 지어졌고, 주택 '나'와 '다'보다는 일찍 지어진 주택 '라'가 있다. 이 주택은 화랑로32길의 바로 뒷골목으로, 골목의 폭이 상당히 좁고,



주택 '라'의 위치(1982년 항공사진)



주택 '라'의 위치(2018년 항공사진)



주택 '라'의 대문과 골목



주택 '라'의 대문 기둥 마감재와 유사한 맞은편 주택 외장재

주택들의 대문은 상가건물 뒤편과 마주보고 있다.

주택 '라'는 1965년 10월 25일 사용승인을 얻은 건물로, 연면적은 57.22㎡(약 17평) 수준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벽돌구조로 지어졌다. 이 골목의 다른 주택들도 같은 시기에 지어졌는데, 대문 지붕이 단순한 조형미를 가지고, 문주와 본체 외벽 일부에 요철 문양이 들어간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주택은 주택 '가'에 비해서는 일자형 평면이 아닌 한쪽 끝이 꺾여 돌출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주택 '다'의 주택군에 비해서는 마당이 좁고 꺾인 형태의 평면의 폭이 본체에 비해 돌출 부위가 뭉특하고 좁아 평면 구성과 비례가 어색하게 보인다.

단독주택의 외관 형태

다른 지역에서도 1970년대 단독주택들은 대문과 난간, 지붕 하부에 장식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석관동의 단독주택들도 유사한 특징들을 보인다. 골목과 필지의 관계성에 의해 모퉁이 필지의 경우 모서리의 각을 주는 대지경계선에 맞게 대문도 주택의 본체와 평행을 이루지 않게 놓여진 모습이 눈에 띈다. 대지의 한쪽이 대각선으로 면하고 있는 주택은 2~3개의 공간이 조금씩 빗겨나간 형태의 평면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적 통일성은 동일 시기에 군락으로 지어진 구역을 빼면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남아있다.



본체의 2층 난간과 지붕하부의 장식 강조



모서리에 본체와 직교 동선을 만드는 대문



모서리 필지에 면한 대문을 가진 주택



모서리 필지에 면한 대문을 가진 주택



대지의 한쪽이 대각선에 면한 주택의 공간구성



단순한 본체와 담장으로 지어진 주택

옛 연탄공장

옛 연탄공장은 동쪽의 중랑천과 서쪽의 경원선 사이, 남쪽으로는 이문동과 북쪽으로 석관동이 연결된 남북으로 길고 넓은 부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부지의 흥망성쇠는 인구의 증가와 주거지역의 확산, 에너지원의 변천 등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과 산업화를 거쳐 현대 도시로 성장한 수도 서울의 동북부의 발전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인구증가와 주거지 확산으로 연탄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이에 대한 안정적인 연탄공급을 위해 정부는 연탄공장 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시책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연탄공장이 들어서게 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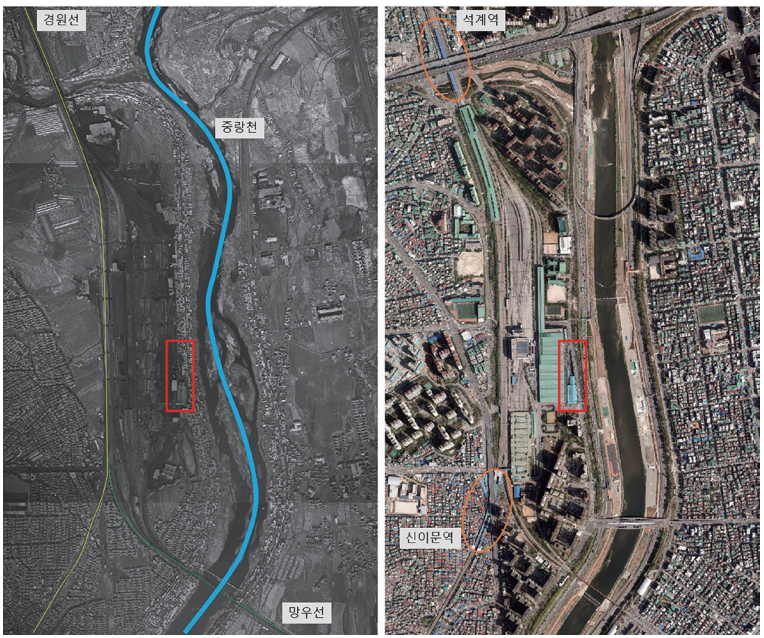
연탄의 제작은 수도권으로 원재료를 운반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1963년 망우선(망우역과 광운대역 연결하는 지선철도)이 건설되면서, 경원선과 중앙선이 연결되는데, 이 노선은 화물의 수송력 확대와 운행 장



1970년대 후반의 서울 이문동 석관동 전경
(경향신문사, 1978.03.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00732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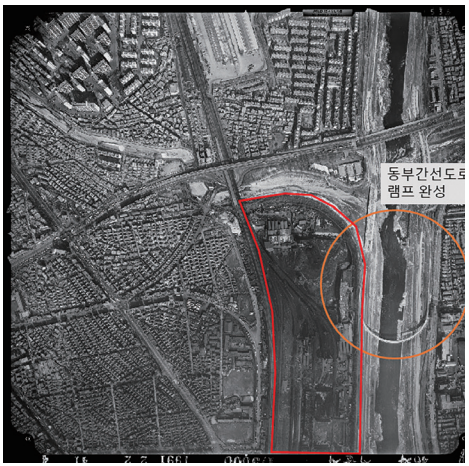
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문동에 무연탄을 저장하는 저탄장을 설치하여 서울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망우선과 경원선이 삼각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1966년 망우선의 화물역으로 이문역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저탄장은 총 5개 선(A, B, C, D, D')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석탄을 중력식으로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연탄공장은 저탄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1968년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서울의 연탄수요를 맞추고, 또 당시 문제가 되었던 서울 시내 중심가의 연탄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서울 외곽이었던 이곳에 연탄제조업 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1972년(왼쪽)과 2018년(오른쪽) 이문동 저탄장과 주변의 변화 (빨간색 네모 영역이 2019년 현재에도 남아있는 마지막 연탄공장 영역)

망우역의 무연탄 화물을 하차하는 하화장은 1969년 준공되었고, 1970년에는 성북역(현 광운대역)에 화물기지가 설치된다. 1971년에는 이문역이 민수용 무연탄 도착취급역으로 지정되었고, 1973년에는 경원선과 중앙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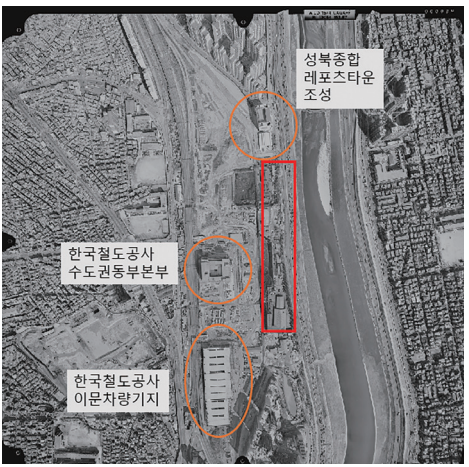
1990년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램프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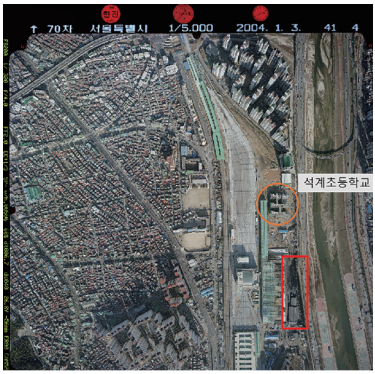
1991년 석관동 두산아파트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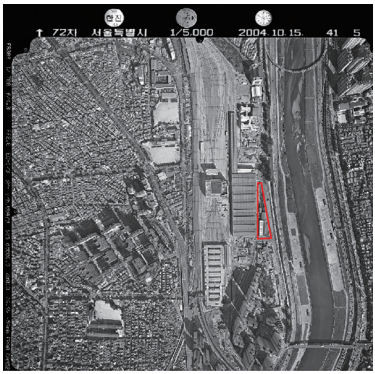
1997년 저탄장 부지의 정리



2001년 철도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2003년 지속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2004년 도로 개선과 함께 축소된 연탄공장 부지

전철화 공사가 완공되면서, 1974년 성북역은 수도권 전철 운행을 개시한다. 인구증가, 주택과 에너지원 공급, 교통체계까지 도시의 확장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석관동 주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주요한 변화의 요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는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의 램프가 완성되었으나, 저탄장과 연탄공장 영역은 유지되고 있다. 1994년 중랑천 서측 두산아파트 부지에 기초공사가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탄공장 시설들이 중랑천변쪽 남북방향으로 축소되고 있다.

1999년 이문차량사업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2000년에는 중랑천변쪽 남북방향 연탄공장 부지가 계속 정리되며 세로방향으로만 길게 남아있게 된다. 또한 2001년 연탄공장 부지 북쪽으로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이 조성되며 공장 부지가 축소되고, 연탄공장 부지 서쪽으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와 서남쪽으로 이문차량기지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성북종합레포츠타운 남쪽에 석계초등학교가 지어지면



신이문역에서 북쪽으로 본 경원선과 이문차량기지



2019년 남아있는 연탄공장의 북쪽 입구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





2019년 남아있는 연탄공장의 시설과 운반 도구들

서 연탄공장 시설 부지가 계속 축소되고, 2004년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옆으로 한천로가 정비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연탄공장 동측면이 잘려나가면서, 2019년 남아있는 연탄공장의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도시의 변화는 사람, 주택, 기반시설의 증가와 확충, 기능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다. 남아있는 연탄공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서울의 산동네와 서울 동북부에 인접한 산업·화훼단지 등에 연탄을 공급하면서 간신히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 에너지 정책까지 다양하게 수립되고 시행되면서, 이제 연탄은 도시민 삶의 공간에서 머지않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최호진)

장위동·석관동



8장 |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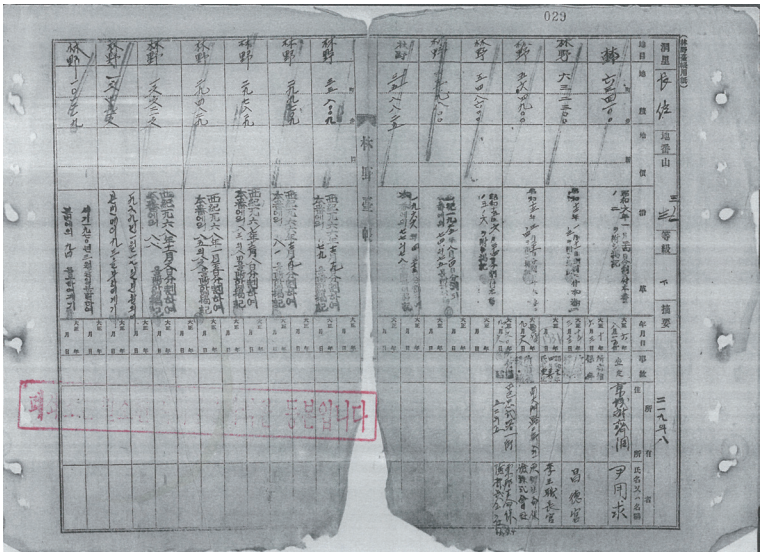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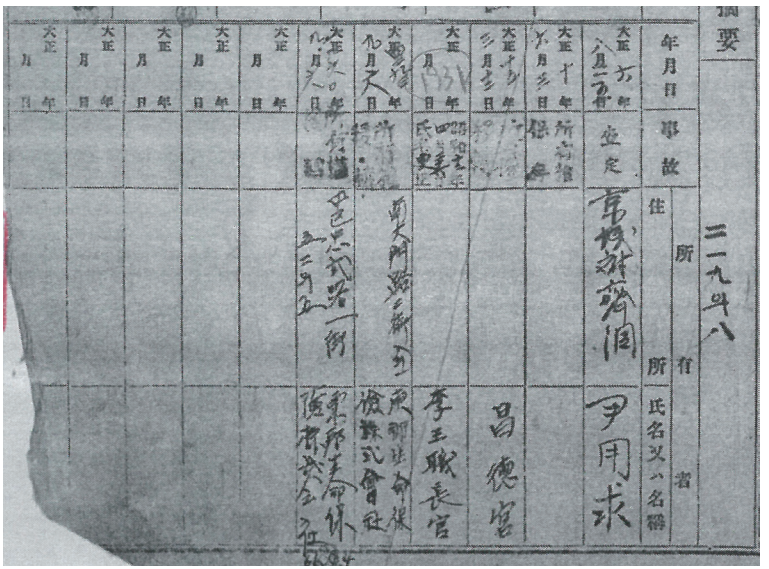
신경림 시인의 시 가운데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다. 이 시를 보면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동방주택'이 무엇인가 항상 궁금했다. 처음에는 '도시형 한옥'과 같은 특정한 건축 양식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동방주택은 동방생명주식회사에서 조성한 주택단지에 있는 주택을 일컫는 것이었다(물론 다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다).

성북구의 동방주택단지는 신경림의 시처럼 정릉동과 장위동에 건설되었다. 정릉동 단지는 면적이 35,360평이었고, 장위동은 162,170평이었다.[1] 유명인의 작품에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장위동이 정릉동보다 4.6배 가까이 규모가 컸다. 장위동 지역에 일종의 뉴타운이 들어선 셈이었다. 동방생명에서는 이곳을 '문화촌'이라고 이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2] 사람들은 동방생명주식회사에서 지은 주택이라는 의미로 동방주택으로 불렀고, 문화촌 이름이라는 대신 동방주택단지라고 불렀다.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규모는 16만 평이 넘는다. 이 넓은 부지를 동방생명주식회사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신문기사가 주목된다.

> 시경에서는 21일 상오, 「동방생명」에 대한 「이왕직대지 부정불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는데 이날 탐문된 바에 의하면 「동방생명」에





현재 김진흥 가옥의 폐쇄토지대장(상)과 그 확대본(하).
이 폐쇄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소유주가 윤용구에서 창덕궁, 이왕직장관을 거쳐 1960년 동방생명주식회사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 서울시내 장위동 산3의 1번지에 있는 이왕직대지 10만 7천 9백 40평을 9천 6백여만환에 매입하게 된 것은 정식 법절차에 의하여 전기 토지 소유자 윤명섭 씨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기 토지는 구한말 때 이조관서를 지낸 윤용구 씨의 소유 대지였는데, 윤씨가 사망한 이후 윤씨의 아들인 윤건영, 헌영 양씨가 전기 대지를 소비할 가능성이 있어 당시 「이왕직장관」연대 보증 아래 「조선식산은행」에 신탁되어 오던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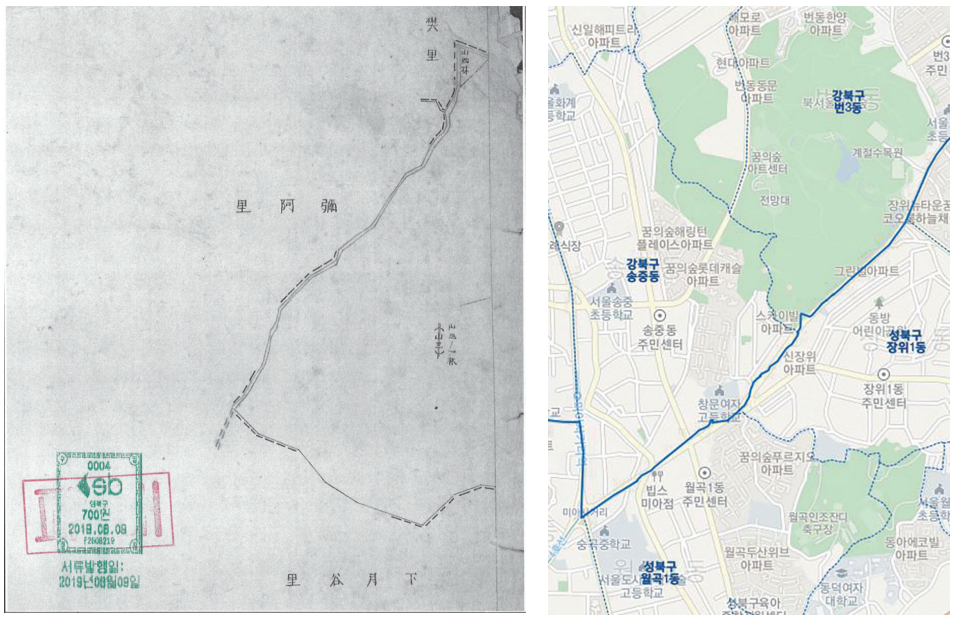
그 후 전기 윤씨의 직계 후손인 윤명섭 씨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작년에 전기 「동방생명」에 매각한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1960년 11월 22일)

이 기사는 이른바 「동방생명대지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을 다룬 기사이다. 이를 보면 윤용구의 아들 윤명섭은 장위동 산3-1번지 일대의 땅 107,940평을 동방생명에 팔았다. 동방생명이 장위동에 조성한 택지의 67%가 넘는 땅을 윤명섭이라는 한 인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 땅이 '조선식산은행'에 신탁된 땅이었다는 것이었다. 산3-1번지의 폐쇄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이 땅은 본래 윤용구의 땅이었다. 그런데 1926년(다이쇼大正 15) 이미 이 땅의 소유자는 창덕궁으로 되었고, 1937년(쇼와昭和 12)에는 이왕직 장관이 소유자로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윤명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을 판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것이다. 신문기사처럼 윤용구가 산3-1번지의 땅을 「조선식산은행」에 신탁을 맡긴 것이고, 소유권은 그대로 윤씨 집안에 있던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신탁을 맡긴 이상, 소유자는 신탁 관계를 해지할 때까지 그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동방생명이 산 토지는 바로 이 토지였다. 법원에서는 '정식 법 절차에 의해 매입했다.'고 하였지만, 신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윤명섭과의 매매는 성립될 수 없다. 식산은행이 해체되어 신탁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폐쇄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산3-1번지의 소유자는 이왕직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원까지 간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어찌됐건 법원의 판결로 산3-1번지 10만평이 넘는 땅은 동방생명주식회사의 땅이 된다.[3] 산3-1번지 땅은 아래 지도를 참고해볼 때 현재 장위1동에 해당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이 땅으로 일종의 장사를 했다. 국가에서 서민주



폐쇄임지적(야대)장(좌)의 일부와 현재의 장위1동, 두 지도 모두 위쪽으로 번동, 왼쪽으로 미아동(현재의 송중동), 아래쪽으로 하월곡동(현재의 월곡1동)이 보인다.(지도출처 : 카카오맵)

택 건립용 택지를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서울 근교의 택지에 투자하는 것을 인가했기 때문이다.[4] 동방생명의 경우 1960년에 구입한 토지 중 10만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1963년까지 거의 대부분을 분양했다. 1971년에는 동방생명이 장위동과 정릉동에 조성한 택지의 90%가 분양되었다는 기사도 나온다.[5] 이와 더불어 장위동의 땅값도 올랐다. 1961년 1평(3.3㎡)에 1,000원 하던 장위동의 땅값은 1967년 8월에는 15,000원~17,000원을 호가했고, 장위시장 근처는 무려 40,000원에 이르렀다. 15배~40배나 땅값이 오른 것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동방생명은 이곳을 평당 8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고 있었다.[6] 택지개발 비용을 감안해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당시 생명보험회사들은 적자를 부동산에서 메꿀 정도였다.[7] 이렇게 번 수입은 각 생명사의 모회사가 훗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동방생명의 경우 '이병철의 돈주머니'로 불리기도 했다.[8] 장위동 동방주택단지는 이런 국가의 정책 속에서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봤다는 사실과 별개로 장위동 동방주택단지는 고급단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성북동의 대교산업 주택단지, 조선일보 주택단지, 동빙고동의 강안 주택단지 등과 함께 '최고급'단지로 꼽혔다.[9]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유명인들이 거주했다. 배우 문희(본명 이순임)는 장위동 233-89번지에 거주했으며,[10] 은퇴 선언도 장위동 집에서 진행했다.[11] 이상한, 이주일 등과 콤비를 이루어 유명해진 희극인 이상해의 집도 장위동에 있었다. 그의 집은 대지 52평 건평 30평이었으며, 대문 옆에는 오동나무가 있었다고 하니 정원도 있었던 셈이다.[12] 하지만 1980년대가 되면 이미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고급 이미지는 많이 퇴색된다. 1983년의 신문기사에는 장위동은 정릉동과 함께 '유일하게 작년 가을 수준에서 집값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동방단지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싸다고 소문나' 있었다.[13]

이후 장위동의 부촌 이미지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장위동에 가면 70~80년대 마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비록 단독주택이 빌라로 많이 바뀌었지만, 좁은 골목 사이로 담을 맞대고 있는, 너무 위압적이지 않은 크기의 단독주택단지를 장위동에 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40여 년만에 장위동은 또 다시 변화의 기로에 섰다. 오랜 주택들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뒤늦게라도 장위동에 불어오는 셈이다.

오래전 동방주택의 건설은 현재도 존재하는 거대 기업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래 장위동의 주민들은 오히려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 지금의 변화는 또 누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까? 변화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변화의 이익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수진)

미주

1 동방생명10년사편찬위원회 편, 『동방생명 10년사』,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1967, 148~149쪽.
2 위의 책, 148쪽.
3 동방생명의 모기업이었던 삼성은 해방 이후부터 4·19혁명까지 대표적인 정경유착기업으로 지목되었으며, 5·16 이후에도 큰 처벌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공제욱,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와 자본가 - 8·15이후 관료적 독점자본가의 형성」, 『역사비평』 11, 1990, 78~79쪽).
4 「生報會社 不動産 보유현황 庶民住宅 건립위해 認可 받은 事業用宅地, 「매일경제」, 1974.05.20. 6면.
5 시장 확장에 각축 열기 띠는 생보업계, 「경향신문」, 1971.06.01. 4면.
6 서울의 땅값(7) 東北地區, 「매일경제」, 1967.08.08. 5면.
7 보험산업의 새 진로, 부동산 투자, 「매일경제」, 1982.04.06. 5면.
8 변모하는 재벌등기(財閥登記) (13) 동방생명(東邦生命), 「매일경제」, 1968.06.25.
9 주택 대단지|민간기업으로 활발, 「중앙일보」, 1969.11.21.
10 文姬양, 過熱求愛, 處罰해 주오, 「경향신문」, 1971.09.25. 7면.
11 文姬양, 隱退선언 11월 초 結婚, 「경향신문」, 1971.10.01. 7면.
12 이상해-김영임 부부, 「중앙일보」, 1981.01.19.
13 賣物없이 不動産 값만 뛴다, 「동아일보」, 1983.03.08. 8면.

장위동 · 석관동

성북구의 동북단에 위치한 장위동과 석관동은 강북구 · 노원구 · 동대문구와 인접해 있다. 이 지역에는 오랜 역사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나 그동안 역사 ·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경종과 선의왕후의 능인 의릉은 천장산 밑에 다소곳이 내려 앉아 석관동을 지키고 있다. 능이 생기고 나서 주변으로 마을도 조성되었다. 장위동에는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정조 대의 명재상인 번암 채제공은 이곳에 별업을 지었으며,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와 그의 남편 남녕위 윤의선도 장위동 남녕위재사에서 살았다.

한국전쟁 이후 장위동과 석관동에는 국가의 주도로 재건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조성되었다. 특히 장위동은 택지개발을 통해 부촌으로 거듭났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어 대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본청이 석관동에 있었다. 이곳은 7 ·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역사적인 장소임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잡혀 와서 고통을 받은 공간이기도 하다.

장위동과 석관동은 마을공동체의 흔적이 잘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종의 '마을 계'가 조직되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당제도 매년 치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위동과 석관동의 역사는 지금도 지역의 경관과 분위기, 주민들의 기억과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문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성북문화원은 이와 같은 장위동과 석관동의 문화유산과 이야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수립 및 지역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이 책을 기획하였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많은 주민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인, 연구자 들이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의 다채로운 이야기들과 이들의 기획력과 상상력이 만난다면 또 하나의 창조적인 지역문화 콘텐츠 생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위동 · 석관동 전경

※ 이 책은 성북구청 '2019 장위동 · 석관동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북 발간사업 콘텐츠 개발 및 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3910
9 791195 454419
ISBN 979-11-954544-1-9
비매품